

시로 읽는 성보순례
금동여래입상

국보 제123-4호 금동여래입상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보고 느낀 생각들은 덧없는 것이다
우리는 덧없는 생각을 끊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넉넉하고 안락해진다
「잡아함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11월 1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920호 2012년 12월 26일 수요일

박근혜 시대 개막… "꼭 공약 실천을"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12월 19일 열린 선거에서 총유권자 4050만 7842명 가운데 1577만 3116표(51.6%)를 획득함으로써 1469만 2625표(48.0%)를 얻는데 그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제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부모님 시절부터 불연(佛緣)이 깊은 박 당선인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은 높다. 박 당선인 역시 9개 부문에 걸친 방대한 불교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의 불교 정책 공약은 조계종이 제시한 정책안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화해협력과 상생을 위한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 △문화재 보호 예산 증액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전통사찰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 허용 △전통 사찰 규제 완화 △조계사 문화관광지구 계획 수립 △민족 전통문화 보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전통사찰 전반에 대한 정비 대책은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박 당선인은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구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둘 것을 제안했으며, 사찰 중점 규제 법령들의 개정도 약속했다.

문화재 보호기금을 5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전제 지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상응하게 정부의 문화재 유지·보수 예산을 증액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약의 이행 여부다. 이명박 대통령도 용주사 일원에 효문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약속했지만, 헛된 약속으로 끝난바 있다. 이에 박 당선인 측은 12월 5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선언하고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당시 주호영 새누리당 불교특위 위원장은 "이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덜어내는 등 애초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다.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종단 지도자들은 박 당선인에게 축하와 함께 국민 통합과 전통문화 보존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전통사찰 보존 골자로 한 9개 부문 불교 공약 제시
불교계 "전통문화에 주목"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20일 발표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국민과 시대에 부응하는 지도자가 돼주길 바란다"며 "우리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가치를 존중하고 다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불교계 인사들도 불교 정책 공약 이행을 기대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대표 법응 스님은 "불교 전통문화가 가지는 가치를 사회에 구현될 수 있도록 박 당선인이 노력해 달라"고 밝혔으며, 최용춘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도 "공약 이행은 예산 문제로 순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발전을 이끌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팥죽 드시고 액운 다 날리세요! 24절기 가운데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를 맞아 12월 21일 전국의 사찰에서는 이웃들과 팥죽을 함께 나누고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다. 서울 조계사는 3천여명분의 팥죽을 불자와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조계사 대중이 이웃과 나눌 팥죽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합니다 조계종은 12월 17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등이 참석했다. 글=정혜숙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군포교 최초 비구니 군승 파송된다

군종교구·비구니회 '비구니 군승' 선발 합의

2014년 비구니 군승 파송이 본격화된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우)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12월 12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회담을 갖고 전국비구니회에서 대상을 선발해 추천하면 군종교구에서 1년간 입대 전 교육을 실시한 후 2014년부터 군승으로 파송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공식합의에 따른 파송 대상자는 2명이다. 군종교구는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강원 재학 학인 스님을 대상으로 요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장성화 군종교구 정책기획실장은 "여성장교 비중이 7% 수준"이라며 "비구니 스님 비율을 이에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구 군승은 140여 명. 7% 수준은 10명 선이다.

파송 대상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입대 기준 35세 미만이어야 한다. 군포교를 원하는 비구니, 사미니 스님은 전국비구니회를 통해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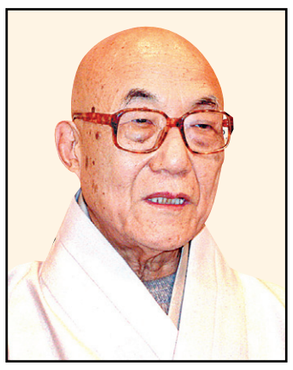
비구니 군승은 교육시설 등에 중점 배치된다. 이를 위해 군종교구는 비구니회로부터 군승파송 대상자를 추천 받아 현행 교육보다 대폭 늘어난 1년의 예비군승 교육 후 파송한다.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 군승 파송에 적극 나섬에 따라 군승정원 충원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종교구에 따르면 최근 군승 지원자는 크게 감소한 상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화장 석정 스님 원적

12월 20일 부산대양산병원서…동국대 시신기증



중요무형문화재 118호 불화장(佛畵匠) 기능보유자 석정스님이 12월20일 오후 11시 52분 경 부산대 양산병원에서 입적했다. 세수 84세, 법납 72세다. 지난 2011년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주관한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한 스님의 운구는 동국대 경주 병원에 기증됐다.

스님은 지난 2011년 8월 주석처인 부산 금정구 장전동 선주산방에서 생명나눔 장기기증 서약식을 하며 몸을 기증하는 일은 영원히 사는 길이며 부모에 대한 마지막 효도라는 말로 소감을 전했다.

당시 스님은 "부모에게 받은 유일한 재산인 몸 한 조각이라도 세상에 도움이 돼 베풀 수 있다면 최고의 공양이다. 늙어 쓸모없는 몸이라도 의대생들의 실습 교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증할 수 있으니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을 거 같다"고 밝혔다.

초재부터 6재까지는 마산 청평원에서, 49재는 조계종림 송광사서 봉행될 예정이다. 석정 스님은 유훈을 통해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빈소도 마련하지 말며 영결식도 갖지 말라. 내 몸은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스님의 유지에 따라 문도들은 모든 절차를 이행했다.

석정 스님은 1928년 강원도 고성군 신북(외금강)면에서 출생해 1940년 순천 송광사에서 석두(石頭)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같은 해 불모 일섭 스님에게 불화를 사사받고 그 다음해 인가받았다.

1969년 부산에서 선서화전을 시작으로 각종 불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시회를 열었으며 대한민국불교미술전람회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07년 〈한국의 불화〉 40권을 완간하고, 서울 예술의전당과 부산 국제문화회관에서 '연묵전'을 열었으며 대한민국 문화포장(보관훈장)을 받았다.

199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으로 지정됐으며 2006년 1월에는 단청장에서 분리 독립된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으로 지정됐다. 정혜숙 기자

불국토 경주 남산을 오르다

본지·신라문화원 공동 경주 남산 답사

현대불교신문사와 경주 신라문화원은 1월 5일부터 매월 첫째주 토요일 '신라문화기행: 경주 남산 불적 답사'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불국토 남산에 산재된 유물들을 탑, 불상, 설화 별로 만날 수 있는 이번 답사는 불자님들의 신심 증장과 불교 문화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일 시** 2013년 1월 5일부터 매주 첫째주 토요일(총 12회)
- **집결 장소** 경주 신라문화원 오전 9시 출발
- **안 내**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연구소장
- **참 가 비** 매회 2만원(도시락 지참)
- **연 락 처** 054)774-1950, www.silla.or.kr

920호 INDEX

종합 2·3
총무원장 선거 간선제 공청회
천태종 16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조계종 쇄신 인사 단행
2012 종단 결산
10·27법난 재조명 세미나

2012 10대 뉴스 5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6·17
광우 스님



문화 21
제1차 불교음악상 이찬우씨

달라이라마·스테판에셀 31
'정신의 진보를 위해' 대화

우리는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행을 선택한다!

심리학자가 들려주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정직한 행복학 강의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하고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 생각들……
이 생각들 속에 행복이 있을까?

우리에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이 있다.
가만히 내게 귀 기울이면 들리는 것이 있다. 그 속에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있다.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즐거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의 습관과
홀가분하게 이별하기

심리학자 김정호 지음 | 224쪽 | 13,000원

최신간



불광출판사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심리학의 눈으로 새롭게 풀이한 불교 핵심 교리

치유하는
불교읽기

원래 의학에서 '치유(healing)'라는 말은
손상된 조직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하는 불교 읽기'가 우리가 타고난 본래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는 마음 치유 과정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그리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어는 글〉 중에서



서광 스님 지음
288쪽 | 14,000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힘

반야 참회

'반야 참회'란 전통적인 불교의 번뇌론과 선정 수행론을
기존 참회에 적용해 수행 차원으로 체계화시킨
새로운 참회 수행법이다.
반야 참회는 불교 입문자들이 단시간 내에
수행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수행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혜용 스님 지음
288쪽 | 13,000원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23-4호 금동여래입상



금동여래입상

한영숙

마한의 왕궁이 있던 터,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속 은밀히 내재된
어른 손바닥만한
청동 불상,
연꽃 대좌에서부터 불꽃무늬 광배에 이르기까지
삼천배를 올린 장인의 혼이
시무외인한 부처의 손끝으로 은은히 비어져 나온다
감은 듯 뜬 듯 관조반야의 눈빛,
금방이라도 반야심경을 외우다 만 듯
꽉 다문 입술에는
삼세하고 화려한 신라인의 기상이,
모든 중생 고통 함께하는 부처의 깨달음이
물려 있는,
천삼백 년 전
그 풍광 그대로
아직도 그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탁본하고 있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한영숙 시인은… 1960년 경북 예천 출생. 2004년 〈문학 · 선〉으로 등단.

"간선제, 비구니·재가 참여 확대해야"

종단쇄신위,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2차 좌담회

조계종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비구니와 재가자 참여로 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는 지난 3일 직선제에 이어 1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간선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조계종 종책특보 덕문 스님이 발제자로 나서 간선제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덕문 스님이 제안한 방안은 현행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씩 총 321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비례별 대표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교구별 재적승 200명 당 1명 혹은 300명 당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교구별 유권자는 각각 47명과 37명이 증가한다.

이어 덕문 스님은 "교구종회가 아닌 산중총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비구 중심의 선거인 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비구니 선거인단 참여를 최소 20%까지 의무화하고, 재가자의 참여도 가능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간선제 확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간선제 확대 방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성문 스님은 "직선제는 우리 역량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불교적이지도 않다. 그런 점에서 간선제 확대가 바람직하다"며 "다만 현재처럼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의 간선

현행 간선제 유지하며
교구선거인단 확대 제안
소수 권력독점 우려도

제 확대는 안된다. 선거운동을 하면 금권선거나 세력 대결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현행 간선제 유지나 축소를 주장했다. 스님은 "재적승이 많은 곳에 선거인단을 더 많이 할애하면 자칫 소수에 의한 권력독점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는 17일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두 번째 순서로 간선제 방안을 논의했다.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모든 종도들이 정치화된다. 재가자들이 출가자의 갈마에 참여하는 것도 율법에 맞지 않다"며 "사부대중협의체를 만들어 공의를 모아내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간선제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형남 변호사는 "간선제 확대는 선거인단이 약간 증가할 뿐 현행 제도와 근본적 차이는 없다"며 "총무원장 후보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간선제를 채택한다면 상시적이고 책임감 있는 조직인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쇄신위는 2차에 걸친 좌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앙종회 전까지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종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천태 수행 종풍 계승에 박차"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취임법회 봉행

천태종 제16대 총무원장 도정 스님의 취임법회가 봉행됐다.

천태종은 12월 20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대한불교천태종 제16대 총무원장 도정 스님 취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법어를 통해 "천태의 묘법이 이곳에 다시 펼쳐졌으니 억조창생 구제중생 높은 원력을 받들어 한마음으로 합심해 정진하라"고 설했다.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취임사에서 "천태종은 한국불교 주요 종단의 하나로,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중차대한 임무도 갖고 있다"며 "수행 종풍 계승, 승려 복지 등 교육 · 복지 · 문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모든 것은 총무원장 한 사람의 의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대중 스님들의 격려와 종도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 인사의 축사도 이어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도정 스님께서 천태종의 대외적인 활동 폭을 더욱 넓혀 한국불교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원했으며,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도 "천태종이 더욱 융창해 국민들에게 더 큰 용기를 심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능해 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했다. **신중일 기자**


천태종은 12월 20일 단양 구인사에서 16대 총무원장 도정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종단 쇄신 마무리위한 인사 단행

18일 조계종 교역직 인사

조계종 총무원과 산하 기관 교역직 인사가 단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18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새로운 교역직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교역직 인사는 총 8명으로 주경 스님(기획실장), 원범 스님(재무부장), 원학 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 원경 스님(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성직 스님(불교신문사 사장), 일감 스님(불교신문사 주간), 각림 스님(불교문화재 연구소장), 현담 스님(총무원 사서국장)이다.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1989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산 부석사와 15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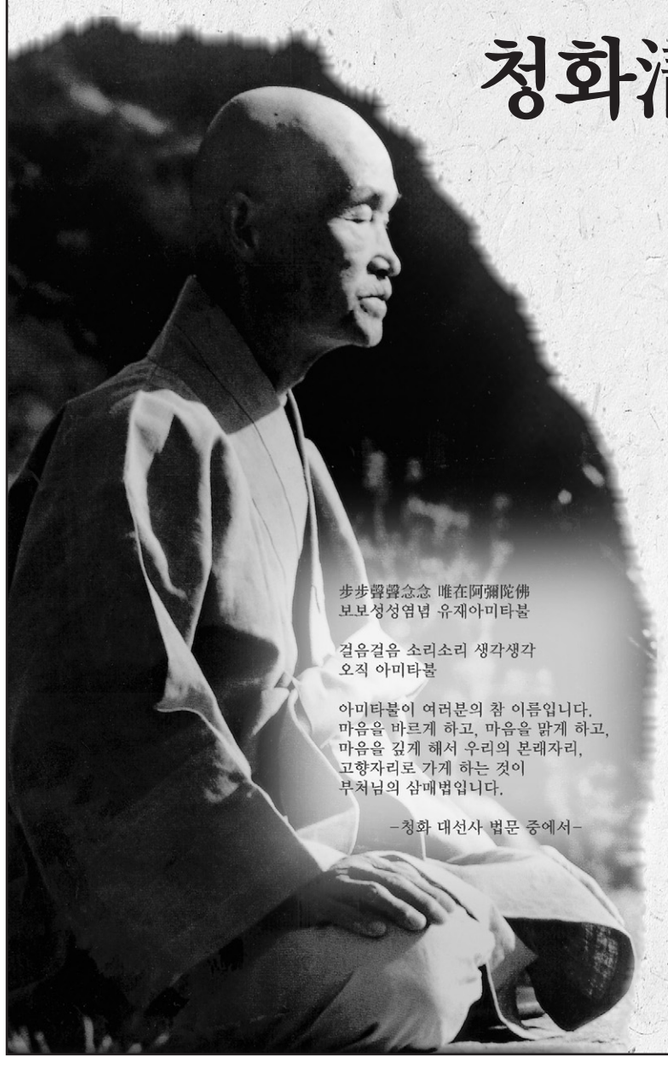
신임 재무부장 원범 스님은 1975년 범어사에서 덕명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현재 선암사 주지와 15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경 스님 원범 스님 원학 스님
원경 스님 성직 스님 일감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원학 스님은 총무원 총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등 종단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현재는 15대 중앙종회의원과 삼화사 주지로 재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12월 17일 혜명스님을 불학연구소장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기획실장으로 임명된 주경 스님이 사의를 표한 조계종 교육위원장에는 동국대 교수 종호 스님이 선임됐다. **신중일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2월 8일자(874호) 20면 머리기사 '유승엽 오카리나 연주자…' 관련기사 중 "1999년 2월 '혜초' 공연을 기획했다"를 **"'혜초' 공연에 찬조 출연해 오카리나 연주를 했다"**로 바로 잡습니다.



청화淸華 대선사大禪師 열반 10주년 추모 학술세미나

- 순선純禪시대 조사들의 사상에 나타난 염불선念佛禪

삼보에 귀의하옵고,
오는 새해 2557년(2013)은 청화 대선사 열반 10주기입니다. 이를 맞아 대선사의 사상을 기리는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려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순선純禪시대 조사들의 사상에 나타난 염불선' 입니다. 순선시대는 불교사에 있어 달마대사로부터 육조혜능에 이르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 조사들의 가르침에 나타난 염불사상 가운데 실상염불사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특별기획으로 한국불교학연구의 요람인 동국대 불교대학의 불교학전공자와 국내 권위있는 조사선 박사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청화 대선사의 염불선 사상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인하는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수희 동참하시어 청화 대선사의 사상을 기리고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화사상연구회 회장 무상(성륜사 주지) 합장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일시▐ 2013년 1월 5일(토요일) 오후 1시~6시

- 진행 순서 -

제1부 | 사회 : 청화사상연구회 부회장 혜용스님 (광륜사 주지)
1:00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1:10 회장 개회사 · 성륜사 주지 무상 스님
1:20 문도대표 환영사 - 벽산문도회 의장 용타큰스님
재가대표 축사 - 대상그룹 명예회장 상정 임창욱 거사님
1:30 종단원로 추도사 - 고불총림 백양사 수좌首座 지선 큰스님

제2부 | 사회 : 청화사상연구회 연구소장 (박선자 교수)
2:00~2:30 제1 발 표 : 조준호(한국외대 남아시아연구소) 초조달마대사 어록에 나타난 염불선
2:30~2:40 토 론 : 김호귀(동국대 불교학술원)
3:00~3:30 제2발표 : 최동순(동국대 불교학술원) 4조 도신대사 어록에 나타난 염불선
3:30~3:40 토 론 : 손병욱(경상대 국민윤리학과)
3:40~4:10 제3발표 : 박경준(동국대 불교대학) 6조 혜능대사 어록에 나타난 염불선
4:10~4:20 토 론 : 변희욱(서울대 철학과)
4:30~5:50 종합토론 : 사회 · 청화불교대학(김영동 교수)
5:50~6:00 폐 회 사 : 청화사상연구회 부회장 혜용스님(광륜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벽산문도회 청화사상연구회
행사문의_ 성륜사 (061-363-0081) / 본원 김우상 (010-3844-5643)

쇄신 · 참여로 내부갈등 극복

2012 종단 결산

한국 불교 장자 종단인 조계종은 올 한해 내홍으로 뒤숭숭한 한 해를 보냈다. 특히 백양사 승려 도박 몰카 사건은 단순히 종단의 내부 문제가 아닌 사회 이슈로까지 부각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단 쇄신 사업이 이어졌고 불교계 최초로 노동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불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됐다.

올해 종단적 이슈를 5개의 키워드로 살펴봤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이 도박 추문이후 조계사 대웅전에서 우중참회를 하고있다〈사진 왼쪽〉. 지난 8월 열린 노동자 무차대회〈사진 오른쪽 위〉와 진각종 전승관 낙성법회 모습〈사진 오른쪽〉. 내부적 갈등이 많았지만, 이를 슬기롭게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올 한해 이어졌다.

반목= 지난 5월 백양사 주지 · 방장 직을 둘러싼 갈등이 도박 몰카로 이어졌다. 백양사 인근 호텔에서 8명의 스님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TV 영상이 공개되자 불교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스님 중 한 명은 바로 주지직을 사퇴했고, 당시 중앙종무기관 부장급 스님들은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도 교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도박을 한 이들은 시주밥을 먹을 자격도, 먹물옷을 입을 자격도 없다"라고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참회문을 발표했고, 중앙종회 종책모임도 이 같은 영향으로 전부 해산했다.

여기에 정한영(법명 성호)가 자승 스님의 과거 행적에 관한 추가 폭로를 예고하면서 연일 매스컴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백양사 前 주지 시몽 스님도 마지막까지 주지 직을 놓고 총무원과 힘겨루기를 펼쳤으나 결국 올해 처음 구성된 종단징계위원회에서 첫 '직무정지'를 결의와 함께 초심호계원에서 제적 징계를 받았다. 도박 관련 스님 8명은 공권정지 3년에 처해졌다.

쇄신= 도박 사태로 인한 종단 갈등을 조계종 총무원은 6월 종단 쇄신안을 내놓으며 돌파하려했다. 당시 총무원은 △승려는 수행 포교 전념 △사찰의 재정관리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 △불교정신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마련 △현대사회에 맞는 출가승단 청규 제정 등을 골자로 한 1차 쇄신안을 제시했다.

이후 중앙종회에서 사찰운영위원회를 의무화 하는 쇄신 입법 등을 잇달아 개정 · 제정했으며, 종단쇄신위원회가 구성돼 사부대중 공의를 통한 종단 쇄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종단 쇄신안은 △승가청규 △종단종무쇄신안 △선거제도 △승가복지제도 등 4가지 의제로 압축됐으며, 내년부터는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 올해 가장 불교가 돋보였던 것은 스타 스님들의 힐링 열풍과 더불어 적

도박 · 몰카로 한해 홍역
종단 쇄신안 내놓고 진정
사회 참여는 '팔목상대'

극적인 사회 참여였다. 그중 지난 8월 발족한 조계종 노동위원회와 화쟁위원회의 활약은 '백미(白眉)'였다. 이들은 무엇보다 시대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쌍용차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으로 노동자들 공양하는 무차대회를 개최했으며,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에서는 10만배 100일 정진에 들어가 12월 26일 회향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계 33인 원탁회의 구성에도 적극 동참해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 같은 노력들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주요정당에 18대 대선 이후 '쌍용차 국정감사 진행 약속'이라는 성과로 결실을 맺었다.

불교계의 이런 전향적 행보는 20~30대의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11월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 · 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회문제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종교에 대해 20대와 30대는 불교를 1위(20.9, 26.7%)으로 꼽기도 했다.

교체 · 신설= 사실상 한국불교의 가장 큰 어른이자 신성인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추대법회가 지난 3월 28일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종정으로서의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진제 스님은 지난 10월 'UN 세계종교지도자 모임'의 초청으로 뉴욕 UN프라자빌딩에서 법문을 설하는 등 한국불교 위상 강화를 위한 본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1년여를 총무원장 직무대행 체재로 천태종은 11월 29일 16대 총무원장에 도정 스님을 임명했으며, 12월 20일에는 구인사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취임식에서 도정 스님은 천태 종풍 계승과 진작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창종 60주년을 맞아 2007년부터 불사를 시작한 진각문화전승관이 10월 30일 낙성법회를 열고 그 위용을 드러냈다. 진각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완공된 진각문화전승관은 진각종의 중심사상인 삼밀수행의 가치를 세우는 교리적 공간배치로 건축됐다.

과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겪은 만큼 적지 않은 숙제도 남았다. 특히 조계종 쇄신책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또한 총무원은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좌담회와 공청회를 열고 종도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교구본사들의 잇달은 총림 추진으로 인한 관련 법 수정도 내년 처리해야 할 과제다. 현재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 개정 논의가 추진 중이며, 내년 초 총무원, 중앙종회의 총림별 실사도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커피 · 영화 · 도자기… 풍성해지는 스님 교육

조계종 교육원, 2013 연수교육 일정 발표

조계종 승려 연수교육이 더욱 풍성해지고 다양해진다. 경주 남산 불적 답사 이외에도 해외 성지 순례가 연수로 확대됐으며, 영화 · 커피 · 도자기 만들기 등 교양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이뤄진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2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연수교육' 일정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원은 "내년 연수교육은 5개 과정(경전 · 교양 · 사찰운영 · 전법 · 순례)에 걸쳐 총 43개 강좌가 문을 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안스님과 함께하는 인도성지순례', '보광스님과 함께하는 일본 고찰순례', '고우스님과 함께하는 중국 선종사찰순례' 등 해외 순례과정이 처음 시행된다. 국내 프로그램으로는 '경주남산불적답사'와 '백제불교문화답사'가 마련됐다.

실습교육으로는 '우리 차 만들기(여연스님)', '도자기 만들기(김영길)', '수행생활과 커피(강귀영)', '수행과 요가(정경 스님)' 등이 추가됐으며, 교양과정에서는 '동의보감의 세계(고미숙)', '주역의 세계(성태용)', '역사로 읽는 기독교 이야기(백찬홍)', '영화로 세상읽기(곽재용)' 등 9개 강좌가 개설됐다.

경전과정에서는 '능엄경(혜거 스님)' '정토신앙의 세계(보광 스님)' '아비담마 길라잡이(각묵 스님)' 등 6개 강좌가, 전법과정에서는 '동사섭(용타 스님)' '불교문화유산의 이해(흥선 스님)' '국제구호사업과 불교(묘장 스님)' 등 4개 강좌가 신설됐다.

자원봉사활동 과정은 참가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교구본사 복지법인 산하 24개 복지시설을 자원봉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자원봉사 최소시간은 1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조정했다.

연수교육비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교육원은 승가교육진흥기금을 통해 내년부터 승랍 10년 미만인 스님의 교육비는 50%(10만원), 이외에는 25%(5만원)를 지원한다. 단, 순례과정은 연수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한편, 조계종 연수교육에는 2010년 1600명, 2011년 2900명, 2012년 3800명의 스님이 참가했으며 2013년에는 참가자가 4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중일 기자

"덕분에 후방은 이상무"

자승 스님 6사단 격려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20일 강원도 철원 6사단 수색대대를 방문해 최전방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국군장병을 격려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장병들에게 "여러분이 있어 후방은 늘 행복하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전역하는 날까지 건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격려금 800만원과 텔레비전 두 대, 간식을 6사단 장병들에게 전달했다.

글= 신중일 기자 · 사진= 조계종 홍보팀

BBS 사장 해임 '소위원회 구성'

12월 18일 정기이사회서

불교방송 이사회가 이채원 사장 해임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한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12월 18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제 79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감사결과 보고에 따른 사장 해임의건'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는 김윤수 불교진흥원 이사를 위원장으로 이수덕 불교진흥원 이사, 이수덕 불교진흥원 이사, 구상진 불교진흥원 이사, 배홍규 감사가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측은 "감사보고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이라며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사장 해임건의 절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10.27법난은 국가가 저지른 폭거"

조계종, '10 · 27법난 재조명 세미나' 개최

10.27법난의 역사적 의미와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국제회의장에서 '10.27법난의 재조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 발제에 나선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대오스님은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활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 제하 발표를 통해 가해 주체가 축소되고 구체적 보상 내용이 없는 현행법 개정을 주장했다.

대오스님은 "10.27법난은 한국불교 전체를 상대로 저지른 잘못된 국가권력의 폭거"라며 "그러나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온전한 명예회복은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를 국가로 명시하고 법 효력시한을 폐지해 안정적인 진상규명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며 "종단 집행부가 철저한 문제의식을 갖고 치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과거청산의 맥락에서 본 10.27법난'을, 이재승 건국대 교수가 '10.27법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10.27법난의 피해와 피해자(단체)의 명예회복 방안'을 각각 발제하며 진실과 화해를 위한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은 12월 14일 대구 인터불고호텔과 16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신중일 기자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그 해답의 기준은 금강경!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최상의 가르침

인생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행복한 삶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내가 주인인 삶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삶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의 지금 이순간,
괴로움에서 벗어나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해탈의 길을 제시한다.



베스트셀러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스님 지음 | 552쪽 | 27,000원 | 정토출판

정토출판 전화 02-587-8991 전송 02-6442-8993 이메일 book@jungto.org

일 주 문



자비나눔기금 기부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12월 20일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나눔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아침마당 출연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은 12월 27일 KBS1아침마당 '목요특강'의 강사로 출연해 마음공부 등에 대해 강연한다.



불학연구회 윤독회 지도

권오민 경상대 교수는 2013년 1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2달간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불학연구회(회장 성덕) 윤독회를 지도한다.



명정장학재단 장학금 전달

이대호 프로야구 선수는 12월 21일 부산 원오사 대웅전에서 열린 명정장학재단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에서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림, 각묵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



대림 스님



각묵 스님

최근 초기경전 '4부 니까야' 17권을 완역한 초기불전연구원 원장 대림 스님과 지도법사 각묵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받았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8일 오전 10시4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각묵스님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니까야 완역 지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스님의 감동적인 니까야 4부 완간 원력에 비하면 종단의 관심이 그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고맙다"고 말했다.

각묵 스님은 "빠알리 삼장 중 현재 3분의 1 정도를 번역한 상태"라며 "10년 안에 완역하겠다는 원력을 세웠으나 죽을 때까지 게으르지 않고 번역에 매진하겠다. 나태하지 않게.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평론 발전기금 기탁



폐간 사태를 겪은 〈불교평론〉이 2013년 봄호부터 복간될 예정인 가운데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스님이 발전기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법응 스님은 지난 9월 불교평론 폐간 소식이 알려지자 "불교평론지는 지속적으로 간행되어야 한다"며 200만원을 공공기탁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법응스님은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불교평론은 한국불교의 지성적 성장을 위해 할일이 많은 잡지"라며 "속간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관심과 후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청화 스님은 이시대 참 수행자"

열반 10주기 맞아 청화사상연구회 기념세미나 … '염불선' 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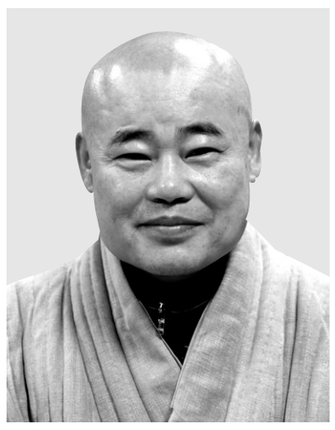
40년 동안 장좌불와, 하루 한끼의 일종식. 입적하는 날까지 스스로의 방청소를 했던 수행승의 전범 청화 스님.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승으로 꼽히는 청화 (淸華 · 1923~2003) 스님에 대한 선양이 본격화된다.

청화사상연구회 회장 무상 스님(곡성 성륜사 주지)은 12월 20일 서울 종로에서 기다간담회를 열고 청화 스님 선양 사업을 펼칠 것을 밝혔다.

무상 스님은 이날 "2013년 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청화 스님열반 10주기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염불선은 청화 스님이 주요 수행법으로 펼쳤던 선법으로 곡성 성륜사에서는 그 가르침을 받아 선방에서 간화선과 염불선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순선(純禪)시대 조사(祖師)들의 사상에 나타난 염불선'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조준호 한국외대 남아시아연구소 박사의 '초조달마대사 어록에 나타난 염불선', 최동순 동국대 불교학술원 박사의 '사조도신대사 어록에 나타난 염불선', 박경준 동국대 교수의 '육조혜능대사 어록에 나타난 염불선'이 각각 발표된다.



청화 스님의 청빈한 삶
1월 5일 학술세미나 열고
청화 스님 주창한 염불선 고찰

선서화전 개최 · 법어집 발간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조준호 박사는 "염불선은 간화선이나 묵조선이 일어나기 전에 초기선종시대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사상이고 행법"이라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상 스님은 "동아시아 대승불교 역사에서 수많은 행법들이 대두됐는데 간화선, 묵조선, 염불, 주문 등이 그것"이라며 "한국불교 전통에서는 간화선이 주류 또는 중심행법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초기 선종 당시의 행법 전개를 살펴보면 염불선을 비롯한 다른 행법에 대한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상 스님은 이어 "청화 스님은 평생을 수행으로 살다 가신 분"이라며 "'정통불법(正統佛法)의 재천명'을 표방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화 스님이 주창한 염불선이 현대불교 수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집중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이어 청화사상연구회와 벽산문도회는 2013년 선서화전과 법어집 발간, 추모사진전 개최 등 열반 10주기 기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1947년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청화 스님은 40여 년간 20여 곳의 토굴에서 수행했다.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식(一種食)과 자리에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 수행을 평생 동안하며 후학양성에 매진했다. (061)363-0081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3회 '대원불교문화상' 시상식 열려



대한불교진흥원은 12월 13일 동국대에서 제3회 대원불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원불교문화상은 동국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불교학술분야와 불교창작분야에서 실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불교학술 저서부문 김영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의 〈불교와 무無의 근대〉 △논문부문 김기종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의 '15세기 불전언해의 시대적 맥락과 그 성격' △기획부문 한상기 · 정동환 동국대 영상대학원 전임연구원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불교문화콘텐츠 개발 디펜스 게임' 기획, 김상남 동국대 영상대학원 전임연구원의 '관광가이드매체개발을 위한 불교 원형 스토리 애니메이션' 기획 △시나리오부문 우수진동국대 영상대학원 연구원의 〈와니는 워킹중〉이 선정됐다.

순수 및 응용 불교 관련 저술 및 논문 등을 대상으로 한 불교학술분야에는 저서부문 600만원, 논문부문 300만원이,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 다큐멘터리 등을 대상으로 한 불교창작분야에는 기획부문 각각 300만원, 시나리오부문 400만원의 상금이 지원됐다.

노덕현 기자

일면 스님, 광동학원 이사장 재임



학교법인 광동학원은 12월 17일 제338차 이사회에서 조계종 호계원장 일면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 불암사 회주, 사진)을 이사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스님은 이미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이사장을 역임했고, 올해 4월 27일 다시 추대돼 이사장직을 맡아 왔다, 이번 추대로 일면 스님은 다시 이사장 소임을 맡게 됐다.

스님은 1990년대 초반 어려움에 처했던 광동학원의 이사장을 맡아 다시금 튼튼하게 기틀을 닦고, 정부 보조금을 확보하는 등 광동중 ·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탈바꿈시켰다. 일면 스님의 이사장 임기는 2013년 2월 27일부터 4년이다.

추대 직후 일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를 실천하고, 경쟁력 있는 불교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면 스님은 1959년 해인사에서 명허 화상을 은사로 출가했다. 자운 율사를 계사로 1964년 사미계를, 1967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 대교과,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했다.

흥국사 주지,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총무원 사회부장,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조계종 교육원장, 조계종군종특별교구 초대교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호계원장, 동국대학교 이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신중일 기자

조동종 56차 정기 총회

12월 17일 상계동 총무원서



사)대한불교조동종은 12월 17일 상계동총무원에서 제 56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부종정 덕룡 스님, 총무원장 덕우 스님, 감찰원장 행성 스님, 종회의장 행봉 스님을 비롯 각 부장스님 및 종회의원스님들이 참석했다. 총회는 삼귀의례에 이어 의장스님 인사말씀과 감사보고에이어 2013년도 예산계획안과 신규사업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특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동종 발원지 중국동산보리선사에 한국법당건립 신축공사는 내부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내년 4월에 점안 법회를 갖는다.

경남남부지사장 청운 스님

동국대, 연말연시 기부 바람 '훈훈'

동문 · 기업인 · 불교계 등 거액 후원금 줄이어

연말을 맞아 종립대학인 동국대 발전을 염원하며 거액의 후원금을 쾌척하는 미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세스코 전순표 회장(농학53)이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주)신라교역과 신라문화장학재단을 이끌고 있는 박준형 회장(경제60)도 학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을 보내왔다. 두 회장은 특히 매년 학교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오고 있다.

또한 KCC 정상영 명예회장(법학55)은 국가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진출하게 된 후배들을 위해 사재 1억원을 출연하여 장학금을 보내왔다. 정상영 동문은 올해 3월에도 장학금으로 1억원을 보내왔으며, 지금까지 동국대 발전을 위해 총 28억원을 후원한바 있다.

이보다 앞서 (주)심팩 최진식 회장(무역77)은 올해 행정 · 외무 · 입법고시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1억원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고시장학금 외에도 학교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내놓아 이 자리에서 총 2억원을 학교에 전달했다.

삼성물산 정연주 부회장(경영69)과 앰배서더그룹 서정호(경영71) 회장은 지난 11월 15일 장충동 앰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경영대학 비전선포식 및 후원의 밤 행사에서 경영학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각각 5000만원씩 기부했다.

불교계에서도 훌륭한 불교인재양성을 위해 힘써달라며 거액의 후원금을 연이어 보냈다. 서울 봉은사는 11월 16일 동국대에 1억원을 전달했으며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과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1억원을 보시했다.

또 정릉 영각사 홍진 스님은 5000만원을 기부하며 "어릴적 가난했던 환경 탓에 진학을 포기했던 것이 아직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혀 주위의 잔잔한 감동을 남겼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제2회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및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날입니다.
이를 불가에서는 '성도재일'이라 하여
의미 있는 날로 기억하는데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리심을 내어
용맹정진하자는 의미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와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에서는
성도재일을 맞이하여 축제와 정진의
의미를 담은 행사를 개최합니다.

2013. 1. 13.(일) 오후 2시~4시
부산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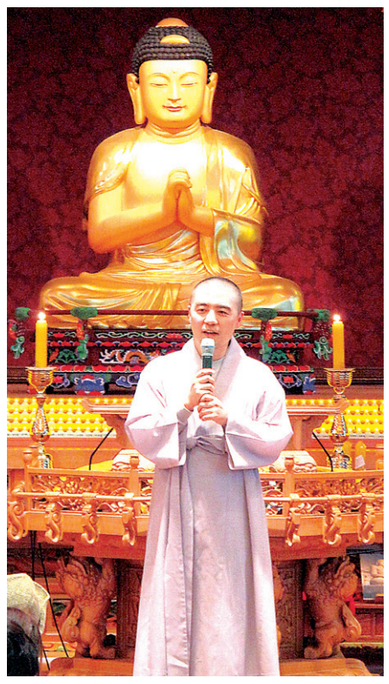
1부.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2부.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 대 상 : 친가 • 외가 내 3대에 걸쳐 3인 1조 구성
• 참가인원 : 108팀 (324명)
• 참 가 비 : 팀당 3만원 ※포교 기금에 사용
• 퀴즈내용 : 예상문제 배부 60%, 일반상식 10%, 『부처님의 생애』(조계종출판사) 30%
• 상 품 : 상금(장학금 총 700만원) 및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증명스님 휘호
• 조계종 사찰에 한함
• 접수 및 문의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전화 또는 팩스 전송
▸예상문제 및 신청서는 다음 카페 'cafe.daum.net/bsbuddhism' 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bsbuddha@daum.net 전화 051)501-7554 팩스 051)501-9333

주최·주관_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후원_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BTN 불교TV BBS 부산불교방송 및 교계 언론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이 5월 15일 총무원 로비에서 승풍실추를 참회하는 108배를 올리고 있다. 백양사 승려 도박 · 몰카 사건은 헤이해진 한국불교에 경종을 울렸다.


혜민 스님의 토크콘서트 모습. 법륜 · 정목 스님의 저서 · 강연은 현대인들의 마음에 단비를 내렸다.


올해에는 천년 고찰에 대한 방화와 훼불이 잇달아 불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사진은 화엄사 각황전 방화 직후 모습. 방염처리로 다행히 문이 그을리는 데 그쳤다.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 호국연무사가 2년여 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 2일 낙성됐다. 126억 원이 투입된 이 대작불사로 군포교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도박으로 신뢰 잃은 승가, 멘토 스님 힐링으로 만회

'다사다난(多事多難)' 이라는 단어만큼 불교계의 올 한해를 잘 표현한 말은 없다. 올해 4월 터진 백양사 승려 도박 · 몰카 사건은 불교를 넘어 사회로까지 확산됐다.

하지만, 페이스북 스타 혜민 스님과 국민 멘토 법륜 스님에게서 시작된 힐링 열풍은 아직 불교가 국민들의 정신 문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이밖에도 성철 · 경허 스님과 같은 고승들의 선양 사업이 연이어 진행됐으며, 논산 육군 훈련소 법당이 신축 개원됐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 불교계 이슈들을 정리했다.

정리= 신중일 기자

1. 도박, 몰카 그리고 자성과 쇄신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의 49재가 열린 4월 23일부터 24일 백양사 인근 호텔에서 8명의 스님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TV 영상이 지난 5월 공개됐다. 스님들의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영상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스님 중 한 명은 바로 주지직을 사퇴했고, 당시 중앙종무기관 부장급 스님들은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했다.

사태는 총무원이 6월 △승려는 수행 포교 전념 △사찰의 재정관리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 △불교정신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마련 △현대사회에 맞는 출가승단 청규 제정 등을 골자로 한 1차 쇄신안을 내놓으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후 중앙종회에서 사찰운영위원회를 의무화 하는 쇄신 입법 등을 잇달아 개정 · 제정했으며, 종단쇄신위원회가 구성돼 사부대중 공의를 통한 쇄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 스님들의 힐링, 한국을 치유하다

올 한해는 '힐링' 열풍이 한국 사회를 휩쓸었다. 이는 출판시장에서 가장 도드라졌다. 페이스북 스타 혜민 스님들의 저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140만 부가 나갔으며 국민 멘토 법륜 스님의 〈스님의 주례사〉, 정목 스님의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특히 법륜 스님은 즉문즉설 300강을 한 해에 소화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혜민 스님 역시 KBS2TV 〈승승장구〉, SBS의 파일럿 프로그램, TV광고에 잇달아 섭외돼 스타 스님으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이 같은 대중 매체와 공개 강연회를 통한 스님들의 메시지는 각박한 현대인에게 단비로 다가왔다.

3. 천년 고찰 방화 · 훼불에 몸살

천년 고찰에 대한 방화와 훼불도 연이어 발생해 불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는 10월 5일 새벽 2시 국보 제67호 각황전 뒷문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전소될 위기에 처했었다. 다행히 방염처리로 문이 그을리는 데 그쳤다. 범인은 전직 태고종 승려로 밝혀졌다. 방화는 아니지만 10월 30일 전북 정읍 내장사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대웅전이 전소되기도 했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에는 전직 목사가 훼불을 저질러 불자들의 공분을 샀다. 8월 20일 오후 5시 울산에 사는 전직 목사 성 모씨는 대구 동화사 대웅전에 들어가 〈법화경〉과 〈선문절요〉 등 불교경전을 훼손하고 대웅전 뒤 산신각에서 탱화에 낙서를 했다.

또한 그는 조사전에 들어가 청수 그릇과 향로에 소변을 봤다. 목사의 이 같은 황당한 행각은 사찰 CCTV에 촬영됐으며 동화사 측은 대구 동부경찰서에 신고해 10여 일 후 경찰에 검거됐다.

4. 성철 · 경허 스님 등 고승 선양 연이어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과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이 겹치는 올해에는 근현대 선지식들의 선양 사업이 잇달아 개최됐다.

성철 스님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근대 한국 불교 100년의 역사 속에서 성철 스님의 삶과 사상을 모색하는 학술 포럼이 개최됐으며, 탄신 100주년 기념 전시회도 열렸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도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강좌와 관련 사찰 순례를 진행 중이다.

경허 스님 선양사업은 당해 문중인 수덕사를 중심으로 ▷열반 100주년 기념다례 ▷학술세미나 ▷백고좌법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사업이 진행됐다.

이밖에도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서옹 스님의 '참사랑 운동' 을 선양하기 위한 결사법회가 11월 23일 백양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행됐다. 개화기 한국불교계 최고 지도자였던 석전 박한영 스님을 선양하는 '석전 박한영 축전' 이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동국대 일원에서 열리기도 했다.

5. '불교평론' 폐간 그리고 복간

스님들의 선양 사업이 밝은 면만 있던 것은 아니다. 〈불교평론〉52호에는 경허 열반 100주년을 맞아 윤창화 민족사 대표가 기고한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 이 실렸고, 이는 해당 문중에 반발을 샀다.

수덕사는 외압이 없었음을 밝혔지만, 결국 발행처인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불교평론〉을 통권 52호를 끝으로 폐간할 것을 결정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불교계 안팎의 지식인들은 '현대판 필화사건' 이라고 거세게 반발했고, 경허 스님 학술세미나는 발표자들의 거부로 연기되기도 했다.

〈불교평론〉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복간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만해사상실천선양회에는 폐간방침을 철회하고 2013년 봄호부터 속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6.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 신축 개원

군포교의 미래이자 젊은 불자 양성소,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가 5월 2일 신축 법당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2009년 11월 27일 불사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 2년 6개월 만의 쾌거였다.

총 공사비용 126억여 원의 대작불사인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은 극장식으로 지어졌으며 장병 3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법당이다.

호국연무사에 모셔진 부처님은 석굴암 부처님을 본 뜬 형상으로 좌우로는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모셔졌다. 본존불은 높이 3m 50cm로 좌대와 후광을 합하면 8m에 달한다. 주재료는 청동이며, 찰흙으로 형태를 빚은 다음 주물작업을 통해 조성했다.

7. 템플스테이 10주년, 미래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열고 '템플스테이 시즌2' 를 선포했다. 문화사업단이 수립한 '템플스테이 시즌 2' 핵심 가치는 여가문화, 전통문화, 사회공익 등이다.

문화사업단은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한 브랜드 확장 ▷참가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춘 세분화 된 프로그램 개발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안정화 및 사찰별 프로그램의 체계화 ▷외국인 운영 사찰을 중심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 및 전담인력 관리 ▷참가자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 · 마케팅 체계 수립 및 운영 등을 중장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8. 조계종 교구본사들 잇달아 총림 추진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제14교구본사 범어사가 조계종 중앙종회 제192차 정기회에서 총림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조계종 총림은 해인총림 해인사, 조계총림 송광사, 영축총림 통도사, 덕숭총림 수덕사, 고불총림 백양사와 더불어 8개로 늘어나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총림 지정 확대 움직임은 승가교육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특히 경학 연찬과 참법 · 염불 수행을 안거로 확대하겠다는 교육원의 정책과도 부합돼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도 전망된다.

하지만, 방장 스님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등 총림법 전반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 향후 진행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9. 해외 명상 수행자 잇달아 방한

힐링으로 인한 마음치유 열풍은 해외 명상 수행자들의 방한으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담마수카 명상센터를 이끌고 있는 위말라람시 스님을 비롯해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MBSR)의 창시자인 존 카밧진 박사, '승려와 철학자' 의 저자인 프랑스 마티외 리카르 스님 등 세계적인 명상 치유가들이 잇따라 방한했다.

내년에도 이 같은 해외 명상 수행자들의 방한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1월 초에는 아잔 브라흐만 스님이 한국을 찾아 동국대에서 열리는 세계명상힐링캠프를 지도한다. 또한 5월 경에는 틱낫한 스님의 한국 방문도 예정돼 있다.

10.SNS 포교 활성화 '눈길'

조계종 포교원은 올해 초 SNS를 이용해 불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간 4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불자파워블로거 발굴 · 지원 등을 추진해 새로운 불교트렌드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실제 포교원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육바라밀' 과 모든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성불도 놀이' , 마음일기를 쓸 수 있는 '어린이 마음거울 108'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선보였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 34㎝


육각초 7.0ƒ × 34


연화 大 9.5ƒ × 11㎝, 연화 中 9ƒ × 10㎝, 연화 小 7ƒ × 6.5㎝


밀납연화 小 7ƒ × 6.5㎝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향수림


백목향,목향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불교상담개발원, 군장병 상담 '고민해결'

9월부터 상담봉사활동
120여 장병 상담 받아





불교상담심리사 및 자비의 전화 상담원들은 격주로 파주에 위치한 육군 1사단 전진사에서 15~20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과 일대일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 후에는 병사들에게 간식거리를 제공한다.

2012년 7월 7일 오후 1시 13분께 강원 태백시 황지동 J아파트 13층에서 모 부대 소속 이모(21) 이병이 떨어져 숨졌다. 입대 후 첫 휴가를 나온 이 이병은 이날 복귀 날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족은 '군 생활에 적응을 못 해 힘들어했다' 고 말했다.

군인의 자살사고는 2004년 67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82명으로 늘었다. 지난 7년간 평균 75명 정도가 자살로 사망한 것이다.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내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3일마다 한 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자살한 군인 수는 395명으로 그중 대다수가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원인이 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경우라 한다.

이런 가운데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담교)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해 장병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 군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지난 9월부터 격주로 토요일마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한 육군 1사단 전진사(주지 수진)로 상담원 10여 명을 보내고 있다.

상담원들은 불교상담심리사 및 자비의 전화 상담원들로 구성돼 15~20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과 일대일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김성례 사무국장은 "1사단에서 한 달 사이에 자살한 군인이 3명이나 나왔다. 자살예방활동이 시급해지면서 법사인 수진 스님의 요청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상담이 진행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불교상담개발원이 사단에 공문을 보내면 사단은 부대 내 부적응 병사를 뽑아 상담원에게 상담지원을 요청한다. 또 군인들 스스로 상담이 필요할 경우도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들은 A·B 두 그룹으로 나뉘어 A 그룹이 법당에서 집단상담을 받는 동안, B 그룹은 차 안에서 일대일 상담을 받는다. 상담시간은 각 1시간으로 상담이 끝나면 이들은 다시 교대로 상담을 받는다.

보통 부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상부에 모두 보고되기 때문에 병사들은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않는다. 하지만 불교상담개발원은 군인들과의 상담내용을 비밀로 유지한다. 일대일상담을 차 안에서 진행하는 것도 보안유지를 위해서다. 때문에 군인들은 자신들의 속마음을 상담원에게 더 쉽게 털어놓을 수 있다.

상담대상은 주로 훈련소 입대 6개월 미만의 병사들로, 상사들의 참을 수 없는 괴롭힘, 대인관계, 체력저하가 주된 상담내용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상담할 때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성례 사무국장은 "상담을 받는 병사들 중에는 개신교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상담을 해주고 있다"며 "상담을 받는 군인들은 내용들이 상부에 보고될 까봐 부담을 느끼지만 일대일로 상담원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대화다운 대화를 해서 좋다,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다' 등 만족스러운 소감을 듣는다"고 말했다.

타종교에 비하면 인적, 물적으로 부족함이 있지만 불교상담개발원은 군장병 상담서비스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례 사무국장은 "내년부터 자살예방교육, 인성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물적, 인력적으로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상담원들이 힘들어하는 장병들의 숨통을 터주는데 보람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묘엄 스님 추모 1주기 법회

봉녕사 3D영상, 터치스크린 등 최첨단기기 사용한 박물관 개관

한국 비구니계의 대강백이며 최고 율사였던 故 세주 묘엄 스님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 또한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박물관이 12월 19일 개관해 대중에 공개됐다.

수원 봉녕사(주지 자연)는 12월 19일 경내에서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1주기 세주묘엄스님 추모다례'를 봉행하고 박물관 개관식을 가졌다.

봉녕사는 대적광전에서 상좌 스님과 승가대학 제자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우스님,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 염태영 수원시장, 신성해 원광대 교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다.

다례제는 헌화 의식과 불공의식으로 진행됐으며, 신성해 교수의 '유물을 통해 본 묘엄 큰스님'을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다.

신성해 교수는 "묘엄 스님은 작은 메모조차도 건네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 정갈히 보관했다. 출가 초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기록들이 정리돼 있어 스님의 면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주묘엄박물관은 묘엄 스님이 생전 소장했던 물품과 기록을 전시하는 곳으로 꾸며졌다. 특히 묘엄 스님의 출가 전을 비롯해 출가 후 수행 및 교육불사 모습과 열반을 △꽃으로 오시다 △ 꽃을 가꾸다 △ 꽃을 얻다 △꽃을 피우다 △꽃으로 돌아가다 △연꽃의 미소(영상실)로 총 6개의 테마로 구성해 3D영상과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선보여 눈길을 끈다.

물품은 묘엄 스님이 강사로 활동하던 모습, 스님이 출가할 때 성철 스님이 직접 써준 계첩인 '영산정로(靈山正路)'를 비롯해 불교의식에 사용하는 도구인 경쇠와, 염주·단주 등이 전시돼있다. 또 평소 메모를 즐기던 묘엄 스님이 직접 종이에 적은 메모들과 스님이 직접 떠서 만든 작은 돋보기 주머니 등 작은 돌솥 손잡이에 직접 실을 떠서 만든 장식을 통해 스님의 꼼꼼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박물관 개관식에 이어 오후에는 오후에는 독후감 시상식과 니르바나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추모음악제가 열렸다. 음악제는 묘엄 스님의 글에 김용호 씨가 작곡한 〈능엄경〉을 비롯해 추모의 글 낭독, 바이올린 연주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모행사는 〈금강경〉 독송기도로 마무리 됐다.

이나은 기자



세주묘엄박물관은 묘엄 스님이 생전 소장했던 물품과 기록을 3D영상과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주여성 프로그램, 최우수 단체상 수상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부 공모 선정



지혜로운여성이 진행한 '가족애착놀이 강사 양성교육'이 12월 5일 여성가족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날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원과 교육과정에 참가했던 결혼이주여성들이 상을 받고 가족애착놀이 강사 양성교육을 소개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이사장 김애주)이 진행한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무료프로그램 '가족애착놀이 강사 양성교육'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12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했다.

지혜로운여성은 12월 5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이 진행한 '2012년도 지역 다문화프로그램 사업보고회'에서 50여개의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다문화프로그램 사업의 우수사례가 된 '가족애착놀이 강사 양성 교육'과 파견강사 활동성과를 공유했다.

'가족애착놀이 강사 양성교육'은 지혜로운여성이 서울시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내 가족관계 개선 및 취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구완자 단장)과 협력해 진행한 가족애착놀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언어소통, 경제적 어려움, 육아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통합솔루션 프로젝트다. 애착놀이치료를 통해 가족간 소통을 돕고, 놀이강사로서 지역사회 기관과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여성은 "이번 평가로 '가족애착놀이 강사 양성교육' 사업이 다문화적 관점과 방향성을 견지하는 모범이 되고 창의적인 사업으로서 지역사회 내 다문화프로그램 확산 기반 마련에 그 가능성이 인정돼 최우수 사업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사찰음식문화센터(센터장 남혜정)는 12월 8~9일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20·30대 남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젊은세대를 위한 채식캠프'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의 지도로 '아욱단호박수제비' '느타리버섯채무침' '파래무전' 등 3가지 사찰음식을 만들고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 혜연 스님(국제선센터 국제부장)이 지도하는 참선수행과 108배, 아침경행 시간을 가졌다.

사찰음식문화센터는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젊은 세대들의 건강을 위한 식생활 헌장을 공유하고 10식 10선계를 받아들여 채식홍보대사로서 활동할 것을 서약했다"며 "참가자들이 홍보대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긍정적인 활동 전파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포교원, 31일 새해맞이 포교결집대법회

범어사서 봉행, 금정산 등반, 통도사·동화사 성지순례도

전국 포교·신도단체들이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여 포교원력을 새롭게 다지는 포교결집대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부산 범어사와 양산 통도사, 대구 동화사 일대에서 '포교.신도단체 새해맞이 포교결집법회'를 봉행한다.

포교결집대회는 부산 범어사 새벽 예불을 시작으로 금정산 해맞이 행사와 양산 통도사 보궁기도, 대구 동화사 성지순례 등으로 진행된다.

금정산 일대에서 진행되는 새해 해맞이 기원대법회는 '한반도와 세계평화 기원'을 주제로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법사로 직접 나설 예정이다.

이어 산악인연합회 활성화와 평화 기원을 주제로 금정산 등반이 진행된다.

포교원은 "2013년을 뜻있게 설계하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원력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이번 결집법회를 준비했다"며 "새해 포교의 새역사를 힘차게 열자"고 말했다. (02) 2011-1916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교육시간 : 초·중 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개강일시 : 2013년 3월 7일(목) (수시모집가능)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비법전수

일반적인 천도제가 아닌 신도가 보고 체험하는 확실한 영가천도 방법. 환자와 가족분이 확인 가능

1. 환자몸에 영가는 있는데 확인해줄수 없는 스님. 법사. 기공사. 치유자
2. 조상령, 객영혼, 애기령, 지박령, **영가확인 천도제**
3. 최면이 안되는 환자와의 소통과 교류(최면과는 차원이 다름)
4. **일반병, 정신병, 영가장애질환**의 구분확인**(질병의 원인파악)**
5. **난치병과 불치병뒤에 숨은 영가**를 확인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확인
6. **인체전기장을 통한 사람의 속마음 감정, 의지, 정신의 사용유형 파악으로 삶의 현재 문제점을 진단 질병, 심리, 영가확인 몸에 숨은 영가**
7. **스님들의 영가장애 천도, 불자분들의 영가장애 확인 천도**
8. 파동교감법, 영혼과의 대화법, 자율신경계통제법, 오장육부진동교감법을 통한 난치병과 불치병의 치유
9. 중풍, 치매, 당뇨, 디스크, 심장병, 화병, 빙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정신이상, 환청, 환시, 무속병, 무속인 대물림의 단절,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원인 규명이 안되는 질환
10. **영가의 수준 확인 저급영가-한과집착질병호소=무속신앙 / 중급영가-진리를 찾아 방황과 혼돈=도 닦다죽은 영가=다양한 종교, 철학, 신비함 추구 / 고급영가-전생, 깨달음에 대한 갈망 종교를 초월한 영성**
11. **죽은 영혼이 거치는 사후세계의 3단계변화의 의식과정 이해**
12. **영가들이 천도되면서 보는 빛의 다양한 차원의 세계**
13. **내가 이세상에 온 목적과 이유 영혼의 목적이해=현재의 삶의 고통 속 에서 깨우쳐야 할 부분을 이해함**
14. **수행에 진전이 없는분, 깨달음의 지름길을 가고 싶은분, 내안에 길 찾고 싶은 분**

◆10회과정 스님, 법사, 포교원, 불자님중에 영가천도와 기도법 잠재능력, 퇴마천도능력전수생모집◆

· 교육은 화.목요일 오후 2시와 주말 토.일 오후 2시에 선택
· 교육과정은 스님의 형편에 따라 조정가능, 사찰 출장지도합니다.
· 확인이 안된 영가질환은 치유안합니다. 본인 확인 과정 꼭 거침니다.
· 그동안 교육받은 스님들의 생생한 증언과 동영상을 통한 교육

인체전기 파동의학

인체전氣파동의학원 043)296-5258 / 010-9242-525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정신건강·희망심기 불교복지로 안착

2012 불교계 나눔·복지 결산

불교복지계는 그동안 양적 팽창에 집중해 질적으로는 타종교보다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최근부터 불교의 가치를 담은 정신적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는 여러 복지단체에서 상담, 코칭, 치유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노인우울, 학교폭력, 자살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세미나와 심리적해소를 위한 복지지원들도 나왔다.

이밖에 서민들을 위한 창업자금 대출이 각광을 받았으며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해였다.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희망기증은 타종교에 비하면 장기기증희망등록이 적은 편이나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올해 불교계복지기관들은 정신적 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상담, 코칭을 비롯한 우울, 자살예방 세미나 등을 열었다. 또한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가정 아동들을 위한 지원활동도 두드러졌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진행하는 자살예방지킴이교육활동 모습/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1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노인우울예방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0년 1월부터 12명의 네팔어린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해 현재는 60명의 초·중·고 학생을 후원하는 향운사 자비공덕회/ 아름다운동행은 9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박물관 앞에서 후원물품과 의류 및 아동 도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해 저소득아동을 위한 지원금을 마련했다.

자살·우울증예방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올해 3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존중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불교계 복지기관도 자살예방센터 설립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불교계에서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자살예방센터가 대표적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11년 6월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고 △전화위기상담 △인터넷 사이버상담(비공개, 이메일) △면접상담 △자살예방지킴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의식을 고취시키고, 점차적으로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6월 개소한 구미자살예방지원센터와 협약을 통해 사업을 주관, 상담과 생명존중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지난 7월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세미나'를 개최해 생명나눔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처방안을 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산하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노인우울증을 겪는 노인들이 급증하면서 11월 '노년을 살아가는 힘 우울예방과 행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노인 우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요인과 복지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코칭, 상담 프로그램 강화

올해 불교계 복지기관들은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시설 이용자들의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제들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특히 가족해체 위기극복을 주제로 하는 것들이 많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7월 '미운정 고운정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결혼한 부부 불자 및 일반인 40명을 대상으로 △부부관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불교관점에서 바라본 부모-자녀관계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또, 지난 8월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행복한 결혼준비교실'을 마련해 부부간 심리적 갈등해결과 건전한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방법 등을 주제로 특강을 마련했다.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는 소통과 감정다루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위한 집단상담으로 화다루기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다.

다문화 가정·소득층 아동 지원 활발

다문화가정과 네팔 등 불교국가 및 저소득층 아동들의 지원이 활발했다.

경불련 지난 10월 (사)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제3회 성장희망 프로그램'을 개최해 저소득층 어린이들과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방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희망직업현장체험, 홈스테이를 진행해 아동들이 각자의 꿈을 계발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아름다운동행은 9월 16일 저소득가정 초등학생들에게 책가방을 보내기 위한 기금 마련 나눔바자회를 통해 2000여 명이 참가하는 규모 있는 행사를 가지고 '책가방 보내기' 모금운동을 진행했다.

향운사 자비공덕회는 2010년 1월부터 12명의 네팔 어린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해 현재는 60명의 초·중·고 학생을 후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주 노동자 단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대표 진오 스님이 다문화 모자가정을 위해 1000㎞를 달리고 있다. 스님은 다문화 모자 가족이 쉼터로 활용할 공동주택 마련을 위한 달리기에서 한 계좌에 10만원씩 모두 108계좌를 후원받아 기금을 확보하는 중이다.

이밖에 수원지역청년불자들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 I길벗은 지난 7월 수원 파장동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길벗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해 지역 저소득층 아동에게 학습지도 및 급식지원을 하고 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이 교실'을 열어 이주민 한글, 문화강좌를 열고 있다.

기업, 공공기관과 협약체계 마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3월 소방방재청과 긴급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공동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재단은 조계종 자원봉사단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과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및 CPR(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 복지재단은 지난 7월 하나은행과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생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재단은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불교계 사회복지 법인과 단체의 효율적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사무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측은 "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체계적 시스템 도입을 기반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신뢰도 제고에 일조할 이번 협약이 불교사회복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 봤다.

생명나눔운동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 활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 주병진, 걸그룹 타히티, 남일우·김용림 부부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장기기증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공익광고 제작, 장기기증 세미나, 희망걷기대회, 난치성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 등 생명나눔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했다.

매월 환우를 선정해 모금을 전달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에는 새터민, 이주노동자 등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까지 선정 대상범위를 넓혀 치료비를 지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2800여 명, 장기기증희망자 3318명의 등록을 받았다. 올해의 목표치인 3500명, 4000명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해마다 기증희망자는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외에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을 위한 자활기금을 지원하는 '저소득 창업자 창업자금지원사업'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창업이 이어져 각광을 받았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35명에게 총 6억8900만 원이 대출됐으며 지속적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서 '첫 삽' 뜨다

국제연꽃마을, 12일 광남성 복지시설 기공식



국제연꽃마을은 12월 12일 베트남 광남성 탐키시 안푸현 현장에서 각현 스님, 광남성 응엔 덕 하이 인민위원회 위원장, 쩐 밍 카 광남성 부성장 등 500여 한국·베트남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베트남에 한국형 복지교육타운을 조성하기로 한 국제연꽃마을(회장 각현)이 '한국형 종합사회복지시설' 건립 기공식의 성대한 막을 올렸다.

국제연꽃마을은 12월 12일 베트남 광남성 탐키시 안푸현 현장에서 500여 한국·베트남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국제연꽃마을은 이곳 베트남 광남성에 앞으로 10년 동안 한글학당, 직업훈련원, 어린이 집, 요양원, 장애인 시설, 재활 치료센터, 분산형 연수원, 종합 교육센터 등 8개의 시설을 설립하게 된다.

기공식에는 광남성 응엔 덕 하이 인민위원회 위원장, 쩐 밍 카 광남성 부성장, 광남성 외교부장, 응엔 반 루어 탐키시장과 부시장, 관계 공무원 등 400여 베트남 시민들과 각현 스님 등 100여 방문단 일행이 참석했다.

각현 스님은 "2005년부터 맺은 광남성과의 인연으로 베트남의 매력에 빠졌다. 베트남인들의 저력을 발견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국제연꽃마을은 베트남과 한국의 선린우호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양국 국민들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가교(架橋)가 되고자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지구촌 시대에 베트남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하며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위해 인류사회 평화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이곳에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탐키시장은 환영사에서 "한국형 사회복지시설의 건립은 탐키시민의 복지 향상뿐 아니라 광남성과 베트남의 사회복지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적극 협조 건립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국제연꽃마을은 지난 10월 29일 미리 한국에서 제작해온 의수(義手)를 현지 베트남 주민들에게 부착해 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광남성 거주 베트남 유학생 한국초청 선발 협약식을 거행하고, 베트남 대표 4명, 한국 대표 5명 등 9명이 함께하는 시삽식으로 기공식과 축하공연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나은 기자



제로투세븐, 조계종 복지재단에 2억원 물품 전달

매일유업 계열사인 영유아용품브랜드 제로투세븐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에 2억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제로투세븐은 12월 21일 전법회관 6층에서 물품전달식을 가졌다.

김인순 매일유업 명예회장과 제로투세븐 임직원들은 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영유아들에게 전달할 선물박스를 포장했다.

이번에 지원받은 물품은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소외계층 가정에 보내진다.

이나은 기자



2013

2013(불기 2557)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 입 생 모 집 안 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년	불교입문, 부처님생애 대승불교, 불전개설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10 ~ 21:3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20만원 (1년 10만원씩)
	2학년		천태불교학 중국불교, 법화경 Ⅰ·Ⅱ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선사상, 유식사상천수경, 정토사상 화엄경, 포교방법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 18:00 ~ 19:20 · 2교시 : 19:30 ~ 20:50 · 3교시 : 21:00 ~ 22:20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25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일 산 화성사 : 031.905.2912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군 포 상락사 : 031.392.0924	• 접수 : 2012년 11월 19일(월) ~ 2013년 2월 15일(금) 18시까지 • 면접 : 2013년 2월 16일(토) 오후 16시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 관문사에서 하차)

서 울 金 剛 佛 敎 大 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www.wdu.ac.kr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행복아티스트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건강가정사, 다문화사회복지사, 이야기치료사 자격증취득가능
• 전국의 사회복지관련 기관과의 실습체계구축을 통한 실습 지원
• 지역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오프라인교육

원광디지털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전문가의 꿈을 채우세요

"그늘지고 소외된 곳, 그들의 삶에 세상의 온기와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

나누는 사랑과 실천하는 삶속에 희망이 존재하듯 당신안에도 수많은 가능성과 미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품은 꿈을 펼치어 더 큰 세상의 리더가 되십시오. 사회복지 전문가의 첫 발, 특성화된 사회복지학과, 원광디지털대학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특성화교육의 Only 원!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기간	1차모집 : 2012년 12월 1일(토) ~ 2012년 12월 28일(금) 2차모집 : 2013년 1월 10일(목) ~ 2013년 2월 13일(수)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 한방건강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한국문화학부 :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실용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중독재활복지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서비스경영학과

입학상담 1588-2854 ※ 자세한 사항은 원광디지털대학교 입학홈페이지(enter.wdu.ac.kr)를 참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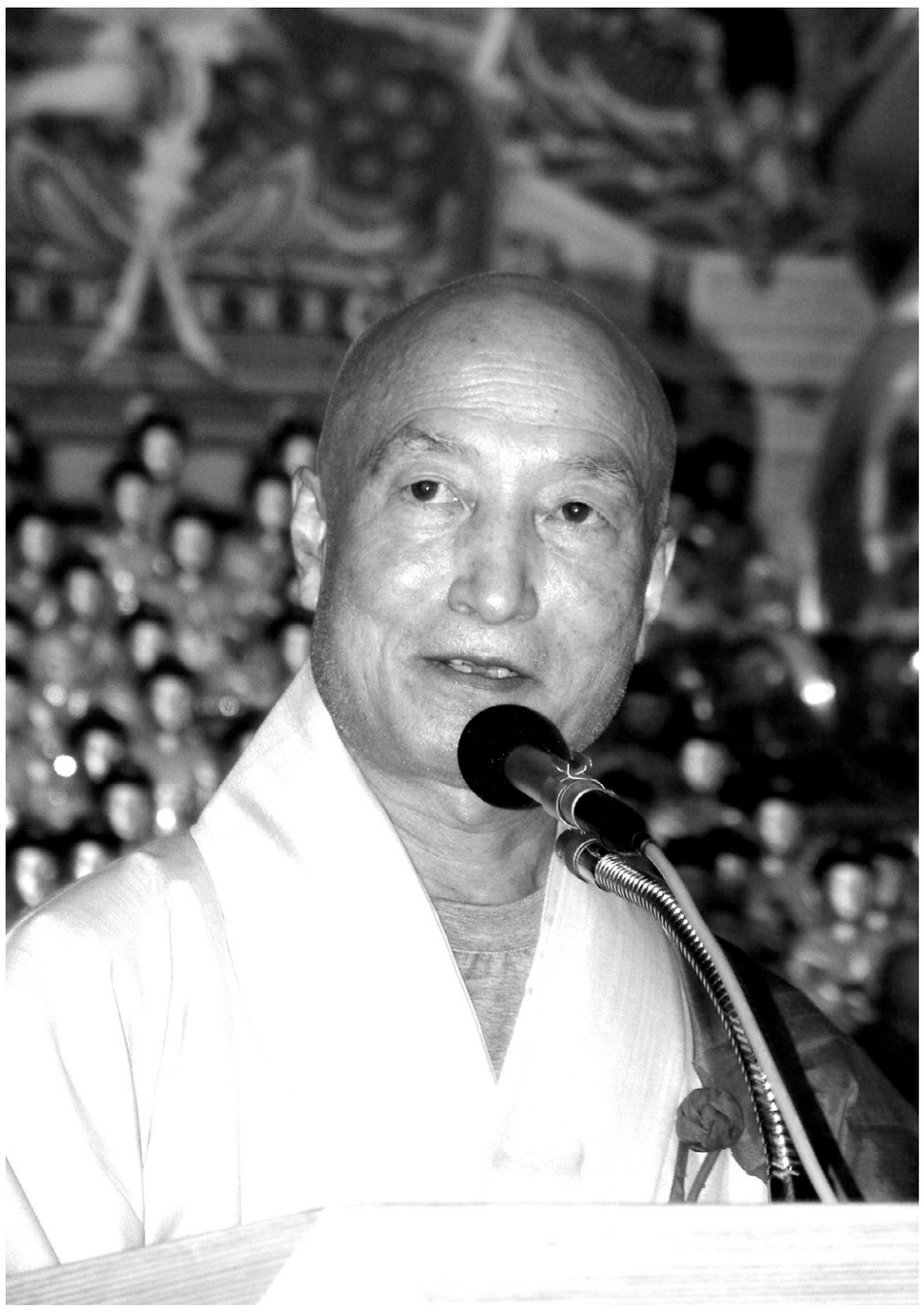
오늘의 일은 과거의 내가 만든 업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화장세계품' 강의

설정 스님(수덕사 방장)

오늘 일어나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과거의 내가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중생들은 그것을 누가 만든 줄도 모르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상황과 상대를 원망한다. 진리의 세계로 빠져들라고 말하는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12월 17일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를 통해 윤회의 고리를 끊고 자유의 길로 들어설 것을 당부했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법문이라는 것이 하기도 어렵지만 듣기도 어렵습니다. 대충 들을 때도 자기 수준에 와 닿아야 되는데 이해도 잘 안 되고 재미도 없죠. 그래도 부처님 경전은 많은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대불사를 한다든가 사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공덕이 되고 인연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한문으로 된 경전을 읽고 법문을 하면 불가를 성취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지 말고 그냥 경건하게 임해야 합니다.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성스러워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그게 도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철학하고 종교(혹은 신앙)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신앙은 심성으로 시작하고, 철학은 두뇌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과 종교가 같다고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은 실천도 안 해보고 점검도 안 해보고 그냥 지식을 얘기해요.

또 과학하고도 다릅니다. 과학은 의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전혀 출발점이 다릅니다. 철학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모색하면 끝입니다. 심성을 찾아가는 공부는 사색하고 분별하면 그때부터 깨집니다. 그럼 제가 오늘 법문할 내용은 '대방광불화엄경 16권-화장세계품' 입니다. 오늘 하루만에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내용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장엄한 세계는 향물이 넘쳐 흐릅니다. 프랑스제 향수를 몇 백만원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부처님 세계는 향수로 넘쳐흘러요. 이 화장세계는 원하는 것도 안 원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것은 상상의 세계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천대천세계에 있는데 끝이 없는 세계가 있어요. 부처님은 혜안으로 보신 겁니다. 부처님뿐만 아니고 역대 조사들 눈 밝은 이들은 혜안으로 꿰뚫어 봤어요. 여러분들도 공부해서 성취하면 다 꿰뚫어볼 수 있어요.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도 혜안이 열리면 상대가 속이 컴컴한지 밝은지를 다 알아요. 공부해서 식만 맑아지면 다 알게 되는 거죠. 식만 맑아져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완전히 공부해서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상황이 되면 알고 싶지 않아도 다 알게 돼요.

분명히 부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뭐 좋다고 수많은 세상 나오면서 안 좋은 습만 익혔네. 좋지 않은 습관 익혀가지고 그것이 자기 살림살이라고 끌어안고 사니 중생을 못 면하는 겁니다. 윤회의 중생 고통의 중생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육근을 잘 써야 돼요.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지 말고 말이에요. 중생은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에너지를 씁니다. 불교가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가장 걸림이 없고 자유스럽고 행복할까요? 그걸 부처님은 열반이라고 하셨고 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황홀 그 자체에요. 즐거움 그 자체죠. 그 원융의 세계고 걸림이 없는 세계고 대자유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물아가 둘이 아닌 세계에요. 대우주와 나와 혼연일체가 된 세계 그건 본래 자리에 돌아간 세계입니다.

신앙은 심성으로 시작하고
철학 · 과학은 지식으로 출발

"청정 무애한 길 놓아두고
왜 윤회의 길로 가려 합니까"
미루지 말고 일념 정진할 것

우리가 안심이라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아무 걱정 근심 괴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생명의 귀처라 그래요. 그런 자리에 갔을 때 내 목숨은 안전한 거예요.

육근육진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하고 부림을 당하고 오염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 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가려면 정진해야 돼요. 이미 부처님께서는 가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 놨어요. 부처님 법은 지식이 있건 없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잘못 들면 안 돼요. 박사가 10개 되어도 생각이 잘못 들면 사기치고 나쁜 짓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할 건 의식이에요. 좋은 의식으로 변해야 돼요.

부처님 법을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자리이타고 그 자리이타를 다시 얘기한다면 자기완성이요 자비의 실천이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살건 사회에서 살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그 마음이 자비스러워야 돼요.

지금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의식이라 해서 오염된 마음이에요. 그동안 사용을 잘못해서 청정한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할 때에는 두뇌로 하지 말아야해요. 경건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해요.

여러분들이 사물을 볼 때 육안으로 보는 것을 관이라 그럽니다. 그건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잣대로 자기 개념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 나갈 때는 잔머리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해요. 참선할 때도 절할 때도 조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근을 잘 단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쓸 때 없는데 에너지를 다 뺏기고 있어요. 눈 코 입에 다 뺏겨서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쏟아져 나갔어요. 그러니 염불하다가도 연속극으로 마음이 다 가요. 그놈의 업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어느 시기에 자기 청정한 그 마음자리를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일념으로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주력을 하든 일념으로 해야 돼요. 삼매에 들어야 해요. 나를 좌지우지 했던 그 생각이 다 떨어지고 염불 주력하는 한 생각, 화두 드는 한 생각으로 일념이 돼서 하루 이틀 사흘 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몰입해서 한번도 집중을 안 하고 노력도 안 해요. 다음 시간에 하지, 내일 혹은 모레 더 나아가서는 아들 대학교 졸업하면 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일이 한이 없어요. 해도해도 끝이 없어요. 세상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일을 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나요?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지나서 어느새 노인이 돼 버리는 겁니다. 공부도 힘 있을 때 해야지 정신 왔다갔다하는데 잘 안돼요. 집중이 안 돼요. 깨진 수레는 갈 수가 없어요. 주저앉아 못 가는 거죠. 노인이 돼 기력이 세하면 닦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입들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놈의 입이 다 망쳐버립니다. '입을 저 담장 넘어 허공에다 매달아라' 는 말이 있습니다. 오죽 입을 잘못 놀렸으면 그런 소리가 나왔을까요. 그놈의 입으로 에너지를 다 쏟아 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은 인과로 돌아갑니다. 그 누구도 안 줍니다. 다 본인 것입니다. 이 결과는 여러분들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못나 빠진 사람들은 뭐가 안 되면 주변 탓합니다. 분노 느끼고 시비하고 그러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 좋은 생각들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부와 자비심의 관계가 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큰 관계가 있어요. 자비심을 마음속에 담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됩니다. 큰 문제는 자기에 대한 오만심 분노심 이런 거 아닙니까? 자비를 갖게 되면 분노는 가라앉게 돼 있어요. 부처님이 자비 자비하시는 그 말씀은 남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자기 공부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꼭 자비심이 필요합니다.

설사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나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보내보세요. 그럼 그 사람도 변합니다. 나의 좋은 에너지가 상대에게 보이지 않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저놈 고약스럽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도 나를 외면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우주 공간의 에너지는 같습니다. 인드라망처럼 모든 것이 일체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그 연결된 에너지 그런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혜안이 열렸어야 보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마음의 자비심을 갖고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데에 에너지를 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모아 보세요. 안 좋은 쪽으로 에너지를 모으지 말아요. 왜 윤회의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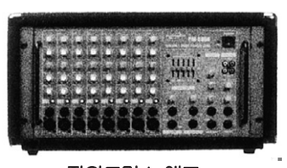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자유롭고 청정하고 무애하고 그런 길로 가야죠. 무엇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길로 가서 골병 들고 깨지고 울고불고 슬퍼하고 그럽니까? 그게 중생의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설정 스님은 … 1955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강원과 범어사 선방 등에서 수행했으며 30대에는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원예학과를 졸업했다. 수덕사 주지와 제11대 중앙종회 의장 등을 거쳐 현재 수덕사 방장을 역임하고 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 무선 마이크
◆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일반 마이크
V-620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2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12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12월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불교문화 불교 넘어 전통문화로 재평가

2012 학술·문화재 결산

2012년은 불교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또 다양한 학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근대불교사에 한 획을 그은 고승들의 열반 및 탄신 100주기를 맞은 행사 등 다양한 선양사업이 진행된 한해이기도 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불교 학술연구와 문화재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결산해본다.

큰스님 탄신 · 열반 100주년 선양 활발

올해는 유독 탄신 · 열반 100주년을 맞은 선승(禪僧)들이 많았다. 한국 근 · 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경허(鏡虛 · 1849~1912) 스님과 성철(性徹 · 1912~1993) 스님, 서옹(西翁 · 1912~2003) 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이밖에도 조선불교 초대교정을 지낸 석전 박한영 스님(石顚 朴漢永 · 1870~1948), 다선일미 사상을 창시한 경봉 스님, 독립운동과 대각사상운동을 펼친 용성 스님, 태고종 대강백 운기 스님에 대한 선양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조계종의 초석을 다진 성철 스님의 경우 생전 설립한 백련불교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추모사업이 이뤄졌다.

2011년 '퇴옹성철과 현대한국불교'를 주제로 네 차례 학술포럼을 연 데 이어 올해는 성철 스님 사상의 본질인 돈오돈수와 한국 불교의 수행법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11월 29일에는 동국대에서 세계적인 남방불교 연구자 피터 스킬링 등이 참여하는 '불교의 명상-고대 인도에서 현대 아시아까지' 주제 국제학술포럼을 열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3월과 6월에는 성철 스님 일대기 특별전이 열려 유품과 유필, 사진 등이 일반에 공개됐다. 1월부터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인재개발원 주관으로 성철 스님의 행적지를 탐방하는 순례단이 운영되기도 했다. 또 친딸 불필 스님이 쓴 〈영원에서 영원으로〉를 비롯한 각종 책도 발간됐다.

조계종 5대 종정과 전남 장성 백양사 방장을 지낸 서옹 스님의 경우 백양사의 여러 문제로 인해 올해 말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선양사업이 전개됐다.

서옹 스님은 생전 수행가풍을 새로이 하는 '참사람 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백양사는 11월 23일 10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결사법회를 열고 '참사람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운동본부 내에는 연구소가 설립됐으며 2013년 국제학술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11월 15~31일에는 기념 전시회 '참사람의 향기'도 개최됐다.

이와 함께 개화기 한국불교계 최고 지도자였던 , 법명 정호) 스님을 선양하는 '석전 박한영 축전'도 10월 8일 종립대학인 동국대에서 성대히 열렸다.

석전 스님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정을 역임한 당대 최고의 불교계 지도자로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을 지내는 등 근대불교사에 기여한 바가 컸음에도 불교계에서의 선양사업은 전무했다.

축전은 동국대 중강당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석전 박한영의 시문학 강연회 · 시문학 연구 학술대회 등으로 개최됐다. 또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간 동국대 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유품 전시전이 개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다선일미 사상으로 선 문화를



2012년 한해는 다사다난했지만 불교발전의 학계 노력이 결집된 한해였다. 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열반 100주기를 맞은 경허 스님(영정), 경허 스님에 대한 학문적 비판으로 폐간사태를 겪은 〈불교평론〉, 내장사 대웅전 화재와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장면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사찰방재예측시스템 도입
불교문화재 국민관심 고조

널리 펼치고 조계종 선풍을 크게 진작한 경봉 스님의 탄생 120주년 및 열반 30주년 행사도 진행됐다.

경봉문도회는 4월과 7월 극락선차 삼소다회를 개최하는 한편 추모다례재와 학술대회, 유품전시회를 개최했다. 특히 경봉 스님의 생전 주석처인 극락암 삼소굴에서 펼쳐진 삼소다회에서는 고려시대 전통차 공양 문화가 선보여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근대 한국 선(禪)을 중흥한 이로 평가받는 경허 스님의 열반 100주년은 경허 스님의 학술적 재평가로 인해 올 한해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3월 조계사에서 선서화전이 개최된 이후 6월 수덕사와 천장암 등에서는 국제 선수행 법회와 대규모 다례재가 진행됐다.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던 여러 〈경허집〉을 비교, 통합해 정본 〈경허집〉을 준비 중에 있다.

경허 연구 비판 필화사건…〈불교평론〉 폐간과 속간

고승들에 대한 선양 사업은 고승 행적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허 스님의 행적을 비판한 논문이 필화사건으로 번진 것. 경허 스님의 '주색(酒色) 문제'를 학문적 차원에서 다룬 계간지 〈불교평론〉가 폐간된 사태는 건전한 학문연구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10월 진행 예정이던 학술세미나에는 당초 발제자들 일부가 발표를 거부하기도 하기도 했다. 특히 임승택 경북대 교수를 주축으로 교수, 강사 등 220여명은 '불교평론 폐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교평론 폐간 사태는 단순히 일개 잡지의 발행 중단이라는 문제에 국한된 성질이 아니라 정당한 불교적 문제제기를 산중의 종파적 차원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만해사상실천선양회 12월 10일 폐간방침을 최종 철회하고 2013년 봄호부터 속간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고승들의 문중 사찰 영향력이 연구분야에 영향을 미친 최초 사례란 점에서 향후 건전한 비판문화가 저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외에 수많은 학술세미나가 진행됐지만 학문성격에 맞지 않는 학자들의 발표와 저조한 연구실적 등이 학계에서 개선점으로 지적받았다.

잇따른 화재…사찰 방재 예측 시스템 본격 도입

10월 31일 발생한 정읍 내장사 대웅전 전소사건은 불교계에 목조건물에 대한 방재대책을 촉구하는 사건이었다. 이번 화재로 근대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했던 대웅전은 물론 편액, 석가여래좌상, 영산회상도, 나한도, 신중도가 모두 불타버렸다. 화재 분석한 결과 전기난로 주변에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보인 구례 화엄사 각황전은 방염처리로 화재위기에서 벗어난 경우였다. 10월 5일 방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지만 자연소진됐다.

화재로 인한 문화재 및 사찰 피해의 심각성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201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8~2010년까지 발생한 사찰화재는 총 629건으로 한해 평균 48.4건에 이르렀으며 한해 평균 피해액만도 7억 7375만원에 달했다. 이 중 화재 원인은 전기 40.4%(254건)로 단연 많았으며, 방화도 5.4%(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이 2012년부터 10년간 938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전통사찰 방재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조계종이 전통사찰에 시설하고 있는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은 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감시하고 검출해 화재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또 화재와 문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요소를 CCTV 영상분석, 재난센서감지 등을 활용해 미리 예측하는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방재예측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사찰화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불교문화 대한 국민관심 고조

올해는 신라시대 연등축제를 근원으로 매년 부처님오신날이면 서울의 도심을 형형색색 연등 물결로 물들여 왔던 '연등회 연등축제'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선정된 해이기도 하다. 불교계에서는 2010년 영산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연등회 지정은 불교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수륙재와 팔관회 등의 무형문화재 등재를 추진할 것을 밝혔다. 문화재청도 3월 30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교문화재를 전통문화차원에서 보존, 활용할 방침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유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는 60% 이상이지만 무형문화재의 경우 불교문화재는 영산재와 연등회뿐인 상황이다. 불교미술과 불교공예 등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을 비롯한 지원은 향후 지속되야 할 불교계 과제이기도 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본서 한국 고대 불상 2점 발견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백제시대 청동반가사유상과 통일신라 말기 철불이 일본에서 발견됐다.

불교미술사 전공인 엄기표 단국대 교수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지원하는 '일본 속의 고대 한 · 일 불교문화 조사연구'를 위해 김상현 동국대 교수 · 고정룡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교수, 연민수 동북아역사재단 박사 등과 함께 오사카 · 교토 · 나라 등지의 사찰과 박물관을 답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밝혔다.

백제 반가사유상은 일본 천태종 총본산인 사가(滋賀)현의 히에이산(比叡山) 엔랴큐사(延曆寺)를 조사하던 도중, 이곳 국보전에서 발견됐다. 백제 반가사유상은 일본에서는 몇 번에 걸쳐 출품 전시가 이뤄졌지만 한국에 공식적으로 조사된 이후 소개된 것은 처음이다.

반가사유상은 옷주름을 띠줄 무늬로 반복해서 넣은 원통형 대좌 위에 오른발을 왼발 무릎 위에 올리고 앉아있는 보살의 모습을 표현했다.

전체 높이 12.8cm, 대좌는 높이 4.6cm, 너비 4.5~4.9cm의 규모다.

엄기표 교수는 "조각 기법이 정교하지는 못하지만 그 형식으로 보아 백제가 만들어 일본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또한 나라현 가쓰라기시(葛城市) 소재 다이마사(當麻寺) 부속 박물관인 보물관에서 결가부좌를 한 철불 한 점도 발견했다.

불상은 오른쪽 발목 위로 두 가닥의 두툼한 옷주름을 걸쳤으며, 무릎에는 굵은 음각선으로 된 옷주름이 있다. 전체 높이 81cm, 머리 높이 30.5cm 규모로 표면에 녹이 많고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백제반가사유상

엄 교수는 "이런 옷주름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초기까지 만들어진 불상에서 일반적으로 채용한 기법"이라며 "미소를 머금은 원만한 상호의 조각 기법과 안정된 자세 등으로 보아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만한 상호의 조각 기법, 비례가 어울리고 안정된 자세, 옷주름이 신체와 잘 어울리도록 한 점, 무릎 앞쪽으로 형성된 부채살 모양의 법의 자락, 나발의 정연한 표현 등의 양식으로 미뤄볼 때 신라말에서 고려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단은 "반가사유상의 경우 많지 않은 백제반가사유상이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며 "철불 또한 일본에 전래된 철불 양식이란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국가고객만족도 사립대학부문 4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사립대 부문에서 동국대가 4위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3계단 상승한 것으로 14개 사립대 중 유일하게 4년간 점수와 순위가 상승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동국대는 전체고객만족도가 70점으로 전년도 68점에 비해 2점 올랐다. 이는 2012년 산업평균인 67점보다도 높은 수치다.

전년대비 향상율도 2.9%로, 2011년 4.6%에 이어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대학부문에 처음 참가한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종합순위가 12위→8위→7위→4위로 매년 꾸준히 오른 유일한 대학이 됐다.

동국대는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문제점 개선으로 학교 발전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와사상의학硏, '불교와 사상의학' 세미나

불교와사상의학연구회(회장 박성식)는 12월 29일 오후 2시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불교학술원 227호 강의실에서 불교와 사상의학 2차 융합세미나를 개최한다. '치유를 위한 불교와 사상의학의 방법론적 접근'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서연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의 '연기적 관점에서 본 사상의학' △이기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의 '치유 · 치병 개념에 있어서 불교와 한의학의 비교'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의 '불교의 기질과 사상의학의 체질에 따른 심리적 요소의 차이' △배효상 동국대 일산병원 사상체질과 교수의 '명상이 사상체질에 따라 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불안, 우울, 분노를 중심으로'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02)6713-5139

노덕현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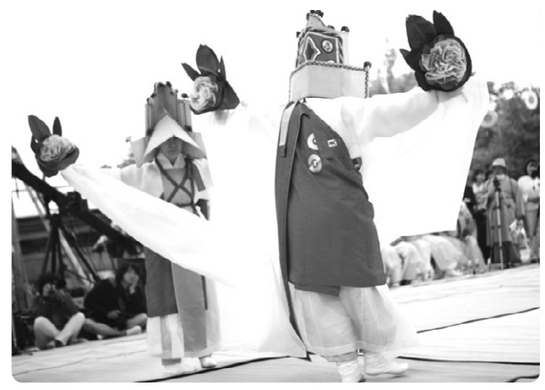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3년도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나.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다. 강 주 : 석법운 스님, 월봉 스님

2.수업일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무원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디지털TV시대 개막, 불교계 과제는?

12월 31일 디지털 방송시대, 불교문화 컨텐츠 디지털화 시급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를 기해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와 함께 기존 방식보다 6배 이상 선명한 디지털 방송시대가 개막된다.

1956년 선보인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인 대한방송(HLKZ-TV)이 56년 만에 종료되면서 한국사회뿐 아니라 한국 불교계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 TV 시청의 문제가 대두된다. 기존 유료방송(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라면 계속해 기존 방식을 시청할 수 있지만, 시골에 위치한 사찰과 난시청지역의 불자들 중 기존 아날로그 TV와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라면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을 해야 한다. 확인 방법은 간단하다. TV를 시청하는 중 화면 하단에 '보고 계신 아날로그 TV는 정상적인 시청이 어렵습니다'라는 자막이 나온다면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해야 한다.

시청에 따른 문제는 정부와 기존 방송사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와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보관해야 하는 불교계와 사찰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대두된다.

한국 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는 제대로 된 디지털 영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불교문화재를 알리는 여러 방송에서 소외될 소지가 높다.

문화재 디지털 영상 확보 시급
아날로그 영상물 무용지물
TV방송서 소외될 소지 높아
HD급 영상장비로 교환해야

또한 큰 사찰별로 큰 스님의 법문과 행사 영상을 담아 보관하고 있는 사찰에서는 더 이상 아날로그 방송에 맞는 영상물이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전남지역 교구본사 관계자는 "현재 본사 뿐 아니라 말사에서도 디지털방송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으며, 사찰에서 보관중인 영상테이프가 대부분 아날로그 방송에 맞추어 제작된 것이어서 향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불교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사찰의 경우 사찰의 사계절 영상과 생활상을 담은 비디오와 사진 등을 제작해 방문객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그중 불교 입문자에게 불교의 예절과 기초과정을 담은 비디오 등을 판매했으나, 디지털TV 시대에는 소비자의 고해상도 화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본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 영상물들의 4계절 모습을 다시 촬영해 보관하는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 종단의 총무원은 아직까지 디지털 방송에 대한 불교계의 대비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불교관련 영상물은 방송뿐 아니라 사찰순례나 신도교육에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사찰순례의 경우 순례하는 해당 사찰의 영상물을 구입하여 버스로 이동하는 도중 방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큰 스님의 경우 기존 영상물을 촬영하여 사후 일대기로 방송에서 방영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방송은 단순한 고해상도의 화면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불교계에서는 포교 · 신행 · 역사 · 문화재 보존 · 인물영상 등 다방면에 걸쳐서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기본 해결책도 있다. 광주지역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문화재 보전과 홍보를 위한 영상이라면 먼저 전문업체와 상의하여 연간계약을 통해 사찰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사찰에서 사용하는 일반 영상물인 경우 장비의 대부분을 HD급 영상장비로 교환하기를 주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원사, 섬마을 주민들에 짜장면 보시

위도 주민에게 300그릇

'사랑 실은 스님 짜장'으로 유명한 남원 선원사 운천 스님이 서해 도서지역인 위도를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짜장면을 무료 제공했다.


선원사 운천 스님은 선원사 신도들과 위도를 방문해 짜장면을 300그릇을 보시했다.

운천 스님과 선원사 신도,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지부장 원광) 회원들은 12월 20일 위도를 방문해 위도중 · 고등학교 강당에서 주민, 경로당회원, 학생 등 300여명에게 정성을 가득 담은 짜장면을 대접했다.

본섬인 위도를 비롯해 5개 섬 11개마을 주민 13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위도에는 중국집이 없어 짜장면은 별미로 통한다.

김재일 위도 면장은 "겨울철이면 섬 주민들은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육지왕래도 쉽지 않다" 며 "주민들을 위해 자장면 봉사를 해준 운천 스님과 불자들이 너무 반갑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위도면 한 주민은 "중화요리점이 없는 위도에 짜장면만큼 맛있는 음식은 없다"며 "특히 운천 주지스님의 짜장면은 담백하다. 종종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매월 5~6회 정도 전국의 복지관이나 시설에 자장면 봉사를 하는 운천 스님은 지난 12일에도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집을 떠나 경북 구미 해평 청소년수련원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한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지팥죽 나눔행사 곳곳에서 열려

동지를 맞아 세시풍속 전승을 위한 '동지 팥죽 나눔 행사'가 열렸다.

완주 송광사(회주 도영)는 12월 21일 전주 모래네 시장 첨단연합의원 주차장에서 1천명분의 동지 팥죽을 준비해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웃과 함께 하는 지혜로운 세시풍속을 이어갔다.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원감 보연)도 동지법회를 봉행한 후 경로식당과 서원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동지 팥죽을 함께 나누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일일이 집집마다 동지팥죽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동지죽을 함께 나누면서 이웃들과 정담을 나누는 골목잔치가 열렸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광주도량 선덕사(주지 원묵)는 12월 21일 동짓날을 맞아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동지죽 나눔 골목잔치'를 열었다.

행사는 선덕사 주변에 있는 두암타운 사거리 주변상가, 두암타운 노인당, 두암그린파크 노인당 등에서 총 500그릇의 동지죽을 나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소년원생 위한 자비멘토 뜨다

청암사, 소년원생에 장학금 전달

한때 문제아로 낙인돼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없었던 아이들을 위한 '자비의 멘토'가 떴다.


청암사 주지 지암 스님이 고룡정보산업학교 소년원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고룡정보산업학교(교장 박재봉, 광주소년원)는 12월 20일 교내 대강당에서 지암 스님(여수 청암사 주지), 법천 스님, 보원 스님을 비롯해 소년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도 30여 명과 박재봉 교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사패 및 장학금 전달과 학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청암사 신도 김도연 불자가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강지원, 주해군, 김애자, 박미영, 신명구 불자와 광주전남지역 포교사로 활동중인 안수길 포교사가 감사장을 수상했다.

청암사 신도들은 이날 소년원생 12명에게 장학금과 햄버거 300개를 지원했다.

한때 '광주소년원'이라 불렸던 고룡정보산업학교는 전국 10개 청소년 교화시설 중 직업교육 특화학교로, 현재 17세이상 19세 미만의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자동차 정비와 자동화용접, 건축환경설비, 중장비운전 등 4개 부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청암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소년원생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소년보호위원으로써 멘토 역할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원생들에게 장학금과 간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여수 엑스포 기간에는 원생 20명과 직원, 자원봉사자 등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점심공양, 여수엑스포 아쿠아리움 관람, 철도레일바이크 탑승하는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동안거 포살법회 및 교구종회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12월 14일 대적광전에서 포살법회를 열고 100여 대중스님에 〈범망경보살계포살본〉 등을 설했다.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원행)가 임진년 동안거 포살법회 및 교구종회를 봉행했다.

원행 스님은 12월 14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포살법사로 나서 100여 대중스님들에게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바탕으로 〈불설범망경〉 보살심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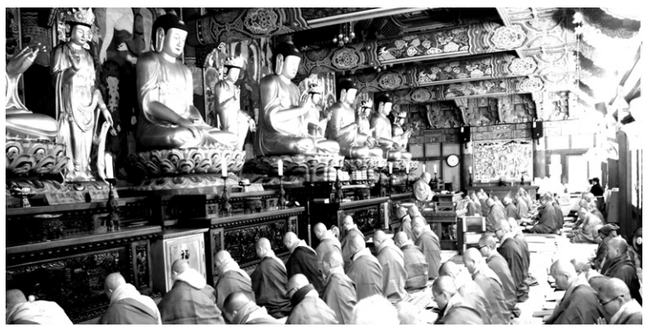
원행 스님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열심히 정진해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지혜와 자비로 뭇 중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수행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포살법회에 동참한 대중스님들은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원력을 다짐했다.

이어 설법전에서 열린 17교구 3차회의에서는 불기 2557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의 심의 의결과 종무지도 감사 보고, 전북포교 전진대회 개최의 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새해 주요사업계획은 주파수 할당문제로 개국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불교방송의 개국준비와 뇌묵 처영대사 기념과 건립, 사찰 일요법회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1기 회향

생명평화 정신으로 제반 청소년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고, 청소년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바로 서기위한 '청소년 생명평화 실천단'이 8개월 동안의 1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청소년 생명평화 실천단' 졸업식은 12월 16일 전주교대 마음연구홀에서 열렸으며 송광사 도영스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전북불교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영 스님은 "천천히 함께, 생명평화 정신의 실천행에 동참한 청소년 생명평화 실천단의 활동이 학생들의 제반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생명평화 실천단'은 지난 4월 7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8개월간 각종 봉사활동과 연등축제참가, 평화통일마라톤대회, 생명평화 모심기, 성폭력예방교육, 중독예방교육, 진로탐색 등을 진행하고 지난 활동을 정리한 수기집 '생명수'를 발간했다.


청소년 생명평화 실천단 졸업식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 포교사 전진대회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은 12월 15일 광주 수자타 연회장에서 100여 명의 포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불기 2556년 포교사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전진대회에는 지난 한 해 동안 포교현장 곳곳에서 활동해온 포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 해의 성과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식전공연에 이어 법요식과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이날 법요식에는 지난 1년간의 활동에 우수 포교사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총재상에는 김경영 포교사, 중앙단장상에는 주미애, 서승례 포교사가 수상했으며, 지역단장상에는 이진섭, 주금성, 민경성, 안수길, 지근명, 문용주, 김정심 포교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정기공
특강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 연 락 처 : 010-3463-7806
✲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제2회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학 인 모 집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승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염불승으로서 한국불교 전통범패단을
"한국불교 홍익범패단"으로 이름 짓고 창단하였습니다.
뜻 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먼저 청강해 보시고 접수는
뒤에 하셔도 됩니다. 성적이 우수한 분은 한국불교
홍익범패단에 단원으로서 인정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강 의 내 용

1. 기초 :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향수해례, 사성례,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사물.
2. 중급 : 주 둘째시간 ~셋째시간 : 천도재의식, 시련, 대령,관욕,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청(짓소리), 39위, 복청게, 고혼청, 헌좌게, 진령게, 언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 칠 귀명정례긴소리, (짧은소리) 화청
3. 상급 : 매주 넷째시간 : 범패의식-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화의재바라, 도량게, 다게, 법고춤, 호적
4. 고급 : 2년이상 된 자로서 시다림, 다비, 점안식, 방생, 생전예수재, 종사이운, 불상이운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 10만원 (1년 선불 10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본원에 비치)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홍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055)332-1675
■ 강 주 : 민지효 010-4466-3575

“마음건강 산업에 앞장설 터”

통도사 마인드케어 과정 개설

통도사에 국가등록민간자격증 과정인 마인드케어지도사 과정이 시범운영된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는 현대인들의 맞춤형 심신치유와 치유전문가 양성을 위한 ‘영축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이하 영축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마음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11월에 설립한 영축평생교육원은 2013년 1월 17일에 개강 예정인 ‘마인드케어지도사 1기 과정’을 시작으로 기존의 포교사 과정과 차별화한 평생교육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다.

영축평생교육원 학장 명본 스님은 “이 프로그램은 현대인들의 각종 스트레스와 갈등을 ‘맞춤형 마음건강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국민건강과 국가행복지수 상승을 주도할 마인드케어 전문지도사를 양성해 ‘불교적인 마음산업’ 선도를 목표로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영축평생교육원은 마음건강 전문연구소인 싸띠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음건강, 몸건강, 명상 분야의 20여 명의 전문강사들을 지원 받는다.

통도사는 영축평생교육원이 기존의 템

체험 위주의 마음 치유 과정
마인드케어지도사 과정 개설
교계 최초 민간자격증 발급
불교 명상 대중화에 기여

플스테이나 불교교양대학과는 그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본 스님은 “휴식과 체험 위주의 템플스테이나 교리 공부에 집중된 교양대학과는 달리 마음치유의 실질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치유방법을 익히는 과정이다. 또한 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일정 시험을 통해 국가등록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교육프로그램은 △불교계 최초 국가등록민간자격증인 마인드케어지도사과정 △스님들을 위한 마인드케어지도사특별과정 △신도리더십스쿨 △까야싸띠 명상체조교실 △대학생 Self-leadership캠프 △청소년겨울캠프 △힐링캠프 △시민기자스쿨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마인드케어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향후 기업체, 학교, 군부대 등에서 마인드케어 전문강사로 진출할 수 있다. 명본 스님은 “미래 핵심산업의 한 분야인 마인드테크놀러지(Mind-Technology)산업의 조기진출로 불교명상의 사회화, 산업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인드케어지도사 1기 과정은 1월 17일 개강 예정이다. (055)382-7182

박경수 부산지사장

창원시불교聯 시민불교문화상 시상식

대상에 정일근 경남대 교수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지태스님)는 12월 17일 창원 사보이호텔에서 ‘제22회 향기로운 시민불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시민불교문화상 문학상은 정일근 경남대 기초교양교육부 교수, 예술상은 이근택 창원대 음악과 명예교수, 행원상은 내서종합사회복지관장인 진홍스님), 특별상은 팔용산 돌탑 축조자인 이삼용 씨가 각각 선정됐다.

문학상의 정일근 교수는 지난 198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이후 시집 ‘바다가 보이는 교실’, ‘사과야 미안하다’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다. 또한 지훈문학상 · 이육사문학상 등을 수상하는 등 문단과 학계에서 작가적 기량과 작품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500만 원과 상패가 각각 수여됐다.

시민불교문화상은 지역문화 발전을 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91년부터 창원불교연합회에서 제정하고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동지 맞아 이웃사랑 ‘훈훈’

원오사 – 이대호 선수 장학금 전달
진여원 – 팥죽 3천인분 제공
보성선원 – 자비의 팥죽나누기



동지를 맞아 지역에서 훈훈한 자비나눔 행사가 이어져 눈길을 끈다. 사진 왼쪽은 이대호 선수의 부산 원오사 장학금 전달, 사진 왼쪽은 대구 보성선원의 팥죽전달식.

동지를 맞아 지역에서 훈훈한 자비나눔 행사가 이어져 눈길을 끈다. 부산 반송 원오사(주지 정관)에서는 국민타자 이대호(오릭스 바팔로스)선수가 12월 21일 동지 법회를 맞아 저소득 가정 후원을 위한 장학금 2,62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통도사 극락암 명정 스님,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대호 선수는 매년 동지 법회 때마다 원오사를 찾아 보시 행을 실천하고 있다.

부산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12월 21일 구포시장 쌈지공원에서 자비의 팥죽나눔 행사를 가졌다. 시장 상인들과 지역민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팥죽 3천인분을 제공했다. 진여원은 지난 18년 동안 동지 때마다 팥죽나눔 행사를 가져왔다.

대구의 (재)선학원 보성선원에서는 12월 20일 송현 1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70가구에 ‘자비의 팥죽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팥죽 전달식에는 이태훈 달서구 부구청장, 김주범 · 김철희 달서구의회 의원과 송현 1동 통장 및 봉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22일 동짓날에는 500여 명의 지역민들에 팥죽을 나눠주었다. 올해로 3회째로 맞는 보성선원의 팥죽행사는 매년 100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박경수 부산지사장

성탄절, 종교간 화합 ‘눈길’

동화사,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방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구지역 불교와 천주교가 종교간 화합을 다졌다.

조계종 제 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은 12월 18일 천주교 대구 대교구청을 방문해 조환길 대주교에게 ‘축 성탄’이란 메시지가 적힌 화환을 전달하며 예수님 탄생을 축하했다.

이 날에는 동화사 사회국장 효신스님과 류병선 9교구 신도회장, 천주교 대구대교구 이용길 총대리신부와 김종해 평신도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크리스마스와 동지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덕담을 주고 받기도 했다.

동화사는 동짓날인 21일에는 사찰에서 만든 팥죽을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전달할 것을 약속한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조환길 대주교가 동화사를 방문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등 동화사와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매년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상호 방문을 통해 화합을 다지고 있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대구 대교구청 방문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작은 봉사에도 ‘삼보공경’을

예로부터 사찰의 불사는 과학, 기술, 예술을 총망라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당해 시대에 살았던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불사를 맡김으로써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찰은 세계 어느 나라의 사찰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작품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불사를 담당한 이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예술성에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불사의 주관자인 스님들과 불사를 후원했던 신도들의 지극한 기도와 정성 또한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불사는 교단을 구성하는 불법승 삼보를 모시기 위한 것이므로 불자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다. 따라서 불사를 담당하는 기술자나 예술가들은 돌 하나 놓고 절 한번 하고, 기둥 하나 세우고 절 한번 하고, 글자 한 자 새기고 절 한번 하는 지극정성의 자세와 불사이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몰입의 경지를 기본적인 덕목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불사를 주관하는 스님들은 불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마무리되기까지 온 정성으로 불사의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원력과 정재를 모으기 위해 온몸을 바치는 신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불사를 후원하는 신도들은 불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아낌없이 내 것을 내놓는 건강한 무주상보시의 정신과 삼보에 대한 끝없는 공경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지난날에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는 끊이지 않고 이런저런 불사가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 비해서 불사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불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도 불사를 진행하는 전문가들과 스님들 그리고 신도들은 지극한 정성과 신심을 가지고 불사에 매달린다. 그러나 전문성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불사를 한다든지 정성과 신심이 결여된 불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규모가 큰 불사에는 지극정성을 다 기울여야 하고 작은 불사는 대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절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법승 삼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므로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작은 것까지도 온 정성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불사의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덧붙여 불교교단에서 운영하는 불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품격과 의미가 제대로 담긴 불사를 진행하는 것 또한 시급한 일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전라북도 ㅂ사찰에 시공해놓은 석단을 보면 배수를 위해서 설치한 검정색 플라스틱 주름관이 노출된 것을 볼 수 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과거 사찰에서 볼 수 있었던 석루조라는 아름다운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을 것이다.

WORLD BUDDHISM LEADER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과 연방승가회의
지원 아래 고승 및 원로 수행 일정을 종교성내
불교대학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께서
역시 그 분이라면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 발기 협의회 / 1차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종사, 대종사 급만 동참 가능)

법하께서도 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모든 스님 누구나 동참 자격이 있습니다.

심사 후 우선 세계불교와 한국 불교 승가 정화 차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출가 의식을 초발심의
행자로 돌아가 1주일간 종단불문, 법납, 속납 까지 불문하여 남방불교의 연방승가회 스님들의
지도하에 종교성의 불교대학에 입소하여 단기수행을 완료한 스님 중에
우선 108명의 고승 및 원로 큰스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보십시오.
한 평생 부처님의 은덕으로 수행해 온 큰스님들께서 앞장서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신다면 한국 불교사에 새로운 역사와 기운이 샘솟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만이 추대위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성 장관과 불교 수호 지도자협회 우킨쉐이의 박수와 격려속에 구족계 및 품수식도 함께 봉행합니다.
108분의 고승 및 중진 스님들께서 500인 추대위원을 심사 위촉하게 됩니다.

구족계 자격자
1. 구족계 자격 : 한국의 모든 종단소속 비구 스님.
2. 법납이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출가승에 한함.
3. 30명 한정 선착순 접수

종사 대종사 품수식
1. 법납 25년 이상 : 종사
2. 법납 30년 이상 : 대종사
* 1차 서류 심사후 면접 2차 : 심의의원회 최종심사

최종 추대되신 큰스님 명단을 불교계 신문에 사진과 함께 공고합니다. (추대 의식 봉행일 추후 발표)

신청기간 : 2012년 12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출발일시 : 2013년 2월 28일 (음력 정월 19일) 6박 7일간 소승불교 체험 수련 정진

법납, 속납 일체 평등하고 대우 및 예우 일체 없음

구족계 수계자 전원 종교성 불교대학에 입소 구족계 봉행
남방불교 전통의 불명수여. 수행 결사 (위빠사나, 발우공양 예불의식) 체험
일 시 : 2013년 2월 28일 ~ 3월 7일까지 (1주일간) 봉행 행사 이후 한국에서 재 추대행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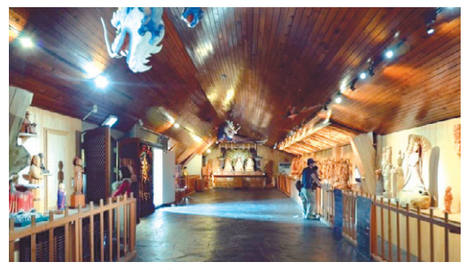
미얀마 연방 승가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팩스 02)733-5671



나옹선사의 다비를 했던 곳으로 전해지는 신륵사 3층석탑과 강월정. 강월정에 서면 남한강 지류가 한눈에 보인다.



눈 덮인 여강길 3코스의 길 모습



독특한 불교 조각물을 만날 수 있는 목아박물관



〈여주 여강길 3코스〉

강 따라 걷다보니 나옹 선사 떠나간 길

⑲ 강을 따라 걷는 사찰길 여주 여강길 3코스

김소월의 동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에서 금모래 반짝이는 강변이 여강이라는 설이 있을만큼 여강의 모래는 곱고 눈부시다.

여강은 강원도 오대산에서 발원해 충청북도와 경기도를 거쳐 서울로 연결되는 남한강 지류로 여주를 지나는 38.9㎞의 강줄기를 말한다. 한반도의 중앙을 흐르는 남한강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충청·강원은 물론 영남지방에서 거둬들인 세곡을 실어 나르고, 한양으로 가는 길손들이 지나가는 수운의 핵심이었다.

이 물길을 따라 총 3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 '여강길'은 2009년 국토해양부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로 지정하는 등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여강길은 겹치거나 되돌아오는 구간이 없어 발길 닿는 곳마다 새로운 풍경과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긴 거리를 하루만에 도보로 소화하기는 무리. 대부분이 여주 신륵사부터 시작하는 3코스 '바위늪구비길'(22.2km/ 약 7시간 소요)과 그 맞은편 강변을 따라 걷는 1코스 '옛나루터길'(15.4km/ 약 6시간 소요)을 찾는다.

조선 수운의 중심지 여강

'바위늪구비길'은 여강길 3개 코스 중 가장 백미로 꼽힌다. 하지만 현재는 4대강 공사로 인해 강변을 따라 걷는 길의 절반 가량이 막혀있는 상태다.

2코스와 이어지는 흥원창에서 신륵사까지 여정을 시작했다. 도보로 강변길을 걸을 수 없는 경우 국도로 진행하면 된다.

흥원창은 고려시대 13개 조창 중 하나로 조운체제의 정비로 거둬들인 세곡을 임시로 저장하고 운반하던 곳이다.

조선시대 당시 흥원창에는 쌀 200석을 적재할 수 있는 배가 21척이나 배치됐다고 한다. 충주의 가흥창과 더불어 남한강의 중요한 창으로 주로 평창이나 정선, 횡성, 원주와 같은 강원도 영서내륙지방의 전세(田稅)가 모이던 곳이었다.

흥원창 앞에는 자산이 보인다. 눈으로 덮여 하얀 설산이 된 산이 마치 쌀을 수없이 많이 쌓은 쌀무더기로 보인다.

남한강의 백미로 꼽히는 자산(紫山)이다. 신선이 사는 곳은 자운동천(紫雲洞天)으로 불리는데 경치가 좋아 신성시해 자산이라 부르게 됐다.

자산과 흥원창 인근에는 사적 제466호인 법천사지(法泉寺址)가 있다. 법천사는 통일신라시대 창건돼 고려시대에 융성한 사찰이다. 임진왜란 때 소실됐으나 중창되지 못했다. 권람, 한명회, 강효문, 서거정 등이 모여 시를 읊었다고 전한다.

공사로 끊긴 길, 우회로 찾은 불교박물관

여강길에는 나루터가 열두 군데가 있다. 거기에 경관 또한 수려해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정자가 십여 동이나 남아있다. 고려시대부터 이규보·이색을 비롯한 많은 시인묵객들이 머물렀고, 당대 내로라하는 문사 중 이곳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추운 겨울눈이 많이 쌓였지만 그 수려한 풍광을 느낄 수 있었다.

자산을 바라보며 강을 따라 강천면으로 조금만 더 걸으면 닷둔리 해돋이산길이 나온다. 이 길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걸었던 길이다.

길을 걷다보니 어느덧 강천마을회관에 도착했다. 여기서 신륵사 앞의 이호대교까지의 강변길은 막혀 우회할 수 밖에 없다.

눈이 많이 내려 걷기조차 힘들지만 주변 경치가 다소 위로가 된다. 결국 자동차로 이동했다. 본 구간대로 걸으면 이무기가 산다는 전설을 간직한 '바위늪구비'와 2001년 천연염색가 이민정씨가 30년간 수집한 여성생활과 관련된 유물 3000여점을 모아 설립한 '여성생활사박물관', 농촌체험마을인 '오감도토리마을'을 차례로 만날 수 있다.

조금 더 이동하니 동양 최초의 불교박물관인 '목아불교박물관'이 지친 길손을 맞이한다. 목아박물관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으로 지정된 목아 박찬수 관장이 운영하는 사립박물관으로 문화와 예술로서의 불교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야외전시장 곳곳에서는 현대적인 표현요소들을 접목시킨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특히 부드러운 곡선으로 장식한 보살상들은 불교를 넘어 어느 조각예술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신력으로 용마를 제압한 신륵사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여주의 대표적 사찰인 신륵사(神勒寺)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강가에 위치한 사찰로, 여주란 지명이 신륵사와 마암으로 유래된 것으로 치수와 관련이 있는 유명한 곳이다. 여주를 대표하는 사찰 신륵사는 뜰 앞으로 여강 물길이 흘러가고 있어 여러 물굽이 중에서도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힌다.

신륵사 주변은 현재 진입로 개설 공사가 한창으로 산사의 고요함보다는 다소 분주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경내로 들어오면 흐르는 강물과 함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다.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신륵사에는 수많은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고려 우왕때 여주 마암(馬岩)에 용마가 나타났다. 그 용마는 사나워 사람들이 붙잡을 수 없었는데 이때 인당대사가 신력으로 고삐를 잡으니 말이 순해졌다고 한다. 그 신력과 제압의 뜻을 합쳐 신륵사라고 했다.

고려 때는 나옹 선사가 병이 깊었음에도 왕명을 받아 밀양 땅으로 가던 중 열반했다는 곳이기도 하며 나옹 선사가 보인 갖가지 이적 설화도 전해진다. 그로 인해 신륵사는 대찰로 면모를 갖추게 되고 조선시대에는 세종의 능이 여주로 이장되며 왕실의 원찰로 크게 중창된다.

유서 깊은 천년고찰답게 신륵사엔 나라의 보물이 여러 점 있다. 그중 독특한 재질의 탑이 단연 돋보인다. 여느 절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강암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우아하게 다듬은 조선 전기의 다층석탑(보물 제225호), 그리고 벽돌을 쌓아 세운 고려시대 전탑인 다층전탑(보물 제226호)이 그것이다.

또 절 앞의 풍광 좋은 강변엔 아담한 삼층석탑과 강월헌(江月軒)이라는 정자가 있다. 이 삼층석탑은 자연석 바위를 기단으로 삼았는데, 이곳에서 나옹선사의 다비를 했던 곳이라고 한다. 삼층석탑도 정자도 모두 지정된 보물은 아니지만, 여강과 어우러진 소박한 풍경은 그 자체가 '보물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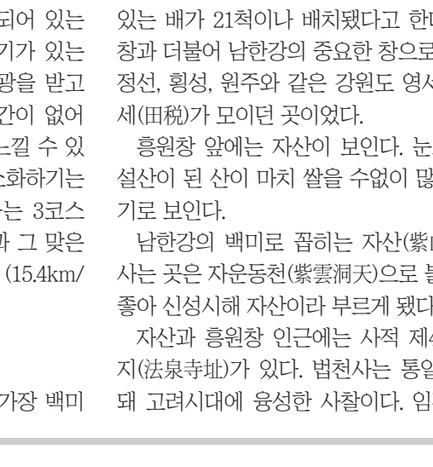
길을 걷고 풍경을 살피다 보니 어느새 여주 강가에는 어둠이 몰려왔다. 차를 돌려 서울로 돌아가는 길, 호사로웠던 눈과 함께 어느새 차분해져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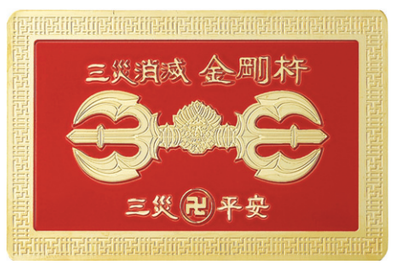
남성용 여성용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3년 #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생태사회와 불교

생태적 대안사회의 모색, 공동체운동(2)

불교공동체, 新불교 사회운동 실험처





실상사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현장체험 모습〈사진 왼쪽〉과 정토회의 빈그릇 운동 선포식〈사진 오른쪽〉. 실상사의 마을공동체와 정토회는 대표적 현대 불교공동체로 대안적 삶을 구현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처님의 초기 승가공동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뒤 함께 수행한 다섯비구와 승가공동체인 상가(Sangha)를 만드셨다. 이후에 야사와 그 친구들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어 60명이 되었다. 이후 불교공동체는 계속 커져서 2만여명으로 늘어났다. 초기경전에는 '비구여' 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후 대승경전에는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라는 용어를 쓰실 걸로 보아 대승불교 공동체는 비구와 비구니, 우바새, 우비아를 포함한 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당시 기성의 가치관을 뒤엎는 것이었다. 수행자들은 집을 나와 함께 집단을 구성해서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계급을 뛰어넘는 가르침이 계급사회속에서 함께 할수 없기 때문이다. 더우기 깨달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세계와의 구분된 삶으로서 승가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생계로 돌아가 그들을 구제해야한다. 오늘날의 한국불교는 외부와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 선방에서는 안거(安居)라는 형태와 만행(萬行)이라는 방식으로 '닫힘과 열림' 의 주기를 만들어놓고 있다. 승가공동체는 오랜 역사속에 많이 갈라져 나라마다 다른 문화와 전통으로 이어져왔지만, 계율을 통해 엄격한 내적 질서를 갖고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가장 역사적인 공동체이다.

한국 승가공동체와 마을공동체 – 향도

한국에 불교가 공인되면서 사찰들이 건립되었고 자연스럽게 많은 승가공동체들이 출연했다. 더우기 도선국사의 비보사찰(裨補寺刹)사상으로 인해 산세나 지세, 수세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보사찰이 많이 건립되었다. 당시 사찰은 고유의 사회정신과 문화를 포용했던 사람들의 공동체 공간이었고, 마을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각종 지방민들과 더불어 불교행사를 하면서 승가공동체뿐아니라 마을공동체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다.

신라시대 이후 신앙공동체인 향도(香徒)는 불교신앙을 목적으로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결사조직이다. 이곳은 길흉경조, 재난구조 등의 역할도 하면서 이후 점차 마을공동체로 변화된 대표적인 불교공동체이다. 신라후기와 고려전기의 향도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였고, 불상, 종, 석탑, 사찰등을 조성하거나 법회, 보시, 매향 등, 대규모적인 노동력과 경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불교신앙활동이 주된 활동이었다고 한다. 이 향도조직은 점차 지역촌과 군현단위로 확산되어 지역민들의 협동조직체로의 기능하게 되었다. 조선초기에는 이것은 불교신앙 활동보다는 마을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소농민들의 상호부조를 위해 향촌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다른 의미의 향도(鄕徒)로 정착되어갔다.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불교공동체 – 승도

신라 및 고려시대에 국사나 왕사를 비롯한 고승들은 왕실과 백성의 존경을 받았다. 또한 사찰의 고승들도 지역 공동체의 정신적 수장역할을 해왔다. 그러면서 당시 사찰의 세력이 커지면서 사찰의 일을 담당하는 승도(僧徒)들도 증가했다. 조선 중기 동국여지승람에는 당시에 1,600여개의 사찰에 다 국가 공인 승려가 5,500여명이라고 했다. 한편 세조 13년 호패발급시에는 승려수가 30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종11년 정극인의 상소에는 10만 5~6명에 이른다고 돼있다. 아무튼 1만여 사찰과 10만여 승려는 오늘날 사찰수의 4배에 승려수는 10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인구 600만의 조선시대에 이들이 모두 출가 수행승일까? 그렇지 않다. 이들 10만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승이 아니고, 국가에 공인되지 않은 승려, 재가화상, 수원승도 등, 비승 비속인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지역의 민정기능을 수행하기도 했고,

초기불교부터 조선시대까지
민중과 함께 공동체 삶 살아
90년대 시작한 불교공동체
현대적 대안운동 자리매김

국가가 위급할때 예비군기능을 하기도 했다. 이들을 승도라고 했다. 승도는 결국 사찰을 중심으로 한 사부대중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숭유억불 정책으로 모두 강제 환속의 대상이 되었다.

불교와 사회개혁을 위한 공동체 – 결사

결사란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인들의 결합된 단체를 말한다. 역사 속에 불교가 권력과 유착하여 중생을 외면한채 제기능을 하지 못할때 마다 항상 그 가르침 본연으로 돌아가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서원하는 결사체들이 생겼다. 최초의 결사는 중국 동진의 혜원 스님의 백련결사이다. 이후 1만일을 기약하여 염불하며 극락왕생을 비는 염불만일결사가 있었고, 지리산 오대사에서 수정사(水精社)라는 결사도 있었으며, 잘 알려지기로는 고려시대 궁중불교, 관권불교, 기복불교, 형식불교화된 불교를 혁파하기 위해 몇몇 뜻있는 승려들이 모여 혁신운동을 시작한 것이 바로 보조국사 지눌의 '정혜결사' 이다. 뿐만 아니라 천태종 백련결사가 있었고, 무신집권기에 유생들이 사찰을 근거지로 한 향도결사체를 만들기도 했다.

오늘날 한국 불교공동체 어디까지 왔나

근대 한국불교는 이승만의 정화유시 이후로 비구 대처 싸움과 치열한 종권싸움으로 얼룩져 왔다. 불교는 서구인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되는 사상이지만, 조직으로서 한국불교는 그러한 미래를 담보하기에는 너무도 암담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새로운 개혁의 노력이 있어왔다. 대체로 종단개혁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일련의 불교운동이 그 중심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세력이 다시 혁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기도 했다. 그래서 90년들어 새로운 시도들이 전개되었다. 이들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소수이며 가장자리, 변방의 일점(一點)으로 시작된다. 불교의 공동체운동은 자체로 불교개혁운동이면서 동시에 사회개혁이자 미래문명적 대안의 통합적시도였다. 따라서 승가중심만의 결사가 아니라 사부대중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이다.

우선 첫 번째 사례는 실상사 사부대중공동체를 들을 수 있다. 실상사 사부대중공동체는 1999년 9월11일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출범으로 시작되었다. 초기 이 공동체를 기초한 도법스님은 이전에 90년초 실상사를 근본도량으로 한 '선우도량' 이라는 불교결사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모색을 해왔다. 그러던 것이 지리산 댐건설 반대 운동을 지역주민들과 전국의 사회단체들과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다. 한국전쟁 당시 좌우대립으로 희생된 영령을 위로하는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천도재를 치르면서 위축되고 방황을 거듭하는 한국불교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연기적 세계관에 근거한 사부대중공동체와 지역마을공동체와 도농교류를 위한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창립하게 되었다.

실상사의 사부대중공동체에서 출가부문은 현재 실상사 사중 소임 스님, 화엄학림, 화림원, 약수암, 서진암, 백장암 스님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재가부분에서의 현재 실상사의 재가대중과, 실상사 귀농학교, 사단법인 한생명사무국, 산내여성농업인센터,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 지리산영농조합법인등이며, 이들 재가부분은 신행생활과 다양한 활동·관리·운영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이들간에 종교적으로 출가와 재가의 위계질서는 있지만 관리 운영면에서는 평등한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산내면의 지역공동체와 결합하여 커다란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곳에서는 실상사의 사찰불사도 마을주민들과 숙의하며 만들어나가고 하고 있고, 백제의 폐사지에 귀정사라는 절을 짓고. 생명평화의 장 '쉼' 이라는 2박3일 명상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상사의 지역공동체는 승도를 모델로한 대안적인 승가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불교를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생태적 마을공동체로 대표적인 곳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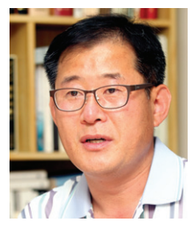
실상사, 정토회 대표적 불교 공동체

두 번째는 수행공동체 '정토회' 이다. 정토회는 불교혁신과 사회운동을 해왔던 법륜 스님과 젊은 활동가들이 모여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 을 기치로 88년 3월에 만들어진 서원공동체이다. 정토법당과 한국불교사회교육원(이후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을 거쳐 에코붓다로 개칭됨)과 한국불교사회연구소의 활동을 시작으로 당시 불교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다 1990년 전후로 3년여에 걸친 내부 모색기간을 거쳐 '일과 수행의 통일',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수행을 함께하는 수행공동체' 로 거듭나면서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1만일결사를 시작하게 된다.

정토회는 무아, 무소유, 무아집을 통해 '맑은 마음' (인간 자신 수행), '좋은 벗' (인간과 인간사이의 평화), '깨끗한 땅'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1만일 결사는 매 1천일 (약 3년)마다 모든 활동을 원점에서 전면 재 검토하고, 중요성원들은 직위가 해소되고 보직을 순환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1천일을 다시 1백일씩 나누어 전국의 모든 결사자들이 모인다. 그래서 매일해 온 '수행, 보시, 봉사' 의 수행과 동시에 주어진 사회실천 과제의 결과를 점검하고, 다시 이후 1백일간의 수행과 실천 지침을 갖고 돌아간다.

정토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구성원은 현재 서울에 45여명, 문경에 60여명등 약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께 기도와 발우공양. 법회와 사회활동을 해나가면서 초기의 승가공동체의 삶을 살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토회는 서울과 부산을 비롯하여 전국에 13곳의 법당과 해외에 17곳에 법회가 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약 200여개 곳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10~20여명이 모여 진행되는 수행공동체 법회모임이다. 이들 정토행자들은 수행을 해야하면서도 동시에 사회활동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토회의 기구는 매주 '깨달음의 장' 과 '나눔의 장' 이 진행되는 문경정토수련원이 있고, 사회단체로서는 환경기구인 '에코붓다(Eco-Buddha)', 평화와 난민지원 기구인 '좋은 벗들(Good Friends)', 국제개발지원기구인 '제이티에스 (Join Together Society)' 가 있으며, 별도의 기구로 '평화재단' 을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두 불교공동체는 모두 새로운 불교의 모색이자 나아가 사회적 실험이고, 내부에 생태적 특성을 중요한 지침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토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드러나지 않은 밀행 모두 공덕으로 쌓여

⑩ 밀행제일(密行第一) 라후라 존자

〈하〉밀행



〈거조암 영산전 라후라 나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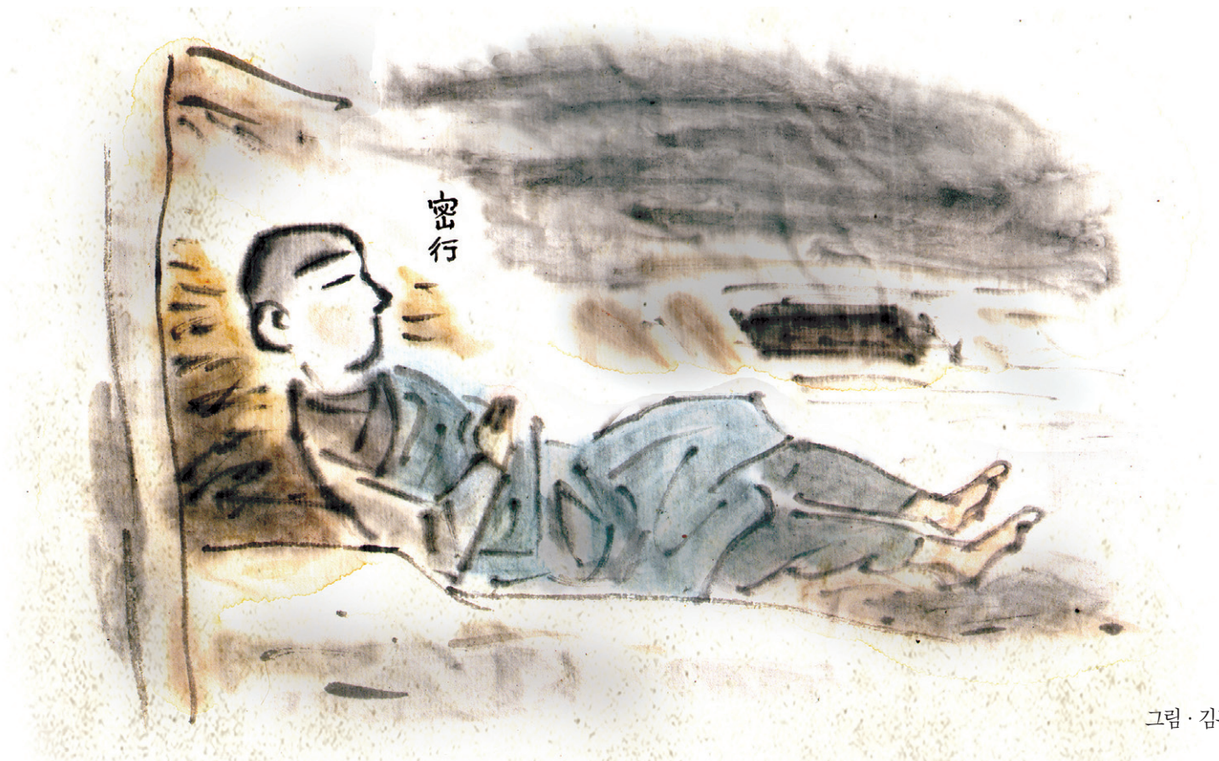


그림 · 김흥인

비구에게 방 내주고 해우소서 잠자
비구계 받고 해탈 6단계 깨달아
유마에게 진정한 출가 의미 배워
"출가공덕은 이익 · 공덕 없는 것"

부처님의 아들, 라후라. '부처님의 아들'에서 비롯된 그의 어려움은 많았을 것이다. 더구나 라후라의 출가가 성숙한 자아에서 비롯된 출가는 아니었음으로 사문으로서의 삶이 어린 라후라에게는 고(苦)였을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의 아들'이 결국 라후라가 '라후라'를 극복할 수 있게 했고 라후라를 만들어 갔다.

밀행

기원정사. 라후라가 아직 계를 받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많은 비구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자 기원정사를 찾아와 방이 부족하게 됐다. 승가의 질서에 의해 라후라는 자신의 방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방을 잃은 라후라는 이리저리 잠자리를 찾다가 부처님이 쓰시는 해우소에서 겨우 잠을 잤다. 이튿날, 사실을 알게 된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어제 라후라는 해우소에서 눈을 붙였다. 이렇게 한다면 출가했지만 비구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잠잘 곳이 없게 된다. 계율을 고쳐 행자들도 비구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하되 이들을 넘기기 전에 따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 부처님의 말씀은 자신의 아들이 해우소에서 잔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다. 제자들이 계율을 지키는 것에만 집착해 새로 불문에 귀의한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에 대한 경책이었다. 화합하며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건만 서로 돕지 않고 계율에 얽매여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날 해우소에서 잠을 잔 라후라를 두고 대중이 입을 모았다.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라후라가 아버지인 부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잠자리를 찾은 데다, 해우소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중은 놀랐던 것이다. 일국의 왕자였고 더구나 부처님의 아들인 라후라였기에 대중의 그를 향한 시선은 특별했다. 라후라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 무겁고 어려운 시선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한 실천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를 훗날 밀행제일이라 부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의 눈을 얻다

라후라는 스무 살이 되면서 비구계를 받게 된다. 비구가 된지는 얼마 안 됐지만 라후라의 공부는 이미 깊어 있었다. 부처님은 라후라의 공부가 깊어감을 아시고 라후라를 불러 설법하셨다.

"라후라여,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 "괴로움입니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라후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형상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눈의 의식은, 눈의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난 느낌이든, 인식이든, 의식이든 그것들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눈에 대한 법을 설하고 이어서 귀와 코, 혀, 몸 그리고 보배에 대한 질문을 통해 무상, 고, 무아를 명료하게 설하셨다. 그리고 라후라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보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오(厭惡)하고 형색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눈의 알음알이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눈의 감각접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눈의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느낌이든, 인식이든, 심리현상들이든, 알음알이든, 그것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또한 귀, 코, 혀, 몸, 보배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므로 탐욕이 빛바랜다. 탐욕이 빛바래므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 즉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알게 된다." 위의 설법에서 나타나는 '육내외처로 해체해서 보기', '무상 · 고 · 무아', '염오',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의 정형구는 니까야의 도처에서 강조되고 있는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여섯 단계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설법을 들은 라후라 존자는 번뇌에서 해탈했다. 그리고 '생긴 것은 무엇이든 모두 멸하기 마련이다.' 라는 티끌 없고 때 없는 법의 눈을 얻었다.

유마의 출가 공덕에 관한 설법

라후라의 공부는 깊을 대로 깊어 있었다. 부처님께서 라후라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에게 다녀오거라. 유마가 아프다." 라후라 역시 유마를 비켜가지 못했다. "저는 그분의 문병을 갈 수 없습니다. 기억나는 옛일로 인해 그분에게 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한참 라후라의 공부가 깊어가고 있을 때였던 것 같다. 라후라가 부처님께 고한다. "예전에 비야리 성의 여러 장자 아들들이 저의 처소에 와서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라후라여, 그대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전륜왕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닦으니 그 출가란 것은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법대로 출가한 공덕의 이익을 설했습니다. 그 때 유마가 다가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라후라여, 그렇게 출가한 공덕의 이익을 말하지 마시십시오. 왜냐하면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는 것이 출가입니다. 조작이 있는 법이란 이익도 있고, 공덕도 있음을 이야기하지만, 출가란 것은 무위(無爲)의 법입니다. 무위의 법 가운데는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습니다. 라후라여, 대저 출가란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며 또한 중간도 없습니다. 62종의 견해를 떠났으며 열반에 머무나니 지혜로운 이가 받아들일 바이며 성인(聖人)들이 행할 바입니다. 나의 것이 없으며 받아들이는 것도 없으며 흔들리고 어지러움도 없어 안으로는 기쁨을 머금고 다른 이의 뜻을 보호합니다. 선정을 따라서 온갖 허물을 떠남이니 만약 이와 같으면 이것이 참다운 출가입니다.' 고 설했습니다. 이에 장자들의 아들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출가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유마 거사에게 묻자 유마 거사는 '그대들이 곧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면 그것이 곧 출가며, 이것이 곧 계를 구족한 것이니라.' 고 했고, 이에 장자들의 아들들이 모두 출가에 대한 마음을 내었습니다. 해서 저는 그분을 뵙기가 부끄럽습니다." 고 했다.

라후라가 출가의 공덕이 무엇이라고 설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추측컨대 세속의 부귀공명보다는 출가하여 수행하는 공덕이 몇 천배 수승하다고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유마 거사가 말하는 진정한 출가의 공덕은 아무런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출가란 유위법(有爲法)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위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위법을 배우기 위해서 출가했다면 목적도 방법도 모두가 무위라는 뜻이다. 무위법에는 이익도 공덕도 논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후라는 이와 같은 진정한 출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라후라는 유마 거사를 통해 출가의 진정한 공덕에 대해 깨닫게 된다. 라후라에게 쉽지 않은 삶을 던져준 '출가.' 라후라가 유마를 좀 더 일찍 만났다면 라후라의 고(苦)의 시간은 좀 더 짧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답칠보화(踏七寶華) 수기

어느 때인가 아난과 라후라 존자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도 수기를 해 주셨으면"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한 끝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아가 발아래 엎드려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에게도 수기를 주시옵소서." 부처님은 아난에게 먼저 수기를 하시고, 이어 라후라에게 수기를 하셨다. "라후라여, 그대는 미래세에 '답칠보화' 라는 이름의 존경받는 여래가 될 것이며, 지혜와 덕행을 갖춘 선서시며, 세간을 잘 아시는 위없는 분이시며, 사람들을 잘 이끄시는 분이시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불타시며 세존이 될 것이다. 즉 그대는 10계를 구성하는 미세한 먼지 수처럼 많은 바른 깨달음을 얻은 존경받는 여래들을 공경, 공양하며 찬탄해서 지금 나의 장자인 것처럼 그 부처님들의 장자가 될 것이다. 또 라후라여, 바른 깨달음을 얻은 존경받는 산해혜자재통왕여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수명과 모든 종류의 공덕을 갖춘 불국토의 공덕이 빛나는 것처럼, 답칠보화여래에게도 그와 같은 길이의 수명과 모든 종류의 공덕의 완성이 있을 것이다. 라후라여, 그대는 산해혜자재통왕여래의 장자도 될 것이다. 그 뒤 그대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게송을 설하셨다.

"라후라는 나의 장자로 / 내가 태자였을 때의 친아들이다. /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며 / 가르침의 유산을 이을 위대한 성인이다. // 미래세에 그는 헤아릴 수 없는 수천만 억의 / 많은 부처님들을 뵐 것이다. / 그는 쉼 없이 깨달음을 구하므로 / 모든 승리자의 아들이 될 것이다. / 라후라의 이 같은 수행은 /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밀행이지만 / 보살로서 세운 그의 서원을 나는 잘 알고 있다. / 세간의 친구인 부처님을 찬미해서 / '나는 여래의 아들이옵니다' 라고 한다. // 이 세상에서 나의 친아들인 라후라가 지닌 공덕은 / 수천만 억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 이렇게 그는 대승의 깨달음에 굳게 섰다."

라후라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설한 게송에는 많은 의미들이 들어 있다. 라후라가 부처님의 아들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중생에게 인연의 깊은 뜻을 보이기 위함인데, 이 깊은 이치를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를 부처님만이 깊이 헤아린다는 말씀이다. 또한 라후라의 밀행을 알고 있는 이 역시 부처님뿐임을 말하고 있다. '은밀한 행'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이 은밀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덕으로 쌓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라후라의 밀행은 이 은밀함의 힘을 보여준다. 라후라의 삶이 존경받는 이유다. 모두 이 은밀한 힘에 눈 떠야 할 일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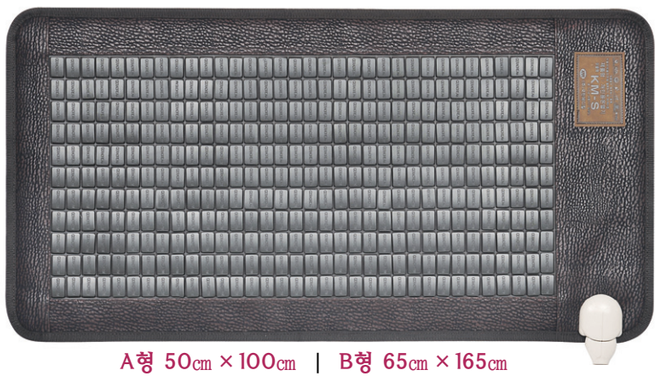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 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 (귀사문석 베게)
발은 뜻하게 (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찜질을!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 제 조 원 : (주)국민메티컬 / 경기 양주시 율정동 115번지
■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 차단)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피부속 50㎜까지 침투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지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엉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엉김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엉켜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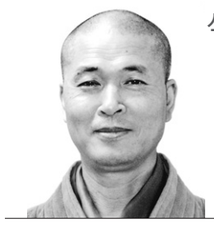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깨달음은 깊은 각성

조주록 선해를 마치며

선불교의 특징은 선사들의 독특한 선문답에 있다. 선문답의 시원(始原)은 부처님 초기 설법인 아함경류에서 나오는 비유설화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부처님은 아함경류에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들으면서 유익한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비유와 설화를 많이 채택하여 설법했다.

이것을 이어받아 선사들의 선문답 역시 비유가 많이 들어 있다. 선문답은 처음 들어 보면 엉뚱한 말같이 들린다. 이것은 선문답이 몇 단계를 생략한 언어, 비유, 지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마치 암호와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불교의 핵심 사상은 "존재하는 것은 모두 공이고[色卽是空], 공은 곧 존재이다[空卽是色]"라는 구절 속에 들어 있다. 존재는 여러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실체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는 곧 빔이고 빔은 곧 존재인 것이다. 불교는 이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각종 가치나 개념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고 있다.

선불교 역시 각종 가치와 개념을 부정해 들어간다. 이들 가치와 개념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명칭 붙여진 것에 불과하다. 언어나 명칭은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이다. 도구는 쓰다보면 망가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필요 없으면 버린다. 영원한 것이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에 크게 집착할 일이 아니다. 진실은 언어와 문자를 떠나서 있다.

선불교에서 깨달음을 중시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서는 인습의 벽을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깊은 각성이고, 깨달음의 순간 습성은 버려지게 된다. 깨달음을 통해 비로소 인생이 뒤바뀌진다. 중생에서 부처로, 어리석음에서 현명함으로, 습관의 세계에서 무습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보는 세상은 보통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습관과, 가치와 문자의 개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생각도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말을 해야 하고 질문에

선문답, 초기 비유 설화에서 채택

〈전심법요〉〈완능록〉〈임제록〉〈조주록〉

순서로 읽어 선의 묘리 체득하길

답변도 해야 한다. 문자의 개념과 습관과 가치를 떠나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비유로 대답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엉뚱한 듯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들 선어(禪語)들은 보통 사람의 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서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게 되어있다. 어찌 보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대화가 선어(禪語)인 셈이다.

선(禪)을 이해하려면, 우선 황벽 스님의 〈전심법요〉, 〈완능록〉을 먼저 읽어보고, 다음으로 〈임제록〉〈조주록〉을 읽는다면 이들 선서에서 한결 같이 흐르는 선의 묘리를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에서 〈임제록〉은 임제 스님의 당찬 선의 기상을 통해 바로 들어가는 길을 체험할 수 있고, 〈조주록〉에서는 조주 스님이 비유와 재치로써 사람을 깨닫게 하려했던 지시가 많이 들어있어 선사들의 정신과 다양한 선의 표현법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조주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선사들이 수많은 납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때는 납자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방문한 납자가 선적 해석이나 선적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있고, 어느 때는 조사가 서쪽에서 온 도리를 직접 물어서 선사의 대답을 들어보려고 한 것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대담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당시에 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주록〉의 대담을 통해 오늘날 한국의 선불교에도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지난 2년간 수많은 선문답을 올리고 그때마다 본 납자가 사족을 달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단 한 곳도 조주 선사의 진의를 전달한 곳이 없으니 독자들에게 죄송하고, 공연히 붓을 놀리어 역대 선사들에도 누를 끼쳤다. 이 어찌 진흙 소가 철봉(鐵棒)을 먹고 금강(金剛)이 출혈을 보이는 일이 아니겠는가. 구업이 무거울 것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선(禪)을 알리는 일에 자리를 내주었던 현대불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45〉

마음정화 · 괴로움 극복의 수행법

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
① 사념처(四念處)

원시불교에서 명상수행을 나타내는 말로는, 마음을 가다듬어 정신을 집중하는 선(禪)과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흔들림이 없는 상태인 정(定), 그리고 잊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 마음에 새기는 념(念; sati) 등이 있다. 이 중 념은 신념처(身念處) · 수념처(受念處) · 심념처(心念處) · 법념처(法念處)의 네 종류로 분류돼 사념처(四念處)라 하는데 원시불교에서는 이것을 수행하면 다른 수행도는 필요 없다고 여겨 일승도(一乘道)라 부를 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사념처는 몸[身] · 감수작용[受] · 마음[心] · 마음의 대상[法]의 네 가지가 무상 · 고 · 무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으로서 인간과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한 진리를 다 망라해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몸은 부정한 것이며 감수작용은 고통을 수반하고 마음은 무상하며 법[대상]은 실체가 없는 무아임을 통찰하는 수행법이다.

원시경전에 의하면 이 사념처를 수행하는 목적은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비애를 극복하며 번뇌를 멸하고 바른 이치를 통찰하여 열반을 얻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번뇌를 소멸하고 열반을 증득하기 위한 수행으로 원시경전에서는 우선 신념처를 거론한다.

신념처는 인간의 몸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하는 수행이다. 〈념처경(念處經)〉에서는 신념처의 내용을 여섯 가지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주의깊게 들숨과 날숨을 쉬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움직이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며 셋째는 팔의 구부림이나 옷과 바루의 소지 등 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다. 넷째는 신체의 각 부분이 부정하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이 신체를 지(地) · 수(水) · 화(火) · 풍(風)에 기반해서 관찰하는 것이며 여섯 번째는 묘에 버려진 사체의 여러 가지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섯 가지 신념처는 표현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몸은 생멸하는 청정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부정한 몸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념처는 괴로움이 의지하는 장소인 이 몸을 바르게 관찰하는 수행을 통해 그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려고 한 것이다.

수념처는 인간의 감수작용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며 무아라는 것을 주의 깊게 새기는 수행법을 말한다. 예컨대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미디어와 영상오락물이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눈과 귀로 보고 듣는 이 현란하고 화려한 세상이 사실은 무상한 것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감관을 통해 받아들여진 아름다운 것 · 좋은 것 · 맛있는 것 등이 실제로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사려깊게 관찰한다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탐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혐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심념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심리에 대한 집착 증오 등을 극복하려는 수행법이다. 예컨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괴롭다면 그 괴로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무상한 마음을 무상하지 않은 것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심념처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각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전 찰나의 집착하는 마음은 과거로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생멸변화하는 마음은 마음의 대상에 따라 일어난다. 법념처는 이 마음의 대상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고 무상인 법을 자각함으로써 괴로움을 없애는 수행 방법이다. 예컨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전쟁의 역사 중에 어떤 이익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것 보다는 견고한 신념의 충돌로 인해 일어난 전쟁이 가장 잔인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대상에 대한 집착은 그 대상이 자아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고 무상한 것임을 마음깊이 되새기는 법념처의 수행에 의해 영원불변의 진리라고 고집함으로써 일어나는 비극적인 괴로움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⑤⓪



규수를 데려가는 것이 바로 별자리가 길상한 것이 아닐까 〈본생 이야기(자타카)〉

부처님의 본생이야기, 즉 과거세 이야기는 하나의 불전(佛傳)문학이다. 그 문학텍스트를 읽다보면, 하나하나의 이야기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의미가 있고, 속으로 감추어져 있는 의미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즉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역시 두 겹이라는 뜻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혼기가 가득차 있었기에 딸을 결혼시키려, 사위를 구했다. 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안끼리 정혼하는 것이야 관습이었다. 어느날 결혼식을 올리자, 이렇게 약속을 해버린 것이다.

자식과 관련된 일 앞에서 부모라는 이들은 흔히 길을 잃는다. 발가벗은 고행자(아지비카교도, 삿되게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명외도(邪命外道)라 불린다)를 찾아가서 그날이 길일인지를 물어봤다.

그런데 이 고행자, 속이 그렇게 넓지 못하다. 애당초 자기에게 와서 날을 받아갔어야지, 자기네끼리 날짜를 다 정해놓고 와서 묻다니…. 뭐, 이런 식으로 괘씸죄를 거는 것 아닌가.

결혼하기로 한 날에 뭐가 많이 끼었다는 것이다. "별자리가 매우 불길합니다." 두려움이 많아서 날을 물어보았던 것이기에, 이 불길하다는 선고 앞에서 어찌 그 아버지가 당당할 수 있었으랴. 정해진 날에 딸을 보내지 않았다. 신랑측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 혼사는 털어지고 싸움만 일어나고 말았다.

여기까지가 표층의 의미이다. 이 이야기의 메시지 자체는, 신랑이 와서 처녀를 데리고 가는 일은 그 자체가 경사스런 일이다. 그러니 그런 경사가 생긴 날이 곧 길일(吉日)이라는 뜻이다. 따로이 길일을 구하지 말라.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의미만 해도 사실 가벼운 것은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별자리를 보는 점성술이 성행할 뿐만 아니라, 사주 명리 타로 굿 등의 산업이 번성하고 있지 않는가. 아직도 여전히 그러한 것에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이다. 슬픈 자화상이다. 그래서 길일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날이 곧 길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은 크게 다가온다.

그런데 본생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발가벗은 고행자가 남의 혼사를 방해하고, 그런 사도(邪道)의 사람들에게 길을 묻는 일이 금생에서 비로소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발가벗은 고행자가 양가(良家)의 잔치를 훼방놓은 일은 지금뿐만이 아니다. 과거에도 똑같이 그가 그들에게 앙심을 품고 잔치를 훼방놓은 적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그 과거세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신다. 이야기의 얼개는 같다. 다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들려주시는 과거세이야기에서는 구체적인 때와 장소가 등장한다.

"그 옛날 바라나시에 브라흐마닷타



그림 · 박구원

왕이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처럼 말이다. 이야기의 생생함을 위해서이리라.

또한 앞의 이야기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역할은 이 상황을 다 듣고 보고서, 적절한 평가를 내려주시는 것이다. "별자리가 대체 무슨 이익이 되는 것일까? 규수를 데려가는 것이 바로 별자리가 길상한 것은 아닐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야말로 바로 부처님의 전생이셨음은 두 말할 나위없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다. 우리 삶은, 세월이 흐르는 것만으로는 개선되지 않는다. 과거의 삶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라. 이것이 심층에 숨어 있는 메시지다. 제발, 다가오는 새해는 금년의 반복이 아니길 기원해 본다. 지난 시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까닭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사라져 가는 팔공산 범음 범패
염불소리를 살리고자 (동현)소승이
교육원을 개원하고
제 1기 수강생 을 모집합니다

교육현황

초급 의식 염불과정		
일반	6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3개월	(주1회 3시간)

▷과 목 : 초발심자경문, 사미율법, 바루공양법, 요령목탁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석염불, 팔공산소리새벽종성염불, 각단예불, 각축원편,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중급 의식 염불과정		
일반	12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6개월	(주1회 3시간)

▷과 목 : 시련, 삼신이운, 104위신중작법, 시다림, 49재천도의식, 다비편, 방생편, 각종고사, 각점안식염불, 구병시식, 생전예수재의문

특수 작법	
6개월 과정	(주1회 2시간)
* 작법은 (일반) : 속성이 따로 없음	

▷ 복청게,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사물타법 도량게(나비춤), 오공양작법, 화청

모집인원
● 35명 (선착순) ※ 개강 이후 1기 졸업시까지는 중간에 수강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모집기간
2012년 12월 1일 – 2013년 2월 28일까지 마감
※ 신청하실분은 본원에 직접 나오셔서 접수하시고 교육일정 시간표를 꼭 받아가십시요.
그리고 수강신청 접수하시고자 본원에 오실때는 필히 명함판 사진 2매를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수강일
2013년 1월 22일 오후 3시(초급반 일반부)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원 원장스님과 직접 상담하여 주십시요.

▶교육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851-2666 / H·P 010-3424-0108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 원장 동현 합장

설 법 · 화 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 합 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연수안내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강사소개
[설법연수원 회장 우불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면시술사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불 김철회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서울 남부구치소 교정(종교)위원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불자님들 스스로, 가정에서 건강 지키기 위한
전통 뜸,침술,한약 대특강

『동양의학방송국』이사장이신 덕운스님께서 중생구제를 위한 일환으로 불자님들에게 건강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동양의학을 처음 접하는 분이나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동양의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2년 12월 19일**(3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 장 소 : 동양의학방송국 대강당(서울 서초구 방배 2동 467-3호 2층)
▣ 강의일정
▶오후 2시 ~ 4시 : 한방약초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한약차 및 한약재 강의)
▶오후 4시 ~ 6시 : 불가에서 내려오는 응급 상용 침술법
(중풍, 두통, 체기, 위장장애 등등)
▣ 접수인원 : 선착순 20명(수강인원 초과시 조기 마감)
▣ 회 비 : 각 과목당 월 15만원(불교인 30%할인)
▣ 문 의 : 02)3487-2311

강 사 약 력
• 덕운 스님 법계 : 대덕 / 중국 한의사
• 박정아 한약사
한의학 석사. 의과학 박사 / (사)대한한약사회 여한약사회장 / 저서 한방차 다이어트

나의 서원 나의 신행 〈23 · 끝〉

“바르게 믿고 행해 참사람되자”

‘正信 · 正行’의 기수 광우 스님 前 전국 비구니회 회장



광우 스님은 … 1939년 15세에 직지사에서 성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 상주 남장사에서 혜봉대화상을 계사로 사미니계 수지. 최초의 비구니 강원 상주 남장사 ‘관음강원’에서 대교과 졸업. 비구니최초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1956년부터 10년간 부산 소림사에서 법화산림법회. 1958년 정각사를 창건하고 〈신행불교〉를 간행하는 등 정신 · 정행(正信 · 正行)의 기치를 들고 정법의 당간지주를 세웠다. 뇌허불교학술상을 제정하고 2002년에 뇌허 김동화전집 전14권을 펴냈다. 1986년 〈묘법 연화경〉번역간행, 전 7권 사경. 서울시립 목동청소년회관 관장 대통령 표장 받음. 전국 비구니회장을 8년 역임하면서 비구니 회관을 완공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생명공양 실천회 이사. 비구니 별소계단 전계대화상. 2007년 조계종 최초 비구니 명사 법계 품수. 저서로는 번역 〈묘법 연화경〉,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 〈회향〉 등이 있다.

빛 광(光)자, 비 우(雨)자 광우 스님. 속명은 이광우. 법명과 속명이 둘이 아니다.

부친 혜봉(慧峰) 스님은 빛이 되고 자비로운 감로수가 될 법기(法器)임을 아셨는지 광우라 이름했다. 마치 부처님이 제자에게 수기를 내리시듯.

올해 세수로 미수(88)이고 법랍 73세인 광우 스님의 수행이력을 돌아보면 법답게 법명처럼 정진했음을 감지 할 수 있다.

보통학교(초등학교)를 마친 광우는 진학을 준비하느라 당대의 선지식 혜봉 스님의 주석처 상주 남장사에서 한여름을 보냈다.

스님들의 경 읽는 소리를 들은 광우는 이틀 만에 〈천수경〉을 줄줄 외웠다. 참선하는 스님들의 모습에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했다.

참선하다 졸고 있는 스님의 턱 끝에 손가락 송곳을 만들어서 갖다대고 있다가 큰 스님에게 들켰다.

큰 스님은 엄하게 꾸짖으셨다. 그때 소녀 광우는 질문했다.

“왜 스님들은 꾸벅꾸벅 졸면서 앉아 있어요”

“광우야”

“네”

“대답하는 그 놈이 무엇이냐? 어떤 놈이 있어서 대답을 하는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는데요”

“바로 그 ‘모르겠다고 하는 놈’이 어떤 놈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 앉아있는 거란다”

“저도 참선하면 그 것을 알 수 있나요?”

“물론 그렇지.”

광우는 참선을 하게 해 달라고 큰 스님에게 졸랐다. 큰 스님은 안된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입승 스님이 기특하게 여겨 선방에 들게 했다. 어린 소녀는 탁자 밑에 앉아 참선을 흉내냈다.

학교 공부보다 절집 공부가 재미있었던 광우는 이듬해 15세에 출가했다.

이어 어머니도 출가했다.(명성 스님)

속명도 광우 법명도 광우

광우 스님의 수계 법명은 태우(泰雨)이다.

스님이 태우보다 광우라는 법명을 쓰는 이유는 혜봉 큰 스님에 대한 존경심에서다.

“빛 광 자는 지혜가 빛나라는 뜻이고 비 우 자는 만물을 키워주는 자비로운 비가 되라는 뜻입니다. 지혜와 자비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으니 출가하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연을 아신 은사 스님도 당신이 지어준 태우는 그냥 갖고 있고, 광우가 더 좋은 법명이니 그대로 살면 훌륭한 중이 될 것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지난 70여 년을 돌아보면 법명처럼 살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광우 스님은 비구니 최초 강원인 남장사 관음강원에서 수학하고 선방으로 갔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들어가 한국 최초의 비구니 대학생이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선원에서 정진하던 스님은 1958년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정각사를 창건했다.

광우 스님은 도심포교를 결심했다. 54년 전 포교여건이 좋지 않은 시절, 빈 터에 절을 지은 광우 스님은 〈법화경〉에 나오는 ‘일체중생 희견여래’를 포교사의 모델로 삼았다.

전법서원 정각사 창건

“희견보살은 자기 몸을 소신공양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법화경 ‘권지품’에서는 부처님이 마하파자파티 비구니에게 일체중생 희견여래가 될 것이라고 수기하지요. 그건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포교하는 법사가 돼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나는 바로 마하파자파티 같은 비구니 대법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나의 자질과 능력은 차치하고 서원만은 그렇게 세웠지요. 그래서 정각사를 짓고 포교의 길에 나섰습니다.”

정각사(正覺寺)는 ‘바른 깨달음을 이뤄가는 절’이란 뜻이다. 절 이름은 김동화(金東華) 박사가 지었다. 포교를 하되 불법을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바르게 믿으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직한 것이 정기법회입니다. 어린이, 중고등학생법회, 대학생법회, 일반신도법회를 개설하고 매주 법회를 열었습니다.”

스님은 정각운동을 그렇게 시작했다.

정각사 법회는 저절로 소문이 났다. 당대 최고의 불교학자들이 설법하고 강의한 일요정기법회에는 서울시내 유수한 대학의 학생들이 끊임없이 찾아왔다. 황성기, 원의범, 홍정식, 김동화 박사의 강의를 듣기위해 서울대, 고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동국대 학생들이 꾸역꾸역 몰려왔다. 당시 서울대 학생이던 윤호균 씨(한국심리학회 회장 · 가톨릭대 교수), 성대 박상길 씨, 역사학자 이이화 씨, 교회목사, 통일교회 책임자 등이 강의를 듣기 위해 정각사에 왔다. 훗날 정각사에서 공부한 분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식인으로 중추적 역할을 했다.

정각사 창건… 정법의 당간지주세워
전국비구니회관 건립불사 완공
〈법화경〉 번역 유포 · 전7권 사경
폭우 쏟아져도 큰법당서 조석예불

지금은 사찰마다 정기법회를 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할 일이지만 몇 십년 전에는 손꼽을 정도였다.

“어떤 사람은 정기법회가 기독교의 주일예배를 본뜬 것이라고 하는데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출가 수행자는 재가불자를 위해 정기적으로 설법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재가 불자도 재계를 닦고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정각사 정기법회에는 법당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 자랑을 모르고 늘 당신을 낮추는 광우 스님도 “정각사가 정기법회를 정착 시킨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불사였다”고 자인했다.

사보 ‘신행불교’ 27년간 발행

정각사 포교활동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7년간 매월 펴낸 사보 ‘신행불교’ 발간이다. 처음에는 ‘신행회보’라고 하다가 ‘신행불교’로 이름을 바꿔 통권 324호까지 간행한 이 잡지는 문서포교에 큰 몫을 했다. 군부대, 교도소, 해외까지 널리 법을 전했다.

‘신행불교’의 모토는 정신(正信) 정행(正行), ‘바로 믿고 바로 행해 참사람 되자’였다.

정각사가 어떤 신행을 가르치고자 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지표였다.

서윤길 교수, 맹란자 선생, 박선영 교수, 스님의 상좌 정현 스님 등이 이 잡지를 만드는데 관여했다. 특히 맹란자 선생은 ‘10년 발원’으로 이 잡지를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했다. 스님은 이 잡지의 공덕을 그분들에게 돌렸다.

스님의 전법은 정각사에 국한되지 않았다. 서울시립 목동청소년회관 관장을 맡아 불교사회복지사업의 초석을 다졌다. 1989년부터 6년간 관장을 역임하면서 서울 목동신도시 청소년 교화모범시설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전국비구니회를 반석에

광우 스님을 빼고는 전국비구니회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 스님은 전국비구니회 전신인 ‘대한불교 비구니 우담바라회’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67년 발의하고 68년 창립총회를 갖고 우여곡절을 겪었던 전국비구니회가 1985년 9월 재건되고 2003년 8월 지금의 비구니회관 낙성법회를 갖기까지 스님은 ‘비구니회를 반석에 올려놓은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5년 전국비구니회 회장으로 선출돼 8년간 비구니회를 이끌면서 120억원의 불사비가 투입된 비구니회관 건립을 완공했다. 임원들과 전국사찰을 순회하며 모금운동을 펼치는 등 전력을 다했다.

“비구니 회관 건립을 위해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스님이 원력을 모은 결과입니다. 1996년과 1997년은 좀 과장하면 길에서 보낸 시간이 절에서 보낸 시간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고마웠던 분은 진관사 진관 스님입니다. 1968년 비구니회 발기때부터 저와 같이 일을 하고 그때도 전국을 순회했는데 이번에도 부회장을 맡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이 아니었으면 이 불사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120억원 불사비 중 85억원을 한마음선원에서 쾌척했습니다. 조계종 7천 비구니 스님들의 원력불사는 그렇게 회향됐습니다. 한마음선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죽을때 까지 소중한 빚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광우 스님은 2003년 8월 19일 비구니회관 낙성법회를 마치고 며칠간을 멍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그 불사에 혼신을 다했다.

정각사 살림을 뒤로 미루면서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높이고 긍지를 심어줄 비구니회관 건립불사를 마무리한 스님은 그래 10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법화행자의 길 70년

광우 스님은 평생 〈법화경〉 공부를 남달리 해 온 법화행자다. 포교활동도 주로 법화경 강설로 했다. 1986년 〈묘법연화경〉을 번역출간하며 대학 도서관까지 법공양했다. 이 책의 특징은 독송할 때 운율이 잘 맞고 뜻이 명료하게 번역된 점이다. 그리고 스님은 법화경 6만 9천 84자를 매일 기도하듯 사경했다.

“절에 처음들어왔을 때 혜봉 큰 스님이 〈법화경〉 실상서를 주면서 외워오면 큰 상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실상서란 송나라 때 계환 스님이 붙인 해제입니

성지순례는 미암사로, 방생은 백마강으로

세계최대 와불, 의자왕 출가한 곳, 소원성취 쌀바위, 진신사리증과, 인체에 효험약수 (점심공양, 입장료 무료, 단체 및 개인 성지순례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미암사의 연혁

미암사는 부여에서 서쪽 보령 방향으로 16km쯤 되는데, 부여에서 15분쯤 가다가 구룡천을 따라 40번 국도로 4km정도 올라가면 왼쪽으로 금북정맥 계향산이라는 아름다운 명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백제시대 침류왕때 쌀바위에 유씨 부인이 공을 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얻어 소원도 성취했다 하여 큰 영험이 있으므로 쌀바위(충남도지방 문화재 제371호) 이름을 따서 무왕께서 쌀미(米), 바위암(岩), 미암사(米岩寺)라 하였다. 사촌마을을 미암부락이라고 했다.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응용 평가센터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원적외선이 92.1% 방출 됨으로 노화방지, 성인병 제거, 중금속제거, 곰팡이 번식방지, 신진대사 촉진,혈액순환 등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미암사 만청스님은 그 후 몇차례 전소되어 일부 복원 하고 있으며, 지금은 다시 전통사찰 양식으로 고증받아 복원 불사 중에 있다. 또한 1998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던 바, 2004년 납월 친견당시 자연적으로 3과로 자리를 옮겨 증과된 신비한 기적을 일으켰으며 2010년 9월 10일 진신사리 1과를 부여 백제 재현단지 능사에 기증 하였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백제권 불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부동정심의 대원력을 세워 국운융창, 국민화합을 위한 대자대비하신 삼계의 도사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 세계최대열반상을 2005년 4월 17일 미암사 도량에 전국사부대중의 동참으로 원만성취 조성을 회향하게 되어 점안식을 봉행하게되었다.
소원성취기도도량 불교성지 미암사에 오셔서 악업은 소멸하고, 무량공덕 쌓으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요. 적멸보궁 세계최대열반상 불교성지 미암사는 성지순례코스로 가장 적당하며, 찾아오시는 불자님들께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암사 TV. 라디오방영 사례

mbc 드라마계백 / kbs2 전설의고향 / mbc 라디오 전설따라삼천리 / sbs 생방송투데이 / kbs1 쾌지나칭칭 / kbs2 생생정보통 / mbc 공감특별한세상 / kbs, vj특공대 / mbc TV특종놀라운세상 / sbs 출발모닝와이드 / kbs2 굿모닝 대한민국 / kbs2 생생정보통 / 불교tv / cmb생방송뉴스 / 실버TV만청문화행사 / tjb 특집프로


▷ 와불국화축제


▷ 진신사리 증과


▷ 만사형통 문수동자


▷ 쌀바위(운수대통)


▷ 장엄노천불 공원


▷ 10년만의 자손득남


▷ 33층 석탑 진신사리 점안식


▷ 효험 산신불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 / 팩스 041)832-1187

‘희견여래’를 포교사 모델로



광우 스님〈사진 오른쪽에서 3번째〉은 지난 7월 중국 보타낙가산 성지순례를 했다.



광우 스님이 주석하는 정각사 불이정사 1층의 불단.



광우 스님은 긴 염주 천주를 돌리며 매일 독경과 염송을 한다.



① 27년간 발행한 정각사 사보 ‘신행불교’. ② 스님의 수행 70년을 정리한 대담집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 ③ ‘신행불교’ 권두언을 모은책 〈회향〉.

다. 제법 긴 글인데 하루만에 외워 스님께 갔더니 칭찬을 하시면서 큰 붓 한자루를 주셨어요. 저와 〈법화경〉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정각사를 창건하고는 조석예불을 마친뒤 반드시 〈법화경〉을 한번씩 읽기를 수행의 정업으로 삼았다. 1956년부터 10년간 부산 소림사에서 〈법화경〉 산림을 했다. 사숙인 금룡 스님의 당부로 매년 열흘씩 법화경 강설을 했다.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의 핵심은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생도 외면의 대상은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것은 불교의 대자대비입니다. 우리가 법회 때마다 외우는 사홍서원도 〈법화경〉 약초유품에 나오는 가르침이 원형입니다. 이 가르침을 다 이해하고 실천하여 온 세상이 그대로 한 송이 아름다운 연못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우 스님이 법화행자 70년 수행의 길을 걸어온 뜻이 여기에 있다.

혜봉 스님과 김동화 박사

“혜봉 큰 스님은 저에게 가장 엄한 스승이자 가장 자애롭고 고마운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스님의 부친 혜봉 스님(1874~1956)은 고종 28년 18세의 나이로 출사해 궁내부 주서(종4품)로 12년간 관직에 있었다. 세상의 무상을 느낀 스님은 30세(1904)에 상주 남장사 영봉 화상 문하로 출가했다. 노장 유학에 깊은 조예가 있었고 불교경전과 어록을 읽고 참선을 한 스님은 때로는 강설을 펴고 때로는 선리를 참구, 당대의 선지식으로 제방에 그 명성이 자자했다. 상주 남장사 조실로 20여년간 주석하면서 고봉 스님, 관응 스님 등 훌륭한 제자를 많이 길러낸 큰 스승이었다.

광우 스님이 혜봉 스님의 일기와 게송을 묶은 〈혜봉선사 유집〉을 2007년에 펴내 혜봉 선사의 행장이 알려졌다.

혜봉 스님의 법제자로서 현대불교학계의 태두인 뇌허(雷虛) 김동화 박사(1902~1980)도 광우 스님에게 큰 스승이었다. 김 박사는 광우 스님이 동국대학에 가도록 권유했다. 정각사를 창건하여 정법불교운동을 펴고 ‘신행불교’를 창간하고, 비구니회를 설립하도록 아이디어를 준 분이 김동화 박사다.

광우 스님의 김동화 박사에 대한 존경은 남다르다. 스님은 김 박사 타계 후 1982년 ‘뇌허 불교학술상’을 제정하고 매년 발표된 가장 우수한 논문이나 저서를 대상으로 시상했다. 14회까지 시상하고 중단됐다. 2002년 탄생 100주년을 맞아 〈뇌허 김동화 전집〉(전 14권)을 간행, 해외 도서관까지 배포했다.

김동화 박사의 학문적 업적을 기릴뿐 아니라 불교학 발전을 도모하는 불사였다.

정각사를 제자 정목 스님에게

신도들이 불사금이나 또는 스님 용돈 쓰시라고 봉투를 가져오면 그걸 모아 장학금으로 썼다. 큰 성금을 가져온 불자의 법명을 장학금 이름으로 정하기도 했다.

매년 겨울, 스님 생신이면 어려운 마을 어른들을 초대해 식사와 용돈봉투를 선물했다.

2009년 7월 22일 스님은 상좌 정목 스님에게 정각사 주지직을 넘겼다. 스승과 제자는 10년 간이나 “주지직을 맡아라, 아닙니다”를 반복하다 결국 정목 스님은 은사 스님의 당부를 받아들였다. 광우 스님은 그날 〈신행불교〉 권두언에 쓴 글을 모은 책 〈회향〉 출판기념회도 아울러 가졌다. 일체를 회향하신 듯 스님은 모든 걸 내려놓았다. 늘 만족하고 모든 것에 감사한다. 유머 감각이 더 늘었다.

병원에 가시자고 하면 “얼마나 오래 살려고 병원에 가느냐. 남들이 욕한다”며 안가실려고 한다고 정목 스님이 귀띔한다.

지난 여름에는 중국 보타낙가산 성지순례를 손상좌 현산 스님과 신도들이 모시고 다녀왔다. 천불탑전에서 부처님 한분 한분께 절을 하셨다.

정각사는 대웅전만 그대로두고 요사채 등을 현대식 통유리집으로 새로 짓고 있다. 그 현대식 건물 불이정사 1층에 혜봉 스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선조 아미타여래 탱화와 작은 불단이 있다. 스님은 매일 그 앞에서 긴 염주 천주를 돌리며 독경과 암송을 한다. 무릎을 구부리고 1시간 40분씩. 무얼 기원하시느냐고 여쭈어보면 “내가 할 것이 하나밖에 더 있나. 내가 갈 꽃밭은 내가 가꾸지.”

폭우가 쏟아져도 스님은 큰법당 조석예불을 거르지 않는다. 현산 스님이 법의를 비에 젖을까 보자기에 싸서 법당에 갖고간다. 12월 20일 기자를 만난 스님은 “찾아줘서 고맙긴 한데, 나는 별게 아니야. 사진도 찍지말고 쓰지도 말아”라며 극구 사양하셨다. ‘체로금풍(體露金風)’의 모습이다. 스님의 말씀, 움직임이 모두 법향으로 피어난다.

글=최정희 편집이사 · 사진=박재완 기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장식이 지나쳐

길을 걷는다. 걷다 보면 눈이 시리도록 하얀 눈을 본다. 또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장식이다. 숨 쉬고 있는 나무에 전선이 얼기설기 얽혀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하다.

장식이라 하면 사물의 외면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는 것이다. 라틴어의 decorāre에서 영어의 decoration이 나왔고, ōrnāre에서 ornament가 나왔다. 우리말로는 모두 장식이라고 번역하지만 일반적으로 데코레이션은 조직적이고 전체적인 장식을 의미한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걸작으로 실내를 장식할 경우 데코레이션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특정 표면을 치장하고 구미는 장식 모양은 오너먼트라고 부른다. 오너먼트의 모티브는 다양하지만 기하학적인 장식과 자연적 장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기하학적인 장식이란 직선, 원, 점 등을 주제로 한 것이고, 자연적 장식이란 식물, 동물, 풍경 등 자연물에 의한 것이다.

성인의 탄생을 기뻐하는 장식품이 너무 지나쳐 보인다. 누구나 예전 광화문 거리의 모습이 쉽게 떠오를 것이다.

그 우람했던 은행나무의 모습. 특히 연말의 모습이 선연하지 않은가. 전기 고문을 당하고 있는 나무가 가련하다. 무지한 인간의 소행이 한 생명체에 무고한 형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비단 서울의 모습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유럽에서는 깨진 접시나 천조각으로 장식한다니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어느 자리에서는 환경이 어떻고 생태계에 엄청난 교란이 올 것이라고 목청을 돋구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온난화도 걱정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신약에 강조하고 있는 말이 참 인상적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보다 어렵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성구는 인간이 외장 보다 내면세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하는 말이다. 실은 자세히 보면 이 성구의 번역도 잘못된 말이다.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Aramaic)가 있다. 그 지역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다. 아람어로 gamta는 밧줄이고, gamla는 낙타이다. 번역할 때 밧줄을 낙타로 오역한 데서 연유한 말이다. 실이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는 쉬워도 밧줄이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일 거란 비유가 온당하다. 그런데 뜬금없이 낙타가 나오다니. 이번 성탄절이야 그렇게 넘긴다해도 다음부터는 무고한 나무에게 전기 고문시키는 일은 그만 했으면 한다. 그리고 바른 교리를 가르쳤으면 한다. 그른 것은 언제든지 수정하고 시인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매어서는 못 쓰는 일인 줄 알면서 매사를 얼버무려 넘기려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청맹과니가 될 것인가.

현란함에 지친 현대인의 영혼을 보라. 걷잡을 수 없는 사고와 행동은 일상의 일이 되고 말았다. 파열된 브레이크가 제어 기능을 상실하여 살상의 무기가 되듯이 현란함에 취하고 지친 영혼은 환락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요행을 바라고 있다. 그 단편적인 사례로 복권이 그리 많이 팔렸다고 하지 않던가. 하기야 에멜무지로 한 일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

암흑가에는 네온싸인이나 장식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는 어느 곳 보다 화려한 장식들이 많다. 그러나 암흑가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폭력과 범죄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모습을 본다. 팔 하나 움직일 기력조차 잃고 말았다. 입가에 파리가 앉아도 쫓을 힘도 없다. 고대 이집트어로 ‘아프리카’가 ‘고향’이라고 한다. 우리 고향의 아이들이 손에 쥔 것이 없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타박이 많다. 마음에 장식을 조금이라도 하였다면 그럴리는 없을 터인데 말이다.

수행승에게 분소의를 입게 했던 것은 외장을 경계한 표본이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넝마조각을 모아 이어 만든 옷으로 무슨 외장이 될 리 만무하다. 내면의 세계를 관조하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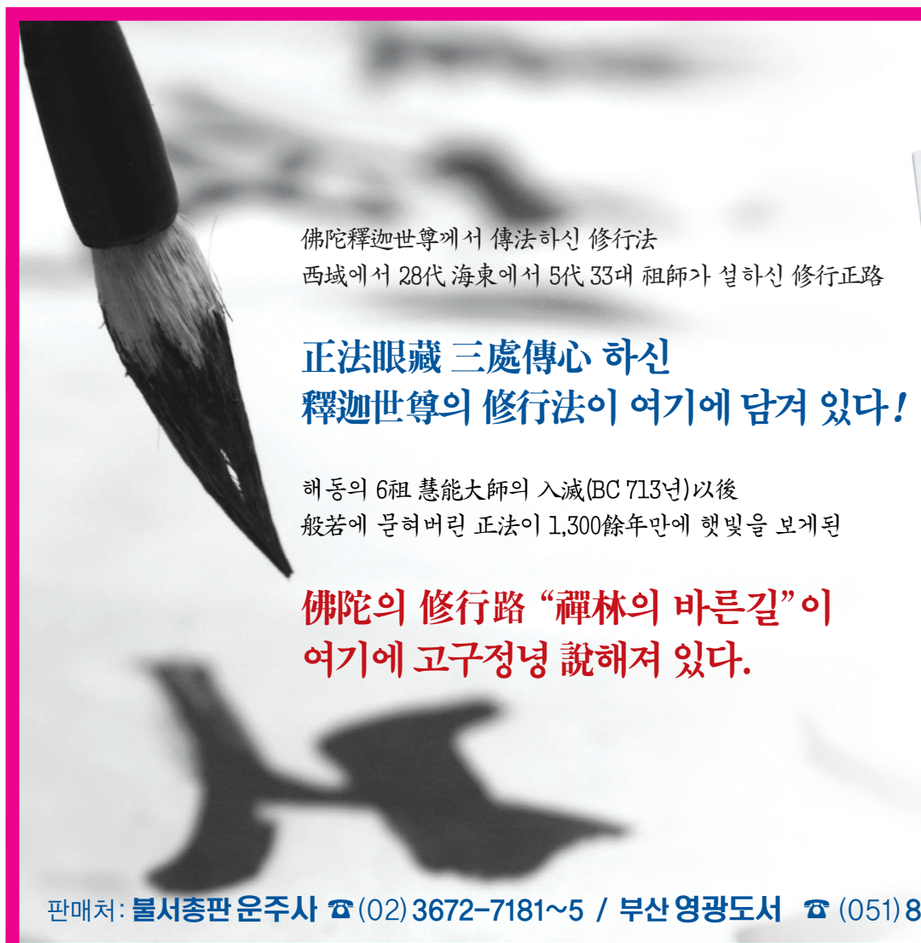
가로수 성탄 장식 가련해
현란한 현대인들 보는듯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의 대차대조표 보다 얻은 것과 버린 것의 대차대조표를 견주어 보는 것이 소중하다고 본다. 누구나 나에게서 무엇을 버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좋지 않은 습관과 거친 말씨가 그렇다. 추녀에서 눈석임물이 떨어지는 모습에 눈길이 머물렀다. 계곡의 밑바닥에서도 오순도순 말을 건네며 흐르는 눈석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지붕 위에 쌓였던 눈송이도 자태를 드러낸 후 물방울이 되어 대지를 촉촉이 적셔준다.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지 않으려하는 연약한 눈송이가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우리는 저러한 유익한 변신을 할 수 없단 말인가. 가능한 일이다. 외벽의 장식보다 내면의 장식을 서둘렀던 사람이 훨씬 많았으니까.

연재를 마치며 매주 글을 확대 복사, 코팅까지 하여 주변에 읽히게 했던 천동화 보살님의 신심에 감탄하였다.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쓰고도 글을 읽고 위안을 받고 있다는 박주미 작가의 쾌유와 평안을 빈다.

회자정리의 이법을 몸소 실감하는 시간이다.

〈끝〉





■ 편저자 : 각암 성원
■ 상권 401쪽 / 하권 380쪽
■ 가 격 : 상권 15,000원 / 하권 15,000원
■ 발행처 :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부산시 기장군 철마삼동로 54
☎(051)515-8888(代)
출판등록 제11-67호

판매처: 불서종판 운주사 ☎(02)3672-7181~5 / 부산 영광도서 ☎(051)816-9500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 / 9×14㎝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2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경면한지 불설삼재풀이
할인가 1,000원(200개 이상)
정 가 1,2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200개 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180원(600개 이상)
정 가 25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인견한지]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400원(450개 이상)
정 가 6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2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美·英 명문 대학서 '명상' 주목

성품을 다지고…교유의 장으로



스리랑카 출신 스님이 노스이스턴대 학생들에게 불교의식을 행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대학생들은 명상수행을 통해 성적만을 좇지 않고 성품 키우는 데도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대학에서 '대학생불자그룹(Buddhist Group at University)'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네소타 데일리(Minnesota Daily), 뉴스@노스이스턴(news@Northeastern) 등은 "이들 불자그룹들이 '성적만을 좇는 대학의 삭막한 풍속'과는 달리 대학생 개개인의 성품을 키우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학문을 배워 '앎'의 깊이를 더하는 곳인 대학에서 그 배움을 다시 펴내야 하는 개개인의 성품, 즉 정신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데는 자칫 간과할 수 있는데, 대학생불자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명상 프로그램 등이 그 간극을 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스이스턴 대학의 온라인 소식지 '뉴스@노스이스턴(news@Northeastern)에 따르면, 이곳 대학생불자그룹이 매년 진행하고 있는 '불교특강'의 청강자 수가 매년 12% 상승하고 있다.

불자그룹이 현재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내면을 보아야 한다'를 주제로 23일까지 캠퍼스 내 엘 홀(Ell Hall)에서 2013년도 불교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강의 연사는 콘다나 데로(Kon- danna Thero) 스님이다. 스님은 미국 뉴욕만 입구 서쪽에 있는 스탠튼섬(Staten Island) 사원의 원장으로, 지역 불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미국계 스님이다.

이번 특강을 기획한 알렉산더 리버링 케른(Alexander Levering Kern · 집행위원)은 "우리는 매년 신입 회원들의 불교 소양을 다지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삶의 지혜를 넓히고,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 불교특강을 마련하고 있다"며 "노스이스턴 대학 불자동호회는 재학생들 스스로 정신적 가치에 주목하게 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주변 대학생들이 겪는 문제적 일상을 공감하고 이겨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스이스턴 대학은 해외 각지에서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 사립이라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대학 내 불자그룹의 활동은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은 심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의 신흥 명문 노썸브리아 대학(Northumbria University) 대학생불자그룹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클로니클 라이브(Chronicle Live)에 따르면, 노썸브리아불자그룹이 인근 지역 불교공동체인 트로셀 홀 사원(Throssel Hole Buddhist Abbey)과 함께 2005년도부터 매년 가을 '불교와 휴(休)'를 주제로 진행하는 명상 캠프에는 대학생 불자를 비롯해 영국 북동부 뉴캐슬 지역의 불자들도 대거 참여, 명상을 주제로 한 지역 축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명상 캠프 지도 법사를 맡고 있는 몰간(Daishin Morgan) 스님은 "명상 캠프는 자기 점검을 통해 자신의 불합리한 생각과 합리적 생각을 통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캠프 참여자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클로니클 라이브는 "노썸브리아불자그룹이 격월로 진행하는 '국제 점심'이라는 프로그램도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3파운드 비용만으로 '채식 스프', '곡물 빵', '국수' 등으로 구성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는 영국의 명문 사립에 유학 온 재학생들의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네소타 대학(University of Minnesota)에서도 2005년 대학생불자그룹이 결성, 활동하고 있고, 마이애미 대학(University of Miami)에서는 명상 스쿨이 운영되고 있고, 조지타운 대학(Georgetown University)에서는 불교명상그룹(Buddhist Meditation Sangha) 등이 주목받고 있다.

미네소타 대학의 대학생불자그룹의 초대 회장을 역임한 알렉스 할리(Alex Haley)는 "내 경험으로 명상은 대학생에게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같다"며 "이는 대학 졸업 후 사회 공동체 곳곳에 공헌할 수 있는 소양을 쌓는 일"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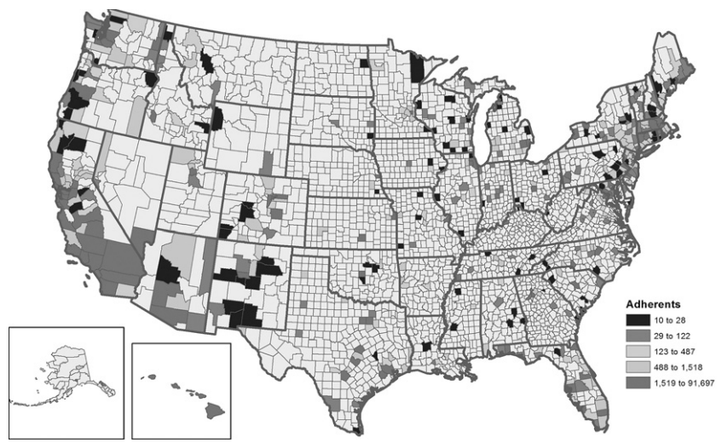
뉴스 트리븐(The News Tribune)에 따르면, 마이애미 대학의 명상 스쿨 운영을 맡고 있는 니메로프(Nemeroff)는 "대학 캠퍼스에서 친구를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명상 스쿨은 그런 분위기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교류의 장"이라고 말했다.

뉴스 트리븐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 15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명상 스쿨은 '15분~20분 명상'과 '5분 포행'을 반복하며 진행되는 데 재학생들에게 호감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 불자수, LA 많고 버밍엄 적어

인구 100만 넘는 대도시는 산호세가 불자비율 높아



미국종교단체분석협회(ASARB)는 2010년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인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미동부와 서부 해안가에 불자들이 많다.

미국에서 불교신자가 가장 많은 도시와 가장 적은 도시는 어디일까.

미국의 종교단체를 조사하는 '미국종교단체분석협회(ASARB; Association of Statisticians of American Religious Bodies)'가 2010년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종교 인구조사(2010 US Religious Census: Religious Congregations & Membership Study)'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ASARB는 연구조사에서 뿌리는 동일하지만 전통과 의식이 달라 세분화된 종교까지 포함해 총 235개의 종교로 나누어 각 종교의 신도수와 신도들의 정보 등을 조사했다.

불교지지자, 불교신자의 75%가 인구 1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 지역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 지역가운데서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역의 1.25%가 자신을 불자라고 생각해 美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알라바마주의 버밍엄지역은 0.0006%로 자신이 불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99만 1683명의 응답자가 불교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2854명의 응답자가 자신을 불교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11만 7000명의 불교 지지자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어 가장 높은 수를 차지했다. 반면 알라바마주의 버밍엄지역의 불교지지자는 64명으로 파악돼 가장 적은 수의 불교지지자가 있는 곳으로 분석됐다.

마찬가지로 로스앤젤레스가 가장 높은 수인 243명의 불교신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알라바마 버밍엄에서는 2명의 불교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전국의 535카운티의 거주자가 불교 지지자라고 밝혔으며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불교지지자들은 동부나 서부 해안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나은 기자

아시아 불교미술·도상 전문가

세계의 불교학자(45·끝)

존 C. 헌팅턴 美 오하이오주립대 교수



존 C. 헌팅턴(John C. Huntington) 美 오하이오주립대 교수는 아시아 전역의 불교예술과 도상(圖像)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그는 20여 년간 인도·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직접 찍은 불교문화 및 예술품 사진 3만 여점을 모아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다.

부인인 수잔 L. 헌팅턴(Susan L. Huntington)과 함께 '헌팅턴 아카이브(http://huntingtonarchive.osu.edu)'를 운영하면서 아시아미술관련 사진 3만 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이 헌팅턴부부의 자료실은 인도미술을 전공한 학생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만한 사이트일 정도로 유명하다.

헌팅턴 교수는 1969년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에서 '티베트 회화의 스타일(Styles and Stylistic Sources of Tibetan Painting)'를 주제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70년부터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동아시아예술, 아시아불교도상을 가르치고 있다.

1986년 헌팅턴 교수는 부인인 수잔 헌팅턴 오하이오 주립대교수와 연구영역을 넓혀 세계지역의 불교사진을 찍는 데까지 확대한다. 여기서 탄생한 것이 '헌팅턴 아카이브'다. 이 헌팅턴 자료실은 학술 연구 및 교실 수업을 위한 범 아시아문서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과 연구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존 헌팅턴과 수잔 헌팅턴의 40여 년의 연구 업적이 담겨있는 아카이브 자료실에는 1969~1984년까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까지 아시아미술과 불교미술에 대한 다양한 사진을 찾아볼 수 있고, 고해상도의 확대사진도 볼 수 있다.

또한 아시아지역 전통 예술작품들이 불교에서 기인한 만큼 불교용어사전과 아시아의 지도 불교도상백과사전 등도 제공되고 있다.

현재 그는 아시아와 인도네시아 전역의 불교예술과 도상을 주요관심분야로 삼고 있으며, 특히 불교방법론이 예술을 통해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그의 관심은 웹출판물과 저서 〈중국 불교미술 (Chinese Buddhist Art)〉〈네팔 네와르 불교의 미술(Art of Newar Buddhism, Nepal)〉〈고대인도의 미술: 불교·힌두교·자이나교(The Art of Ancient India: Buddhist Hindu and Jain)〉 등을 통해 살필 수 있으며 헌팅턴 아카이브에 마련된 섹션을 통해 볼 수 있다.

헌팅턴 교수가 수집한 문서들은 불교뿐 아니라 힌두교, 자이나교, 이슬람교 등 여러 종교에서 기원한 조각과 그림들도 있다. 이들 작품은 2500년 전의 예술품부터 근대아시아 미술까지 포함돼있으며 그의 자료는 아시아와 유럽 및 미국 지역의 박물관과 건축 현장작업에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다.

인터넷아카이브 3만여점 공개
인도·중국 등 아시아 불교미술
한국 불교문화재 없는 점 아쉬워

최근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귀중한 노하우인 것처럼 생각해 쉽게 내놓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팅턴 교수 부부가 유용한 자료들을 무료로 서비스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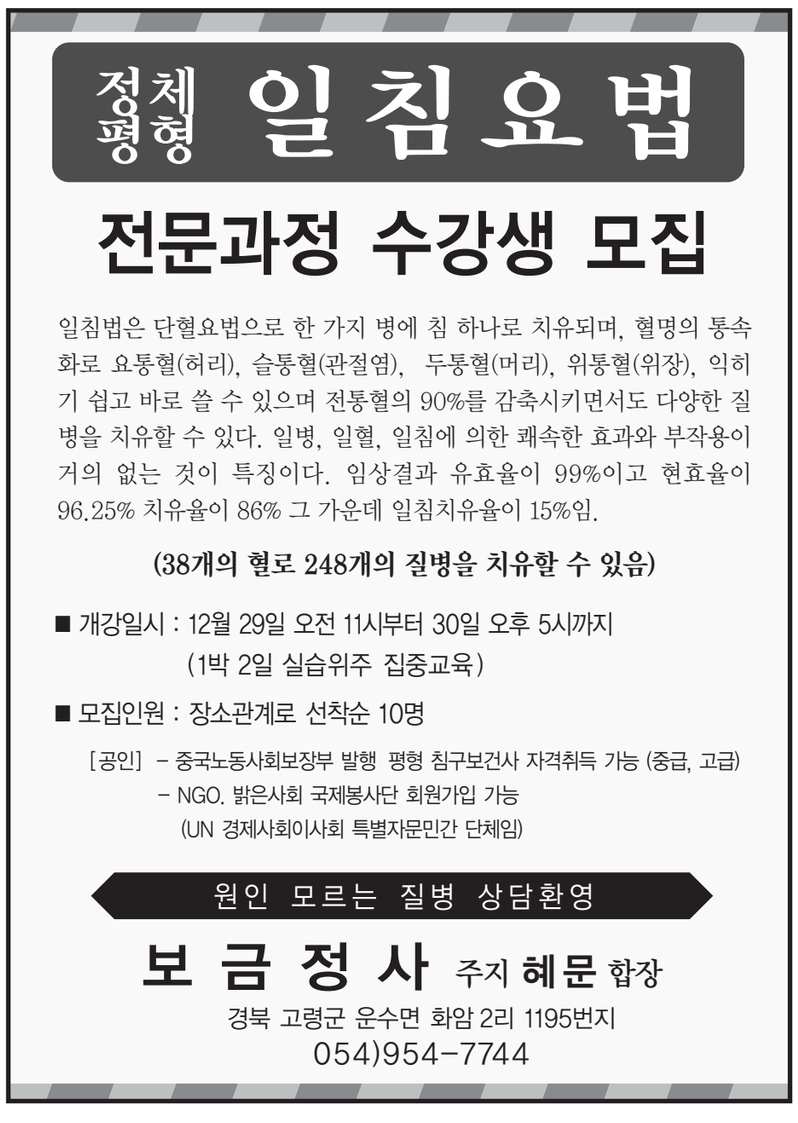
하지만 헌팅턴 부부가 방대한 자료를 제공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에도 한국의 불교문화재 카테고리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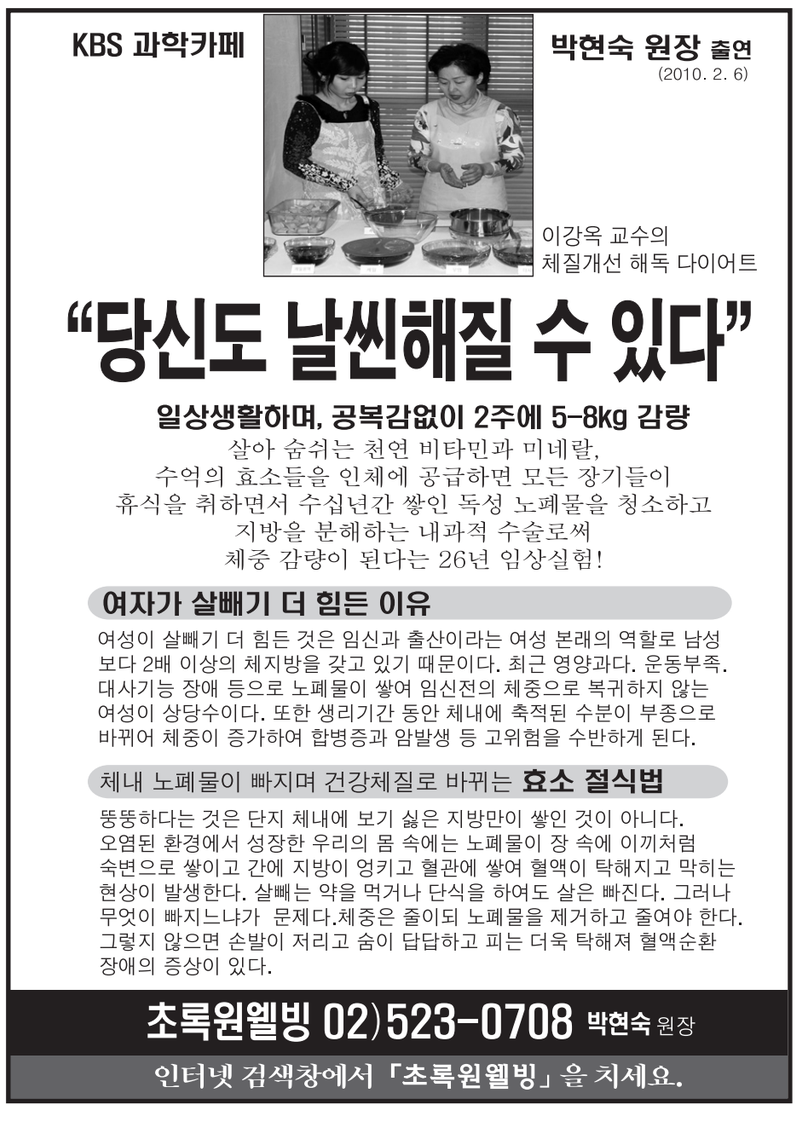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존 C. 헌팅턴, 수잔 L. 헌팅턴 부부가 운영하는 '헌팅턴 아카이브' 사이트. 3만 여점의 아시아 예술작품 이미지가 무료로 공개되고 있다.







2013년 현불샵 추천 상품 대잔치

다향정 캐릭터 차걸이 핸드폰걸이


부엉이걸이

다향정 제품은 100%수공예 작품이고,
모든제품을
다향정에서직접 제작합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구매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옴자차걸이 4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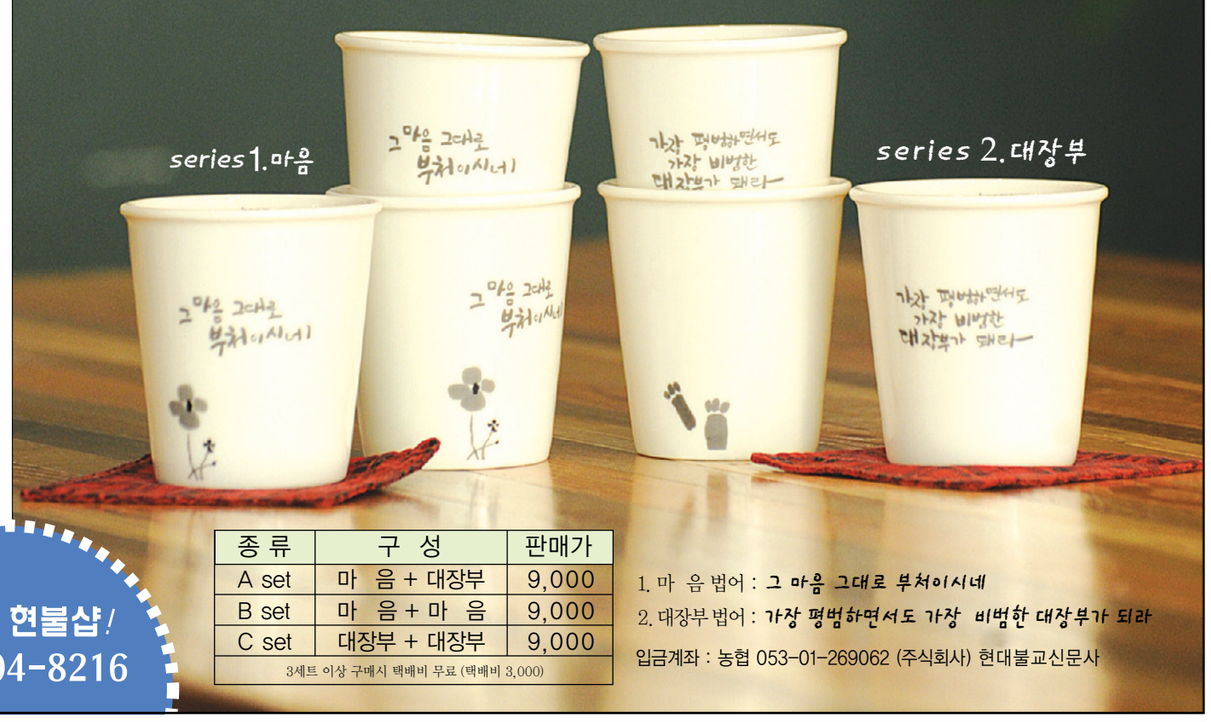
종 류	가 격	제 조
옴자차걸이(4색)	33,000원	국내제작
부엉이걸이(大)	20,000원	국내제작
부엉이걸이(中)	15,000원	국내제작
부엉이걸이(小)	10,000원	국내제작
목어걸이	15,000원	국내제작
부엉이 향낭	15,000원	국내제작

[계좌 : 053-01-269062 농협.(주)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법어가 담긴 에코컵) 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행스님의 법어!

도자기 법어가 담긴 ✓에코컵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십장생 福 포대화상 도자기



십장생 복 포대화상 도자기를 모셔둔 家에는 언제나 밝은 웃음이 그치지 않고 하는일 마다 만사형통하여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매산 김선원

청곡 이한동

천하를 다 포용하고도 남을 큰배와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포대자루 속에든 복을 꺼내어 중생에게 나누어 주시는 포대화상 (앞면)

도자기 옆면과 뒷면은 십장생 그림으로 사슴이 불로초를 물어다가 거북에게 건네주는 신비한 장면이며 아래위 여백을 살려 시원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KBS 진품명품」에서 해박한 지식으로 서예 감정을 하여 그 이름을 떨치신 **매산 김선원 교수**님의 글씨와 한국 화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미술원장을 맡고 계신 **청곡 이한동 화백**의 그림으로 합작하신 십장생 포대화상 도자기

※ (높이 37Cm× 둘레 100Cm 제조원 여주 다양도예 최고급 여주 백자
(손으로 일일이 만든 작품이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도자기 선물 SET

도자기 외 사은품 6종 가격
할인가 ₩ 99,800원

1 십장생 장수 반상기 세트 6P (밥그릇, 뚜껑, 국그릇, 2벌)



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천가지 보약보다 낫다고 합니다.

중요한 시사를 하는 반상기(밥그릇, 뚜껑, 국그릇) 또한 소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2 소품 연화 다기 5P



짙은 약이나 차를 따라 드실 때 편리한 소품으로 된 약찻잔 5피를 청곡화백의 작품으로 연꽃이 들어간 예쁜 잔입니다.

3 용달마 순금카드 1점



달마 순금카드를 남편 지갑에 넣고 다니게하면 늘 남편을 지켜 줄 것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 30,8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크기 : 직경 10mm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 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10,000원
A5 / 287쪽

삶은 고가 아니다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다시한번 불국토를 꿈꾸며

황룡사 9층 목탑


법화경 변상도 사천왕 호위 9층탑

한반도의 불교사를 통틀어 가장 큰 탑은 무엇인가? 그 탑은 두말 할 필요 없이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소재했던 황룡사 9층목탑이다. 신라왕실의 권위와 호국을 상징하는 세 가지 보물은 진흥왕 때 만들어졌다는 장육존상(丈六尊像), 진평왕이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천사옥대(天賜玉帶), 그리고 선덕여왕 때에 만들어진 황룡사 9층목탑이다.

이 세 가지는 통일신라의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보물들일뿐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흔적이나마 전해지고 있는 유일한 보물이 황룡사지에 있는 구층목탑의 유적이다.

기록에 의하면 2만5천평에 달하는 습지를 메워서 탑을 지었다고 하니, 그 크기가 얼마나 웅장했을지 상상을 초월한다. 탑의 높이 또한 9층까지 탑지(塔誌) 기록 당시의 당척(唐尺)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약 53.45m, 상륜부(上輪部)까지 합하면 약 66.70m나 되는 거대한 것이다. 또한 조영(造營) 당시의 척수인 동위척(東魏尺)으로 따진다면 80m 이상으로 그보다 더 높은 초대형 건축물이었다 한다.

자장율사 탑 조성으로 국가 통일과 안녕 염원

그러면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엄청난 국가예산을 들여서 왜 선덕여왕은 세웠던 것일까? 삼국유사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온다. 자장율사께서 중국의 태화지(太和池)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신인(神人)이 나타나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물었다.

신인인 태화지의 용왕은 자장율사가 말갈과 왜국, 고구려와 백제의 침범으로 어려운 신라의 사정을 말하자, 충고의 간언을 전한다. 신라의 왕은 여자이기에 덕은 있으되, 위엄이 없으므로 이웃나라가 침략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빨리 돌아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자장율사가 어찌해야 하는가를 묻자, 황룡사의 호법용이 그의 아들임을 밝히고, 황룡사 안에 9층탑을 세울 것을 조언한다. 그리하면 구한(九韓, 고구려, 백제, 말갈, 일본을 비롯한 9개 나라)이 항복하고 조공할 것이며, 왕업이 길이 편안하다고 충고한다.

또 탑을 세운 후 팔관회를 열어 죄인을 용서하고 풀어주면, 외적이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충고하곤 사라진다. 그리하여 서기 643년 자장율사는 귀국하자마자 선덕여왕을 설득해서 황룡사 9층탑을 완성한다.

그리곤 지은 지 600여년 만에 황룡사 9층목탑은 고종 25년 무술(1238년) 겨울에 몽고의 침략으로 탑과 장육존상과 절의 전각들이 모두 불에 타버린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황룡사 9층 목탑은 한반도 불교사에서 가장 많이 출간되었던 묘법연화경에 삽화 변상도로 항상 그려져 왔다. 물론 법화경의 제11품 견보탑품(見寶塔品)이 불탑숭배사상을 반영하고, 석가탑과 다보탑의 조성에 모태가 되기도 한다는 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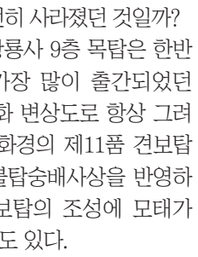
이 법화경 목판본 변상도를 보면, 사대천왕이 불탑을 수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신라는 여왕이 통치하는 나라로, 황룡사 9층탑의 법력으로 국가를 안정시키고 번영케 했으며 민족을 지켰던 것이다.

이제 겨울은 가고, 매화가 꽃피는 봄이 오려 하고 있다. 푸른 기와집에 여인의 향기가 가득하더라도 한반도에 부처님의 가피와 가르침이 여전하리라 믿고 싶다. 그리고 신라시대처럼 온 국민이 불자였던 시대가 다시 한 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마지않는다.

지난 2년간 학문과 지식이 변변치 않고, 재주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글을 짓고, 부끄러운 글들을 강호(江湖)의 제현(諸賢)들에게 읽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불보살님들께 참회진언을 외우며, 그간 잘못의 용서를 빌며 마지막 기고를 보낸다.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마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끝〉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한지에서 피어난 연꽃의 향기

김미선 개인전…31일까지 명지미술관

'지호(紙糊)공예'란 한지를 죽으로 반죽해서 필요한 물건을 만든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 서민들은 쓰다버린 종이를 이용해 그릇을 만들어 곡식을 보관하거나, 물건을 담아놓는 용기로 사용해 왔다. 한지를 단단하게 뭉치면 나무 만큼이나 단단해져 용기와 가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지호공예의 특징이다.

연잎 모양의 탁자와 스탠드가 지호공예로 탄생했다. 12월 31일까지 담양 명지 미술관에서 열리는 김미선 작가의 '자연 속 그녀의 일상' 展에서는 '연잎 향기를 품다' 외 작품 56점이 선보인다.

그녀의 작품은 주로 연꽃과 연잎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다. "연꽃이 깨끗하고 맑은 향기를 품어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고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다탁 같은 경우에는 절집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늘 연꽃의 문양을 많이 이용하죠. 이번 전시에서는 직접 연잎을 조각해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죠"

그녀에게 있어 불교와의 인연은 특별했다. 늦은 결혼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할 때 100일 기도를 했다고 한다. "가톨릭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런데 불자 남편을 만났고 아이를 갖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경상도 안정사라는 사찰에 가서 불공을 드렸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딸을 얻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절에 드나들었지만 그때부터 천수경 금강경 읽으며 불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절집의 향기와 절집의 이미지들은 제 작품에 무척 의미 있게 쓰여지고 있죠"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던 그녀는 산업디자인을 다시 전공하게 됐고 이후 전통기법의 지호 공예를 현대 감각에 맞게 재해석한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녀의 작품들

안정사서 기도하며 불교와 인연
지호공예로 연꽃 등 탁자 제작
늘 금강경 독송하며 마음 밝혀

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소재를 이용한다. 한지를 직접 떠서 갯벌과 황토를 이용한 한지 벽지, 대형 탁자에 옻칠을 해 표현한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또다른 작품은 물고기다. "물고기는 부귀 자손번창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는 행복물고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물고기 지느러미를 한지공예로 표현하는 일이 그다지 쉽지 않았어요. 기와무늬로 문양을 찍어내서 표면을 완성해 냈어요. 종이 성질이 입자가 엉켜있기 때문에 흙보다 다루기 힘들죠. 그래서 투박한 느낌이 있죠. 이를 세련되게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금강경 천수경 등을 독송하며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김 씨는 오늘도 연꽃을 통해 맑고 밝은 세상을 대중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12월 31일까지 담양 명지 미술관에서 열리는 김미선 작가의 '자연 속 그녀의 일상' 展에서는 '연잎 향기를 품다' 외 작품 56점이 선보인다.

김미선 작가는 호남대 예술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종이공예공모대전 금상, 한국국제미술대전 금상, 한국현대미술대전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전시로는 담양 슬로시티 김미선 초대전, 한중우수작가 초대전, 한일작가 50인전, 호주시드니 이스트우드 초대전 등이 있다. (010)2611-168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나 자신의 행복 찾기에 집중해야"

혜민 스님 '승승장구' 출연… 시청률 9.7% 동시간대 1위


혜민 스님은 12월18일 KBS 2TV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하버드대 학력을 버리고 출가한 이유와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과 행복론 등을 공개했다.

혜민 스님이 토크쇼에 출연해 솔직담백한 자기 고백으로 화제를 모았다. 시대의 멘토라 불리는 스님은 12월18일 KBS 2TV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하버드대 학력을 버리고 출가한 이유와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과 행복론 등을 공개했다.

'도시를 좋아하는 동네 스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혜민 스님은 전자기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스마트폰 SNS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는 '신상 멘토'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또한 스님은 근엄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찜질방과 라볶이를 즐기는 소탈한 일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라볶이를 먹을 때 어묵이 들어 있어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몰래 먹는다고 말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렇다면 혜민 스님이 출가한 이유는 뭘까? 스님은 "남몰래 에이즈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친구를 보고 감명을 받았고, 또 일상을 함께했던 친구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는 것을 보며 삶의 이유와 기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 그래서 수행자의 삶, 출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스님은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보다 나 자신이 행복한 것 찾기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혜민 스님은 몰래 온 손님인 KBS 2TV '개그콘서트'의 양상국, 김지민은 물론, '승승장구' MC인 탁재훈과 이수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 방청객들이 털어놓은 고민에 대해 추상적인 답변 대신 정곡을 찌르는 직언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날 방송 후 시청자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방송이었다", "혜민 스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감동했다", "좋은 마음 많이 배워간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승승장구' 혜민 스님 편은 전국시청률 9.7%(AGB닐슨미디어리서치 기준)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 했다.

정혜숙 기자

티베트 여가수 겔상추키 한국서 첫 음반 발매



티베트의 국민 여가수 겔상 추키의 첫 번째 앨범 〈Voice from Tara〉가 한국에서 발매됐다.

콘텐츠코리아는 1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 발매이래 10여년 만에 국내 처음 라이센스로 발매되는 앨범이다. 겔상 추키는 나왕 케촉과 더불어 티베트를 전세계에 알리고 현재 세계 월드뮤직분야에서 티베트의 전통음악을 보존하고 전파하고 있는 음악인"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앨범에는 티베트 고유의 전통음악과 창법을 토대로 피아노, 플룻, 바이올린 등 서구의 악기와 현대음악 요소를 조화롭게 접목했다. 또한 티베트 불교의 설법과 만트라에서부터 제14대 달라이라마에 대한 경배와 찬양, 제 6대 달라이라마의 사랑의 시, 망명생활을 하는 티베트인들의 조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유목민들이 손님을 접대할 때 부르는 공주가(供酒歌)에 등이 담겨져 있다.



불교공부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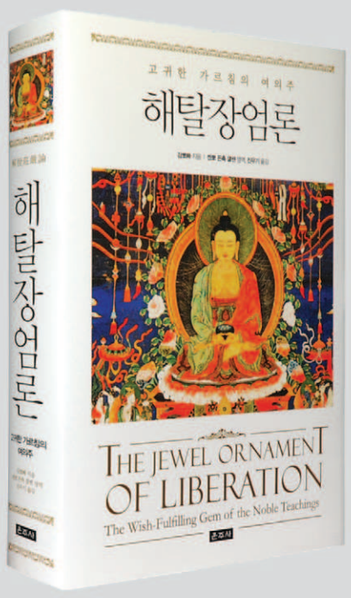
곽철환 편저/국판 양장/404쪽/20,000원

사전식으로 구성한 불교 입문서!

불교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표제어를 선정하고, 그 표제어와 관련되는 다른 항목들도 함께 설명함으로서 표제어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

고귀한 가르침의 여의주

해탈장엄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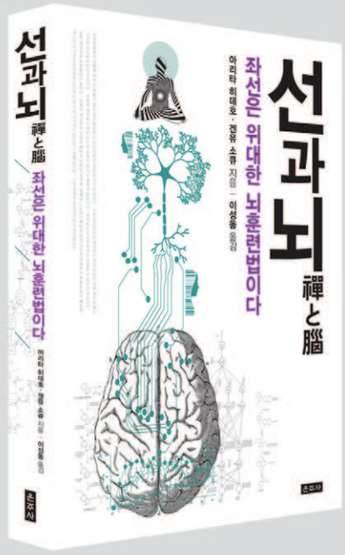


티벳불교의 대표적 수행서이자 기본 교과서!

불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에게 회향하기까지의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티벳 최초의 람림서!

감뽀빠 저, 진우기 역/ 신국판 양장/ 628쪽/28,000원

선과뇌



아리타 히데호 · 겐유 소큐 저/이성동 옮김/국판/252쪽/13,800원

좌선은 위대한 뇌훈련법이다!

뇌신경을 연구한 생리학 교수와 작가이자 선승인 임제종 승려가 과학적 실험과 선적 체험을 바탕으로 풀어놓는 좌선과 명상의 효과!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교음악의 르네상스 반드시 필요하죠”

제1회 불교음악상 대상…안국선원 지휘자 이찬우 씨


부산 안국선원 지휘자 이찬우 씨는 지난 50년 동안 청법가, 나는 불교꽃, 석굴암 부처님, 애착을 끊으라, 만자의 노래, 교성곡 ‘사월초파일’ 등 500여곡의 찬불가를 작곡했다.

“50년전 기독교인이었던 제가 친구의 제안을 받고 부처님오신날 공연에 참여하게 됐고 그것이 인연이 돼 운문 스님을 따라서 대각사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스님이 매일 하루에 한 곡씩 가사를 주면 곡을 썼죠. 이제 제 꿈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와 연주자를 섭외해 찬불 음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는 조계종이 주최하는 제 1회 불교음악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대상을 받은 이는 부산 안국선원 지휘자 이찬우 씨다. 1962년 경희대 음대 2학년생이었던 그가 운문 스님을 만나 불교와 인연을 맺고 그렇게 작곡을 시작했다.

엄숙한 절집 분위기도 향내도 모든 것들이 어색했던 기독교인 음대생이 대학 생활 내내 머리를 깎고 절에서 살며 찬불가를 작곡했던 이유는 뭘까? “같은 과 친구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부처님오신날 동국대 축제에서 찬불가를 만들어 발표하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당시 음대생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저도 기독교였지만 친구 부탁을 받고 반주를 했어요. 당시 친구를 지도하던 스님이 운문 스님이었고 그때 처음으로 스님을 알게 됐어요. 이후 스님이 찬불가 작곡을 부탁했고 제가 민요풍의 ‘나는 나는 불교 꽃’이라는 노래를 작곡해 보내주었어요”

당시 친구는 서울 대각사 어린이 합창단을 이끌던 운문 스님과 함께 찬불가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었는데 가정 형편상 계속 그 일만을 할 수가 없었다. 이후 이 씨는 친구의 자리를 이어받아 대각사에서 절 생활을 하며 찬불가를 작곡하기 시작한다.

“당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그렇게 생활을 시작했죠. 운문 스님께서는 찬불가 보급에 굉장히 적극적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스님과 함께 대각사 연화어린이합창단 단장으로 찬불가 보급을 시작했죠”

이렇게 만들어진 곡 중 가장 유명한 곡이 현재도 널리 불리고 있는 청법가다.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좌에 오르사/사자후를 합소서 감로법을 주소서/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이광수 작사 이찬우 작곡의 이 곡이 만들어진 과정도 재미있다. “무척이나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대각사에서 낮잠 잘 곳을 찾아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법당에 몰래 들어가 구석에서 누웠다가 한쪽을 보니 오래된 책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우연히 책 한 권을 집었는데 거기에 이광수의 청법가가 있었어요. 그렇게 곡을 부친 것이 현재의 청법가죠. 당시는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노래였어요. 찬불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이들 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불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되었죠”

하지만 현재 청법가는 최초 만들어졌을 당시와 다르게 가사가 변형됐다고 한다. ‘옛

연화어린이합창단 단장 시작으로
50년 동안 찬불가 보급 매진
청법가 등 500여 곡 작곡
최고의 찬불음반 제작이 서원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바로 이 대목에서 ‘이어서’의 작곡 당시 가사는 ‘잊도록’이라고 한다. “불교에서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으니 인연을 ‘잇는’ 것이 아니라 ‘잊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이어서로 바껴서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오류에 대해서는 前총무원장 故 지관 스님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시작된 이 씨의 찬불가 작곡은 지난 50년 동안 청법가, 나는 불교꽃, 석굴암 부처님, 애착을 끊으라, 만자의 노래, 교성곡 ‘사월초파일’ 등 500여곡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조용하고도 엄숙한 절에서 반주하고 찬불가를 부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격려를 해주는 스님들도 많았지만 절에서 노래를 부르면 스님들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운문 스님과 대각사에서 나와 삼각산·인왕산 자락의 작은 암자들, 개운사 등을 돌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고생스럽기도 했지요. 학교 가려면 산길 걷고 버스타고 전철 갈아타고 해야 했는데도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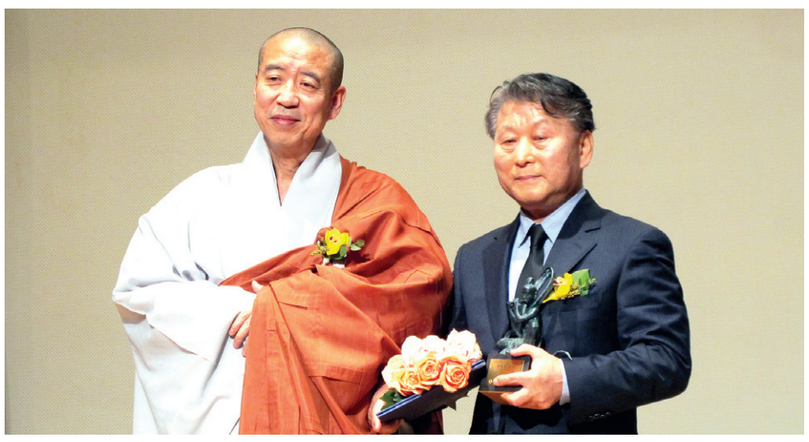
또한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와서는 마땅히 불교계에서 일할 곳을 찾지 못해 가톨릭계열의 단체에서 지휘를 하기도 했다. “정말 갈등이 많았어요. 생계를 이어야 하니 불교 비불교를 따질 수가 없었죠. 당시는 기독교 계통에서는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스님들이 찬불가라고 하면 그다지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제가 그때 스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20년 후에는 저를 찾게 될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20년 이 지나니 정말 찬불가가 활성화되고 이후 그것이 산사음악회 등으로 이어지면서 꽃을 피우게 되었죠”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불교계 찬불가의 현실은 척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는 이에 대해 불교 음악인들이 좀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말 많은 찬불가가 있지만 사람들이 부르지 않아요. 산사음악회에서도 찬불가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것이 대중들의 반응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좀더 노력을 해야지요.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곡들을 만들고 불러서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불가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중요하죠. 불교 음악의 르네상스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그는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곡들이 많다. 그래서 그의 가장 큰 서원은 조수미 같은 세계적인 가수와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한 음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아직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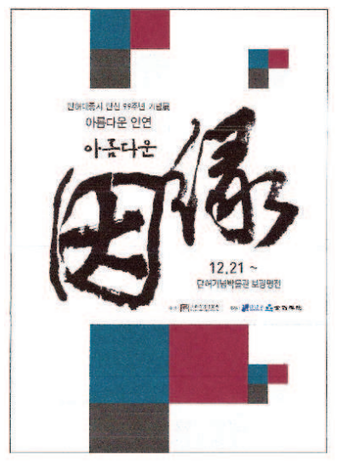
50년을 불교 음악에 바쳐온 거장의 서원은 그렇게 최고의 찬불 음반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의 서원이 그렇게 현실화 되기를 기도해본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찬우 씨는 지난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조계종이 주최하는 제 1회 불교음악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탄허 스님 탄생 99주년 기획전

‘아름다운 인연’…탄허박물관서



탄허 스님 탄생 99주년을 맞아 탄허기념박물관이 12월 29일까지 기획전 ‘아름다운 인연(因緣)’을 개최한다. 서울시 사립박물관 문화사업 지원 일환으로 열리는 이 전시는 탄허 스님의 유물 50여점을 비롯해 스님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가들의 작품 20여점을 전시한다.

탄허기념박물관 측은 “2011년 ‘탄허대종사의 흔적을 찾아서’展에 이은 탄허 스님 시리즈로 스님의 전인적 교육관을 통한 스님의 삶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2012년 탄생 99주년을 맞아 스님의 유물을 통해 불교문화의 발자취와 성과를 보여준다. 또한 한암 스님에서 탄허 스님,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으로 이어지는 근현대 불교사의 인연도 함께 되짚어 본다.

총 4부로 구성된 전시는 1부-열반, 2부-역경불사, 3부-입산 및 출가, 4부-재해석 그리고 확장 순으로 이어진다. 주요 전시유물로는 스님의 동방, 법문, 사적비문 등이며, 불교 현대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된다. (02)445-8486

정혜숙 기자

‘보존과학이 되살린 문화재’展

국립전주박물관…1월 6일까지


조선시대 청동추 처리 전(남원 실상사 출토)

과학의 발전과 문화재의 연관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이 ‘보존과학이 되살린 문화재’전(展)을 2013년 1월 6일까지 박물관 본관 2층에서 연다.

전시품은 박물관에서 2012년도에 보존처리를 마친 남원 실상사 조선 청동저울추, 순창 고원리 고려 납 저울추, 남원 월산리 출토 가야 토기 등 유물을 선별해 마련했다.

이밖에도 남원 월산리 출토 가야 토기와 익산 모현동 무덤출토 조선시대 철제바늘, 철제가위, 청동숟가락, 청동젓가락, 철제관정도 함께 전시된다.

이영범 학예연구사는 “유물 대부분은 표면에 이물질과 녹이 덮여 있어 형태와 질감을 잃어버렸다. 이 유물들이 긴 시간의 보존처리 과정을 통하여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손상된 문화재가 보존과학을 통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63)220-1043

정혜숙 기자

국립중앙박물관…유리 삼천년의 이야기

특별프로그램 마련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특별전시 ‘유리, 삼천 년의 이야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느끼는 유리, 삼천 년의 이야기는 특별전시와 연계해 2013년 1월 23일과 2월 13일 박물관 대강당에서 유리 전문가 이인숙 관장(한성백제박물관)을 초대한다.

가족 대상의 유리 만들기는 2013년 1월 26일, 2월 16일에 유리 장식품과 목걸이를 만들어 보는 2가지 테마로 운영된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고도 전시를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용 스스로 학습지가 준비되어 있다. 특별전시에 대한 문제와 해설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풀어보면서 전시를 즐길 수 있다. (02)2077-9296

2012년 동계정진법회 안내



선릉역 부근에 위치한 보림선원 서울선원에서는 2012년 동계정진 법회를 실시합니다.
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학인들을 개오(開悟)시키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하셨습니다. 재가자는 생업에 종사하고 혈연을 돌보면서 시간과 공간을 짜내어 공부해야 합니다.
철야정진 기간 동안 좌선과 설법을 통해 불교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거사풍의 공부방편입니다. 특히 이번 정진에는 백봉선생님의 육성설법과 녹취집을 교재로 하며, 아울러 일심행 서울선원장의 법문과 함께 학인들과의 개별 면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2년 12월 28일 (금) 오후 8시부터 2013년 1월 1일 (수) 오전 12시까지
- 내 용 : 참선, 백봉선생님 설법, 선원장 법문과 면담
- 주 제 : 예불송 반야심경 선문염송
- 장 소 : 보림선원 서울선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6-33) 선릉역 7번 출구 나와 200미터(3분 정도 거리) 커핀그루나루 좌회전, 오른쪽 두번째 빌딩 2층
- 회 비 : 1일 2만원 (참석기간에 따라 자유로이 납부가능 합니다.)
- 접수 및 문의 : 010-8751-6611 / 02-3452-3033
- 준 비 물 :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개인사정에 따라 하루나 이틀 참석하거나,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틈틈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좋은 공부인연 지으시기 바랍니다.

보 림 선 원 서 울 선 원 장 합장

“참된 부처님 제자는
이사理事에 걸림 없는 실력 갖춰야!”

한국 무문관 수행의 효시!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6년 결사 후 홀연히 사라진
전설적인 선사禪師를 박부영 기자가 발굴·추적하다



무문관수행의 전설
《석영당 제선선사》

박부영 · 원철 · 김성우 공저
신국판 · 양장 | 흑백
256쪽 |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구두선口頭禪을 떠난 실참 강조한 수행자의 사표師表

제선선사의 수행력은 추종을 불허하고 동서고금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극적이며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진력을 보여준다. 많은 공부인들에게 가장 큰 장애는 의심이다. 인간이 할 수 있을까, 과연 깨달음의 경지를 성취할 것인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에 의심을 한다. 그 점에서 선사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경지는 모든 수좌들에게 희망과 등불을 밝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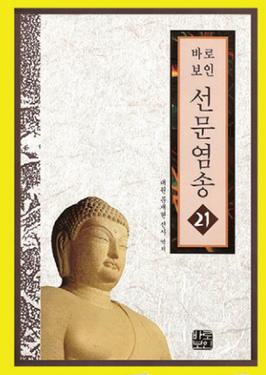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

부처 · 보살 등 주제별로 엮은 '佛典' 백과사전



경률이상
송성수 초역
오순호, 하혜정, 박연주 개역
동국대 역경원
각 2만 5천원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롯해 수많은 불법을 담고 있는 대장경. 막상 대장경을 공부하려 하면 그 방대한 양과 난해함에 손을 놓기 일수다.

동국대 역경원이 최근 발간한 〈경률이상〉은 이러한 대장경의 경(經)과 율(律)에서 요점을 각 주제별로 뽑아 출전을 표시하여 학습하는데 편리하게 엮은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이 책은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양나라 보창(寶唱) 스님이 무제(武帝)의 명을 받아 여러 불전을 주제별로 22부(部)로 나눠 50권으로 편찬한 책이다. 불법 홍포에 앞장 선 양무제는 불전 편찬에서 〈경률이상〉의 중요성을 느낀 것이다.

여기에는 전생담(前生譚)이나 신비한 고사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설화 782개가 담겨있다. 중국불교 최초의 유서(類書)로서, 주제어 사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책은 대부분을 인간세계에 대한 소개로 할당했다. 제1 천부(天部)와 제2 지부(地部), 제3 불부(佛部)부터 제19 서인부(庶人部)까지 전체 50권 중 42권 분량이다. 이 중 인간세계도 수행자와 일반 불교도로 구분했다.

불교 수행자 중에는 부처(佛部), 부처의 종족(諸釋部), 보살(菩薩部)과 승려(僧部)를 배치했으며 특히 승부(僧部)의 분량을 많게 하여 출가 수행자의 특별한 사례를 많이 소개하고 있다.

나귀로 태어나야할 처지에 놓인 제석이 삼보에 귀의하자 태 안에서 죽어 다시 본래 몸에 의탁한 일, 사리불과 목련이 신통력을 겨룬 일 등이 그것이다.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에 대한 분류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세속 권력의 최상에 위치한 집단인 국왕과 그의 권속이다. 국왕이나 왕비, 또는 왕자나 공주 출신으로 불교에 귀의하여 수행자가 되거나, 아니면 불교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예화를 뽑아서 소개했다.

또 장자부(長者部), 우바새부(優婆塞部), 우바이부(優婆夷部), 외도선인부(外道仙人部), 범지부(梵志部) 등이 배치됐다. 외도 수행자를 비롯해 바라문 등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 집단으로 출가한 수행자과의 일화도 담았다.

중국 양나라 때 보창 스님 편찬
전생담, 비유고사 등 782개 설화 담아
인간세계 · 축생 등 다양한 불교계 설명



목아박물관 소장 지옥극락도. 〈경률이상〉에는 불교 세계관의 수많은 설화를 주제별로 묶었다.

후반부에는 귀신부, 축생부, 지옥부로 귀신 지옥을 비롯해 다양한 들짐승과 날짐승을 분류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불전 속에 등장하는 예화를 소개하였다. 이중 축생부는 불전에서 행한 동물 분류와 동물에 대한 태도나 의미 부여를 알 수 있는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자 코끼리 말 소 여우 이리 원숭이 고양이 쥐 기러기 비둘기 학 꿩 까마귀 용 뱀 거북 물고기 벌레 조개 등 온갖 축생들에 대한 설화와 지옥에 대한 갖가지 이야기들은 불교에도 뛰어난 문학성을 지닌 작품들이 많음을 짐작케 한다.

〈경률이상〉은 고전연구와 한역경전 유통 연구에도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경률이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경전 중 상당수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 삼승명수경(三乘名數經), 천제석수계경(天帝釋受戒經), 과거탄금인경(過去彈琴人經), 절복나한경(折伏羅漢經), 선신경(善信經), 작독수경(斫毒樹經), 중생미연삼계경(衆生未然三界經) 등이 그러한 경전들이다.

역주본은 1992년 동국역경원에서 송성수 선생의 초역본이 나온바 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오준호 · 하혜정 · 박연주 등 한문 번역 전문가들이 참여해 오역을 바로잡고 한글화했다.

한편, 고려 고종 30년(1243년) 목판에 새긴 〈경률이상〉은 보물 제1156호로도 지정돼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2~12/18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4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정토
5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6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7	발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걷지 마라	덕일	작은숲
8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존 카밧진	불광출판사
9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공경원
10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	김영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금강경과 일상 둘 아닌 하나…핵심 가르침 정리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지음 | 공경원 펴냄 | 1만 9천원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은 경전 구절과 함께 108가지의 다양한 실생활의 실례를 들었다. 이를 통해 금강경 내용이 우리 일상생활과 둘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 책은 실생활을 통해 금강경의 내용을 풀어주는 일종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저자 김원수 씨는 지난 40여 년간 금강경을 수지독송해 왔을 뿐만 아니라, 스승 백성욱 박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도량을 세웠다. 그리고 자택마저 무료급식소로 내놓아 무주상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금강경의 구절이 도저히 해설되지 않을 때마다 금강경을 독송하며 "이런 경우에 스승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하는 의문을 되풀이 하는 기도를 하면서 난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

저자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가르침: 모든 세상의 현상은 내 마음의 그림자다 △공(空)의 가르침:번뇌와 고통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 번뇌나 고통은 참이 아니요 착각임을 알자 △불이(不二)의 가르침: 내 번뇌가 착각임을 알게 될 때 나와 부처는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된다 △구족(具足)의 가르침:내가 없으면 부처님과 같은 구족한 세상을 발견하게 된다.

저자 금강경 수지 독송 40년
대중들 위해 쉽게 내용 풀어

김 씨는 "이 가르침들은 금강경에 근간(根幹)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네 진리에 입각해 금강경을 해석할 때에만 비로소 금강경이 제대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실천 가능한 해석, 알기 쉬운 해석, 실생활에 응용하여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됨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해설서를 쓰기 몇 해 전 자시(子時, 0시)에 일어나 금강경 7독을 49일간 3회 공부했다고 한다.

김 원장은 "자시에 일어나 금강경을 7독 독송하게 되니 어렵게 느껴졌던 일들이 어렵지 않게 보이게 되었고 어둡게 보였던 세상이 밝게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잠에 대한 부자유가 자유로 변하였다. 3시간자도 사회생활에 별 지장이 없었으며 한 시간만 자도 무난하였고, 어떤 때는 일을 하면서 꼬박 밤을 세워 일을 하여도 지장이 없게 변했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15년 전에 처음 나온 후 저작권 문제로 법적 소송에 휘말려 절판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본래의 저자를 찾아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스승(백성욱 박사)께서 글을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나를 무척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이에 Y 교수의 이름을 빌려 책을 내게 되었는데 교수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유족이 인세를 요구해 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책은 절판 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저자는 또다시 금강경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었다.

그는 "그동안 금강경 공부를 통해 이제는 이 책이 다시 나와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을 알아게 됐다. 그것은 각종 고난이란 것도 착각이요 본래 없다는 공(空)의 진리와, 역경(逆境)과 축복(祝福)이 다르지 않다는 불이(不二)의 진리를 이제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심정을 얘기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분단' 현실 밀도있게 그려

국경

이정 지음 | 책만드는집 | 1만 3천원



"기래요? 기럼 리인철 기자라고 아시오?" 리인철? 뜻밖에도 내 이름이다. 하지만 낯설다. 두음법칙을 무시한 발음 때문이 아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북한 사람의 입에서 불러져서 그럴까? "저를 아세요?" / "선생이 리인철 기자?"/ "그렇습니다만." / "아, 반갑수다. 난 황철호라고 하오." 남한의 이인철 기자와 북한의 통전부 황철호 참사는 남북회담 취재 현장에서 만났다. 황 참사가 이 기자의 평양 방문을 도우면서 둘의 우정이 익어간다.

15년 동안 북한 사람들을 취재해온 소설가 이정의 분단소설로, 남한 기자와 북한 관리의 우정과 고뇌를 그리고 있다. 그 동안의 분단문학이 전쟁, 이산가족, 탈북자, 간첩 등을 등장시키며 제한적이고 옹색한 남북간 주민들의 만남을 소재로 다뤄왔다면, 〈국경〉은 남북 주인공이 평양과 중국에서 직접 만나는 현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저자의 생생한 체험이 바탕이 되고 있는 만큼 90년대 후반 이후의 남북 현실이 생생하게 반영되어 있다. 남북문제에 해박한 작가의 지식과 경험이 소설 속에 잘 녹아 있다.

주인공 이인철 기자는 황철호 참사관의 탈북

군법사 출신 소설가
평양 · 중국 15년 취재기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향한다. 이인철의 1인칭 시점인 소설은 남북의 만남, 방북 과정, 북한 내부 사정, 탈북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까지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개한다. 탈북자 황철호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기자를 통해 문화재 밀매를 감행하게 되는데, 문화재는 신라금관으로까지 발전한다. 한편 이기자는 백두산 밑 땅굴에 사는 탈북자 정연화를 도와 그녀를 한국 땅으로 무사히 인도한다.

소설은 현재 남북 간에 일어날 만한 일들을 통찰력 있게 그려나가면서 남북 분단의 아픔을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 현재형으로 전개해 나간다. 언론사에서 대북 관련 업무를 맡았던 그는 주인공 이인철처럼 1998년 8월 처음 북한 문화재 조사를 위해 방북했다. 현실의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복잡한 주변 상황을 소설 속에서 현장감 있게 그리고 있는 〈국경〉은 탈북자나 이산가족, 간첩이 아닌 북한 주민을 본격적으로 작품 속에 등장시키며 남북 교류 협력시대 이후의 남북 현실을 밀도 높게 그리고 있다. 우리의 분단 현실은 이제 양쪽 모두 지쳐가고 있고, '분단'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서 멀어지고 있다. 무언가 탈출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경〉이 '분단'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저자 이정

www.minjoksa.org

경전 강의시리즈 출간!

그동안 수많은 불자님들의 염원이었던 본격적인 강의 교재

경전강의시리즈는 다른 책과 다릅니다.
1. 대학승 · 대강백 스님들의 경전 강의 내용을 한 권의 책에 온전히 담아냈습니다.
2. 경전 원문과 그 독음, 번역, 강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어려운 한자를 골라내어, 그 독음과 뜻을 원문 바로 옆에 달았습니다.
4. 경전 강의를 들으며 직접 필기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충분합니다.
5. 한 권만 있으면 다른 보충 교재는 필요 없습니다.
6. 경전 강의를 하려는 선생님께, 경전 강의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 모두에게 교재용으로 적합합니다.
7. 실양장제책을 하여 360°로 짜악 펼칠 수 있습니다.

교재 01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
472쪽 | 25,000원



교재 02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624쪽 | 28,000원



대학승이신 성본스님의 금강경 강의!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반야의 지혜로 일체의 중생심을 끊어버리고 타파하는 경전이다. 성본스님은 절망과 무기력에 지친 현대인의 괴로움을 달래줄 긍정의 힘을 금강경에서 찾고 있다.

대강백이신 무비스님의 유마경 강의!
유마경은 출가 중심의 편협하고 왜곡된 불교를 철저하게 비판하여 대승불교의 참다운 뜻을 밝히고 있다. 무비스님은 갖가지 고민과 불행 속에서 헤엄치는 현대인의 아픔을 보듬어 공감하는 힘을 유마경에서 찾고 있다.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 240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왕초보 한문 박사 되다
김형중 지음 | 288쪽 | 12,000원



불교 한문 초보자를 위한 맞춤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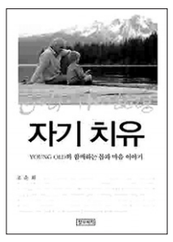
1. 최초의 불교 한문 공부 교재
2. 해석 방법과 문법 소개
3. 경전에서 예문을 발췌하여 소개함
4. 복잡한 그림처럼 보이는 한문, 이제 글자로 보인다!

2012 올해의 불서 10 (불교출판문화협회 선정)



















11월 28일 불교출판문화협회 심사위원회는 2012년 '올해의 불서 10권'을 선정하고 발표했다. 대상에는 민족사가 출간한 김재영 저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이 선정 됐다. 불교출판문화상 '올해의 불서 10'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 도서를 대상으로 했으며, 38개 출판사로부터 모두 64종이 접수됐다. **박재완 기자**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 김재영 / 민족사

올해로 학술총서시리즈 26년의 역사를 이어온 민족사 학술총서의 65권으로, 초기불교의 역사적인 전법 개척과 사회적 변혁의 과정을 통찰한 책이다. 민족사 학술총서 시리즈는 1986년 1월에 첫 번째 책인 〈한국조계종의 성립사 연구〉가 출간된 이후로 꾸준히 불교 전문 학술서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저자는 한국불교가 유래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면서 한국불교의 위기는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무엇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위기가 현실적으로 한국불교의 사회적 리더십의 부재와 사회적 역할의 상실에서 기원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한국불교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출가 중심의 선민불교를 대중 불교 · 대중 견성으로 개혁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즉 초기불교, 붓다의 역사적인 전법 개척과 사회적 변혁의 과정을 통찰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복원하고, 나아가 한국 불자의 사회적 리더십을 재활시키고자 했다. 책은 부처님의 삶이 시종일관 그의 치열한 사회적 문제의식에 의하여 추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 중심의 접근 방법을 통해 규명해 내면서 교리가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람이 문제라고 말한다. 결국 부처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불교운동이라는 것이다. 불교운동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교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교리가 그 중점에 있었다. 사람에 대한 연구는 거의 방치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없는 불교, 불교의 실질적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없는 불교가 무슨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저자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책은 그 연구의 결과물이다.

■우수상

〈한계를 넘어서〉 석담 / 동국대출판부

2011년 입적한 한국 비구니 승단의 가장 영향력 있는 스님 중 하나인 묘엄 스님의 생애와 현대 비구니 승단의 발달사를 볼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불교학 연구에 전념 중인 정인영의 책으로, 저자가 미국 버지니아대학 종교학과에서 쓴 박사학위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반세기 동안 한국 역사의 격동기를 헤쳐 온 묘엄 스님의 생애와 더불어 현대 비구니 승단의 발달사를 면밀히 고찰했다. 비구니 이부승구족계를 부활시키고 불교사 최초의 비구니 율원을 세운 원력 그리고 여성교육에 대한 확신과 의지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묘엄 스님의 이야기다. 문헌기록보다 구술과 구전에 의존해온 비구니 연구자들에게 자료의 수집, 분석의 방법, 그리고 해석 등의 전범을 제시한다. 묘엄 스님의 삶과 수행, 한국 비구니 승가공동체에 대한 생명력 넘치는 기록이다. 책은 묘엄 스님의 일대기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한국 비구니 승단의 재건과 정체성 확립 등을 조명하고 있다. 고문헌연구와 현장연구를 병행한 것으로 한국 비구니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 / 김영사

성철스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딸이며 제자인 저자가 처음 밝히는 성철 스님 이야기다. 지중한 인연으로 딸로 태어났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라 불러보지 못했고, 열여덟 살에 안정사 천제굴에서 뵌 순간부터 저자에겐 아버지가 아닌 스승이었던 성철스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성철스님의 가족사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선지식들의 수행에 대해 이야기하며 도의 길뿐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성철스님이 저자에게 일깨워준 지혜를 들려준다. 제자들을 뜨겁게 품은 은사 인홍 스님부터 온 대중들을 감화시킨 큰스님들의 법거량까지 담아 한국불교 100년의 역사와 치열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의 아름다운 모습까지 만나볼 수 있다. 그동안 불필스님이 개인적으로 소장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성철스님의 법문과 편지, 사진 자료들이 실렸으며, 과거에 가필된 형태로 발표되었던 성철스님의 친필 법문 노트가 원문 그대로 담겼다.

■우수 도서

〈생각나무1 · 2〉 스튜디오 돌 / 솔바람

제자가 스승에게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스승은 말한다. "고통이란 피하려고만 하면 잠시 동안은 기쁠 수 있겠지만 영원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네. 인생이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비오는 날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네." 부처님과 옛 성현들의 말씀을 알기 쉽게 만화로 풀이하여 엮은 책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책은 우리들 일상 속에서 문득 깨닫게 되는 삶의 지혜를 간결한 만화와 함께 담았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생각의 쉼터를 마련해 준다. 만화 속 주인공들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고 틀에 갇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준다. 작가는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으며,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에 모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입니다."고 책의 의미를 말했다.

〈자기치유〉 조순희 / 정우서적

영적인 치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책은 약물치료를 보완, 나아가서는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약물치료라는 생물과학적 근거와 명상이나 이완과 같은 심리학적 치료, 믿음이라는 영적인 치유를 각각의 질병에 따라 손쉽게 적용하도록 이끌어준다. 우리들은 흔히 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라는 말과 '치유'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와 치유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치료는 누군가(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이고, 치유는 스스로 낫는 것을 말한다. 병의 완치는 환자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95%이고, 나머지 5%만이 의사나 주위에서 도와줄 수 있다. 식생활, 운동, 마음가짐 등등.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 자신의 마음과 의지이다. 오늘날 발생하는 질병의 80% 이상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병 사망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암과 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에 따른 교감신경의 긴장으로 인한 것인데 우리 자신이 스트레스 경고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게 된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바깥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느라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으면 몸 안의 지혜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 준다.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어떻게 실생활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뺄뛸 린뽀체 / 지영사

티베트 불교와 그 수행법을 가장 잘 표현한 티베트 경전 중 하나인 〈꾼상라매샐룽〉의 번역본이다. '꾼상'은 '어떤 경우에도 선한'이란 뜻이고, '라매'는 '그 보다 높은 것이 없는' 또는 '스승'의 뜻이며, '샐룽'은 '구전 가르침'이란 뜻이다. 책의 부제는 '족첸의 롱첸닝틱을 위한 예비수행지침서'다. '족첸'은 인간의 원초적 절대적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롱첸닝틱'은 족첸을 위한 수행법을 말한다. 책 곳곳엔 '스승'에 대한 언급이 많다. 수행하는데 있어서 스승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티베트 불교에서 스승은 붓다와 같다.

티베트 불교는 대승의 교리와 밀교수행의 최종 단계를 계승한 것으로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티베트의 성취자들은 현교와 밀교의 광범위한 경전을 핵심 위주로 압축 요약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책은 그런 핵심적인 가르침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한 것으로, 현교와 밀교의 가교역할을 하는 안내서이다. 경전과 논서의 말씀과 종파를 초월한 성취자들의 가르침을 전하며, 속담과 고향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인용해 의미가 마음 속 깊이 와 닿을 수 있게 했다. 티베트 불교는 마음을 닦아서 열반에 이르게 하는 소승적 한계를 넘어 보리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티베트 불교와 그 수행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티베트 경전 중의 하나가 바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다. 불가(佛家)의 텍스트들은 대부분이 구전의 힘이 지켜낸 소중한 '가르침'들이다. 그 구전의 텍스트는 문자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문자의 모습을 한 당시의 살아있는 숨결인 것이다. 이번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역시 구전의 힘이 간직한 소중한 텍스트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결국 하나의 스승으로 귀결되는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설 경〉 김정빈 / 문학의 문학

1984년 출간된 〈단(丹)〉의 작가 김정빈이 27년 만에 내놓은 장편 구도소설 이다. 이번엔 팔만대장경을 비롯해 남방불교에 전승된 '빠알리 경전'과 티베트에 전해오는 '티베트 대장경' 등 3종의 불교 경전을 토대로 한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 이야기다.

"태어난 자는 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가?" 가족 모두를 잃게 된 열여섯의 라자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타인의 먼 죽음이 아닌 자신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절박한 '죽음'에 대한 답을 찾아 라자는 길을 떠난다.

책은 도리천에 난 천인 부부 라자와 시리마의 시점에서 시작된다. 경전을 바탕으로 한 〈소설 경〉은 부처님이 활동했던 기원전 4~5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초기 경전들의 이름들로 각 장을 구성했다. 특히 빠알리 대장경에 보이는 기사(記事)에 작가가 상상력을 더했다. 작가는 사상면에서 대체로 빠알리 대장경에 근거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하여 한역 대장경의 사상을 원용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부의 내용은 빠알리 대장경의 사상과 대부분 일치하고, 후반부에서는 빠알리 대장경과 한역 대장경의 사상을 혼합하여 반영했다. 저자 김정빈은 1984년에 소설 〈단〉을 낸 후 불교에 귀의했다. 그리고 2010년 그는 25년간의 구도기(求道期)를 통해 배우고 얻은 바를 문학적으로 형상화기로 결심하고, 1년 4개월의 집필 끝에 소설을 완성했다. 저자는 "단테의 〈신곡〉과 괴테의 〈파우스트〉,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서양문학들이라면, 〈소설 경〉은 동양 문명의 정수인 불교를 바탕으로 한 자기구원적인 문학이다."고 자신의 소설을 소개했다.

〈산사는 깊다〉 지안 / 불광출판사

승가생활의 면면을 보여준다. 기침에서 취침으로 이어지는 산사의 하루 풍경을 비롯하여 출가부터 다비까지 건너가는 스님의 일생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출가를 설명하면서는 저자가 직접 출가할 때 보았던 풍경과 마음을 회상하고, 묵언을 지키면서 음식을 먹는 공양을 이야기하면서는 인간 내면에 뿌리내린 구도 정신을 짚어낸다. 또한, 은사 스님이 금강산에서 목숨을 걸고 정진에 임했던 이야기를 통해서는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기회를 준다. 저자는 산사체험이야말로 불교 수행의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한다. 절집의 하루가 어떻게 짜여 있으며, 스님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들려줌으로써 마음으로 공감하도록 이끈다.

〈불교와 무의 근대〉 김영진 / 그린비

그린비 '불교사상 시리즈'의 다섯 번째 책으로, 청대 학술의 대가이자 혁명가였던 장타이옌의 생애와 그의 사상을 조명했다. 장타이옌은 물밀듯이 밀려드는 서양의 문물과 세력을 무(無)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장타이옌이 '무'(無)를 무기로 삼아 어떻게 전통과 근대를 비판하고 국가와 자본주의에 반(反)할 수 있었는지를 살폈다. 장타이옌에 관한 국내 연구가 활발치 못했던 실정에서 이 책은 중국근대혁명의 한 축을 담당했던 장타이옌을 새롭게 발견해 내는 동시에 그와 함께 거론되는 여러 사상가들을 통해 근대 중국을 형성한 사상의 흐름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가관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나'도 없다는 그의 무아의 윤리는 불교와도 이어져 있는데, 1907년 발표한 '오무론'에서 무사상을 정치 · 경제 전반으로 폭넓게 확대시켰다. 특히 그는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상업자본이 정치권력까지 장악하는 것을 경계했으며, 귀족을 대신해 자본가들이 인민을 억압하느니 차라리 평등한 전제정치가 낫다고 했을 정도로 그의 사상은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초월적 개체 '무아'를 통해 무의 대상으로 자기 자신까지 겨눈 그의 사상을 만날 수 있다.

〈만해 한용운〉 정수일 / 운주사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불굴의 투쟁정신을 보여준 독립운동가,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불교사상가이자 스님, 민족의 현실과 불교사상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시인인 만해 선사의 생애를 만화로 압축 구성했다. 금봉이의 해설과 함께 재미있는 만화를 보고 만해 한용운의 강직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명 '유천', 1879년 충남 홍성 출생, 14세에 서당 훈장을 한 그는 격동기에 민족과 조국을 위해 할 일을 찾아 집을 나서고 백담사에 이르러 연곡 스님을 만나 불문에 든다. 그의 계명은 봉완(奉玩) 법명은 용운(龍雲) 법호가 만해(萬海)이다. 경전 공부와 선수행, 일본 견문 등으로 1913년 〈조선불교유신론〉 저술, 〈불교대전〉(1914년) 편찬, 종합 교양지 〈유심〉 간행, 1931년 〈불교〉지로 불교개혁운동 전개 등의 활동상이 전개된다.

힐링 에세이 열풍, 주역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2012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독서의 해'다. 정부는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하루 20분씩, 1년에 12권 읽기' 캠페인을 벌였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출판계는 경영난에 시달려온 주요 서점과 도매상이 대부분 문을 닫았고, 연말에는 온라인서점인 대교리브로의 사업철수 소식까지 전해졌다. 2012년 출판계를 돌아본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에세이' 뜨고, '소설' 지고

2012년 출판계는 한 마디로 에세이 열풍이었다. 교보문고의 2012년 도서판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에세이 부분 판매 부수는 전년 대비 16.9% 늘어나고 판매액도 19.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에세이 열풍의 주역은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다. 130만 부가 팔려나가며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거기에 법륜 스님과 정목 스님의 에세이도 꾸준히 상위권을 지키며 에세이 열풍의 주역이 됐다. 이 밖에도 4개월 만에 70만부를 돌파한 안철수의 〈안철수의 생각〉과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도 꾸준한 판매를 기록하며 열풍에 가세했다.

이처럼 에세이가 강세를 보인 반면 소설 부분은 부진했다. 사상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 중에서도 국내 신간 소설의 부진이 가장 큰 부진이다. 전체 베스트셀러 100위권 안에 든 국내 소설 10권 중에서 올해 출간된 책은 박완서의 〈기나긴 하루〉, 이정명의 〈별을 스치는 바람1〉, 정이현의 〈사랑의 기초: 연인들〉 3권에 불과했다. 에세이가 열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의 활성화와 맞물려 위로와 공감을 원하는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라는 시장의 분석이며, 저조했던 소설 분야는 텍스트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 부진의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100만 부 이상 밀리언셀러 탄생과 빈익빈 부익부 심화

2012년은 '힐링(치유)'의 한 해였다. 출판계는 힐링 에세이 열풍이었다.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130만부가 팔린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 뒤에는 팔리는 책만 팔리는 '빈익빈 부익부'의 숙제가 있었다. 교보문고 분석자료에 의하면 에세이 분야의 전체 판매 부수는 17% 가량 늘어난 반면 종수는 매년 줄고 있어 최상위권 책의 판매 집중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박' 아니면 '쪽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한 해였다.

마음 · 명상 관련 번역서 봇물

'힐링' 열풍은 '마음'과 '명상' 관련 번역물로 이어졌다. 2004년 출간 이래 아마존닷컴 심리치유 분야 8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타라브랙의 〈받아들임〉이 불광출판사를 통해 출간되는 등 〈마음이 몸을 치료하다〉 〈명상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명상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놓아버리기〉 〈헤드스페이스〉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 〈꽃과 쓰레기〉 등 10여 종이 넘는 마음 치유와 관련된 명상 번역서들이 잇따라 출간 돼 출판의 한 축을 이뤘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에 불서 3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한 2012년 우수교양도서 '에 정운 스님 편역의 〈경전숲길〉과 자현 스님의 〈사찰의 상징세계〉, 주경 스님의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 3권의 불서가 포함됐다. **박재완 기자**

〈경전숲길-한 권으로 읽는 경전〉 조계종출판사

방대한 불교 경전 중에서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핵심 경전 19권을 한 권에 담은 책으로 경전공부에 엄두를 못내는 불자들과 독자들에게 반가운 책이다. 진리의 길, 삶의 지혜를 제시함으로서 불교의 기본 핵심을 담고 있는 초기불교 경전 5권, 기원년 전후 대승불교로 넘어가는 과도기 경전으로 서양 그리스 왕과 동양 비구와의 문답 형식인 밀린다왕문경, 출가자만이 아닌 재가자 성불과 인류의 사랑, 중생 평등을 내포한 대승불교 경전 9권, 중국에서 편찬되었다고 알려졌지만 불교의 진리와 지혜가 담긴 경전 4권을 시대별로 구성했다. 또한 각 경전의 해석이 끝나는 지점에선 해당 경전의 편찬 시기, 역경, 경전의 주요 사상 등을 정리해놓아 불교사에서 그 경전이 지니는 현대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게 했다. 부록에는 경전의 서술 방법과 사구게, 불교의 시대적인 구분과 경전결집 등 불교경전과 전반적인 불교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왔다. 책은 1장 숫다니파타부터 19장 부모은중경까지 각 경전을 적절하게 소개하고 있다. 2장에서는 법구경, 3장 아함부, 4장 대반열반경, 5장 육방예경, 6장 밀린다왕문경, 7장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8장 금강경, 9장 유마경, 10장 화엄경, 11장 보현행원품, 12장 무량수경, 13장 법화경, 14장 열반경, 15장 승만경, 16장 원각경, 17장 사십이장경, 18장 불유교경, 19장 부모은중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찰의 상징세계〉 불광출판사

2,000여 년을 넘게 전승되어온 불교 고유의 문화가 우리 사찰에 어떻게 담겨있는지 알려준다. 탑의 층수는 왜 홀수일까. 불상은 왜 금색일까. 등 평소 사찰에 다니고 있는 불자라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것들은 문답형식으로 설명해 놓았다. 사찰의 구조가 갖는 전체적인 배경의 공통점, 사찰의 각 전각들과 불화, 사찰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지만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해준다. 일주문의 기둥이 하나인 의미가 무엇인지, 수미단과 닫집에 담긴 상징은 무엇인지, 아라한은 어떠한 분인지 등에 대한 의문과 해답을 330여 장의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으로 풀어주고 있다.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 마음의 숲

마음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버리고 비우기, 담담하고 당당하기, 애정과 관심 갖기, 추억하고 소중히 여기기 등 모두 4장으로 구성하여 덜 먹기, 필요 없는 물건 버리기 등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버림과 비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삶의 본질은 견딤이라는 가르침과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이를 통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쫓고 쫓기듯 살아가는 자신을 내려놓고 고요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며,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을 배우고 익혀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책이다.

2012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불서 3종 뿐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 28일 발표한 '2012 우수학술도서' 312종 중 불서는 3종에 불과했다. 2011년 9종에서 크게 줄었다. 선정된 불교 학술서는 최종남 외 공저 운주사의 〈역경학 개론〉 무비 스님 저 불광출판사의 〈직지 강설 상,하〉 고혜련 저 일조각의 〈미륵과 도솔천의 도상학〉이다.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충담사가 「찬기파랑가」와 「안민가」를 지은 까닭은?

통치 근본은 백성에 있음을 알려



경주 계림에 세워져 있는 찬기파랑가 비. 충담은 찬기파랑가와 안민가를 지어 신라 혼란기에 위정자들이 청빈한 삶을 살 것과 백성을 위하는 통치를 하기를 주문했다.

1. 기파랑을 위한 헌가

신라의 향가(鄕歌)는 '시골 노래'가 아니라 '나라의 노래' [國歌]였다. 때문에 향가 속에는 당대의 시대상이 깊이 반영되어 있다. 신라인들은 오래 전부터 향가를 즐겨왔다. 향가는 노래 중의 노래이자 가사 중의 가사[詞腦歌]였다. 향가를 즐기는 이들이나 향가를 짓는 이들은 당시 최고의 문화인들이었다. 향가의 작자들은 대체적으로 왕?승려?화랑?여류?무명씨 등 여러 계층에 걸쳐 있었다. 그리고 현전하는 신라 향가의 작자들은 대부분 화랑과 승려들이었다. 충담사와 월명사는 승려이자 화랑으로 짐작되며, 또 월명사와 융천사 등은 승려이자 주술사로 추정된다. 반면 ?안민가?를 지어 바친 충담사의 경우처럼 설화와 함께 재구성된 가상인물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원왕생가?와 ?헌화가?의 경우처럼 작가의 이름과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신라의 극성기로 알려진 경덕왕대는 매우 혼란한 시대였다. 왕은 24년간 재위기간 동안 전제왕권을 꿈꾸면서 신하들과 적지 않게 충돌하였다. 신하들과의 충돌 속에서도 왕은 문화의 힘을 알고 즐길 줄 알았다. 『삼국유사』 소재 14편의 향가 중에는 경덕왕에 활동한 당대의 풍류 가객인 월명사와 충담사 및 희명에 의해 지어진 다섯 편의 향가가 들어있다. 충담사를 가상인물로 보는 이들과 달리 경덕왕과 대면한 실재인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삼국유사』「기이」의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조는 그의 실존적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목에는 「찬기파랑가」와 「안민가」 두 편의 향가와 표훈대덕의 신통력 그리고 경덕왕대의 시대적 상황이 밀도 있게 담겨 있다.

경덕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 되던 해에 오악(五嶽)과 삼산(三山)의 신(神)들이 때때로 궁전 뜰에 나타나 대왕을 모시곤 하였다. 3월 3일 날에 왕은 반월성의 귀정문(歸正門) 누각에 올라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누가 길에 나가 좋은 옷을 차려 입은 스님[榮福僧]을 모셔올 수 있겠느냐? 때마침 점잖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노닐 듯 지나가는 한 대덕이 지나가는지라 신하들이 모셔다 왕을 뵙게 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내가 말하는 좋은 옷을 입은 스님이 아니다." 그러고는 돌려보냈다. 다시 한 스님이 해진 장삼을 걸치고 앵통(櫻筒, 혹은 삼태기)을 지고 남쪽에서 오고 있었다. 왕이 그를 보고 기뻐하여 누각으로 맞아들였다. 앵통 속을 보니 차 달이는 기구가 가득 들어 있을 뿐이었다. 그는 대표적인 차인(茶人)이기도 했다.

왕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충담(忠談)이라 하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인가?" "소승은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이면 차를 달여서 남산 삼화령(三花嶺) 미륵세존께 공양하는데, 오늘도 차를 올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과인에게도 한 잔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곧 차를 달여 드리니 차맛이 특이하고 그릇에서도 특이한 향기가 풍겼다. 왕이 말하였다. "짐이 듣건대 일찍이 대사가 기파랑(耆婆郎)을 찬미한 사뇌가(詞腦歌)를 지었다는데, 그 뜻이 매우 고상하다 하니 과연 그러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짐을 위하여 「안민가」(安民歌)를 지어보게나." 충담은 곧 왕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쳤다. 왕이 가상히 여겨 왕사(王師)로 봉하려 했으나 그는 두 번 절하고 굳이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2. 다른 꿈을 꾸는 왕과 승

당시 오악과 삼산의 신들이 때때로 내려와 경덕왕을 모셨다는 것은 그 산을 중심으로 웅거하고 있는 세력들이 왕이 다스리는 신라사회에 편입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특히 신라는 대대로 오악과 삼산의 주재신들에게 국가적 제사를 지내오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 오악과 삼산은 국가적 제사의 대상이자 전제왕권에 통합된 고유한 세력과 신앙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신라의 왕실에 있는 왕에게 직접 내려와 왕을 모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전달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경덕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위 4년차에는 사정부(司正府)와 소년감전(少年監典) 및 예궁전(穢宮典)을 설치하고, 16년차에는 주군현(州郡縣)의 명칭과 편제를 개편하였으며, 18년차에는 병부와 예부 등 내외직에 걸쳐 편제를 개편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직 명칭을 모두 중국식으로 고쳐 전제정치를 공고히 하였다.

또 그는 표훈(表訓)과 신림(神琳)과 법해(法海) 등을 높이 받들어 그들로 대표되는 화엄계의 철학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경덕왕

신라 혼란기 경덕왕 때 지어진 향가
충담, 왕사 거절하며 백성아끼길 충언
왕이 행할 호법의 요체는 '만민 행복'

은 불국사와 석불사 조성 등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전제정치는 재위 4년차에 중앙귀족인 중시(中侍) 유정(惟正, 1년)의 퇴직을 촉발하였고, 재위 7년차에는 경덕왕의 총신이었던 이순(李純)이 세속을 버리고 단속사(斷俗寺)를 창건하고 승려가 되었다. 재위 15년차에는 상대등 김사인(金思仁)이 시정(施政)의 득실을 호되게 따졌고, 연이어 시중(侍中) 김기와 염상(2년) 등의 퇴직까지 재촉시켰다. 재위 16년차에는 월봉(月俸)을 통해 귀족들을 경제적으로 통제하려던 월봉제를 폐하고 귀족들이 녹읍(祿邑)을 기반으로 다시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녹읍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이렇게 되자 재위 22년차에 왕이 놀기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단속사 승려가 된 이순은 궁문으로 나아가 격렬한 충간을 하였다. 하지만 경덕왕의 전제정치는 계속되었다. 재위 33년차에는 왕은 상대등 신충(信忠)과 시중 김옹(金邕)을 한꺼번에 면직시켰다.

이들에 뒤이어 시중에 오른 이가 바로 김양상(金良相)이다. 그는 뒷날 경덕왕의 아들인 혜공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선덕왕(宣德王)이 되었다. 경덕왕은 귀족들과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반월성의 가장 바깥의 서쪽에 있는 귀정문으로 나아갔다. 왕은 전제왕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악과 삼산으로 대변되는 종래의 토착세력과 고유신앙과의 타협을 생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충담은 일찍이 자신이 존경하는 기파랑(耆婆郎)을 기리기 위해 「찬기파랑가」를 지었다. "열어 젖히매 벗어나는 달이/ 흰구름 좇아 떠가는 자리에/ 백사장 펼쳐진 물가에/ 기파랑이 스며 있어라./ 일오천 자갈벌에서/ 낭의 지니신 마음 좇으려 하니/ 아아, 잣나무가지 높아/ 서리 모를 씩씩한 모습이여."

이 시에는 기파랑의 고결함에 대한 충담의 존경의 염이 깊이 배어 있다. 동시에 충담의 결곡한 마음 또한 투영되어 있다. 이따금씩 경덕왕은 신라 영토를 대표하는 오악 삼산의 신들과 만나오고 있었다. 어느 해 가야의 영신제의(迎神祭儀)의 계욕일(戒浴日)인 3월 3일 날에 왕은 귀정문 누각에 올라 신하들에게 '영복승'을 모셔오라고 했다. 그는 왜 영복승을 불러오라 했을까? 그리고 모셔온 '영복승'을 자신이 찾는 이가 아니라며 돌려보냈다. 그런 뒤에 지나가는 한 스님을 맞아들여 차를 대접받았다. 그런데 왕은 충담이 「찬기파랑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임금을 위한 헌가

충담이 지은 「안민가」는 이러하다. "임금은 아비요/ 신하는 사랑주는 어미라. 백성을 어리석은 아이로 여기면/ 백성들이 사랑을 알리라.// 꾸물대며[탄식하는] 사는[뭇] 중생/ 이들을 먹여 다스리라./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면/ 나라가 보전될 줄 알리라.//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하면/ 나라가 태평하리라." 충담은 「안민가」를 통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책을 제시하였다. 왕이 가상히 여겨 그를 왕사로 책봉하려고 했으나 충담은 거부하였다. 「안민가」는 제목처럼 백성을 편안히 하는 노래이다. 안민은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 역시 강조하는 덕목이다. 불교는 전통적으로 호법과 호국을 강조해 왔다. 불법을 따르는 통치자는 불법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호법'의 주체는 왕이며 '호국'의 주체는 교단이다. 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은 모든 국토에 거주하는 일체의 인민이다. 즉 왕은 국토와 인민의 수호에 본래 의무가 있으며 '호국'의 '국' 역시 '국토 안에 사는 인민'을 뜻한다. 신라 당시 불교가 통치이념이었음을 감안하면 「안민가」를 불교적 안민호국(安民護國)사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유교적 법식에 의해 다스려졌던 시대임을 감안하면 유교적 안민호국사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논어』「안연」(顔淵)편의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한다"[君君, 臣臣, 民民]는 구절로 보면 유교적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불교의 『금광명경』「사천왕호국품」이나 『인왕경』「호국품」은 모두 불법을 보호하는 왕들이 취해야 할 '호법'과 불자들이 나가야 할 '호국'에 대해 설하고 있어 불교적 해석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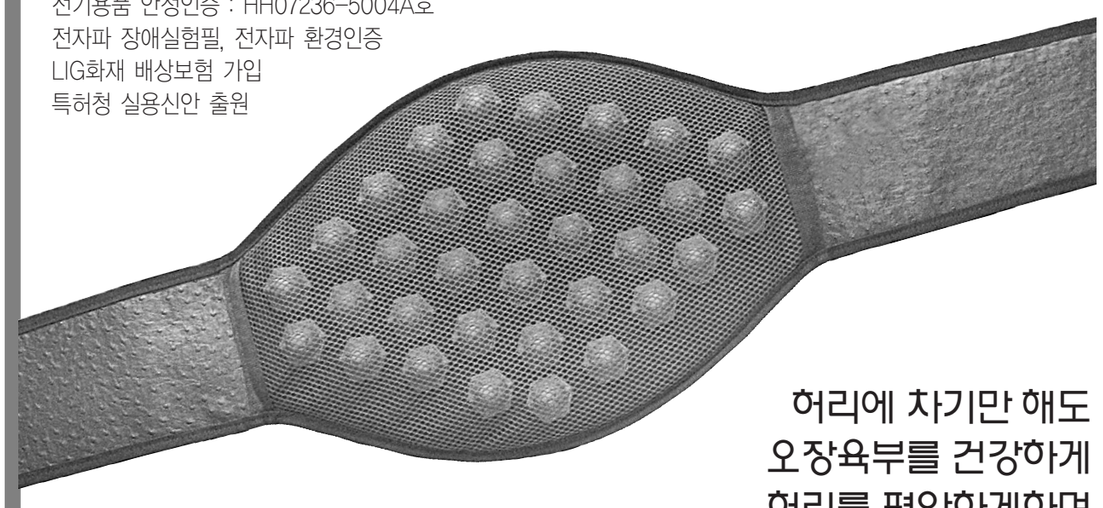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경덕왕 대는 천재지변이 극심하였다. 특히 가뭄(4년, 6년, 13년)과 지진(2년, 24년), 우박(4년, 13년), 폭풍(8년), 태풍(22년), 낙뢰(6년, 17년), 혜성과 요성과 천구성 등 하늘세계의 혼란(3년, 7년, 18년, 20년, 23/23년, 24/24년), 흉년(6년, 14년), 귀신이 북치는 소리(19년) 등 갖은 변화가 생겨났다. 신라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백성들의 삶은 궁핍하였다. 또 "백성들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나라를 버리고 신라를 벗어났다"고 일본의 서책에서 기록하고 있다. 경덕왕 이후에도 잦은 흉년이 들었으며 흥덕왕 대의 향덕(尙德)은 다리를 베어 부모를 봉양하였다고 전한다.

이처럼 충담의 「안민가」는 바로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이 급선무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탄식하는 뭇 창생'들을 '먹여 다스리는 것'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라는 탄식을 잠재우고 '나라를 보존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일갈하였다. 가족의 관계처럼 '임금은 아버지'이고, '신하는 사랑하시는 어머니'이며,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할 때 비로소 '백성이 사랑을 알리라'는 이 노래는 왕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배불리고 등을 따뜻하게 하라고 외치고 있다. 쓸 데 없이 재원을 낭비하지 말고 백성들을 혹사시키는 공역을 시설하지 말며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일부터 하라고 말이다. 「안민가」는 나라를 보존하는 길은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일'[愛民]과 '백성을 안돈하는 일'[安民]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김부식, 『삼국사기』, 신호열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양주동, 『고가연구』(일조각, 1975).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서울대출판부, 1983).
이도흠,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푸른역사, 2000).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한국학술정보(주), 2012).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브라만의 학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부처님, 부디 저를 온갖 의혹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여, 나는 어떤 누구라도 의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대가 으뜸 가는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그때 그대 스스로 의혹의 강을 건너 의혹에서 벗어나라."
– 숫타니파타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무속 선, 앉은거리 장단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정선문 미래연구소
사 작 택
주 명 일
사주명리학 수강생 모집
실전 강의
02)733-8889
017-402-7848
종로 견지동 조계사 바로 옆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 434-5990
010-8730-5690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고려불상석불
개인 소장
원하시는 분께
판매하고져함
010-3591-7761

관상 · 손금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개인지도 (나이 관계없음)
스님특별지도
철학원,포교원,무속인,일반인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강의함
대학교 강의중. 사찰 무료로 보시함
010-4014-8822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천명리강의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전수생 모집
사주 명리학, 천고비전 육임학
기초에서 실기까지
육임은 백법까지
성심껏 지도해 드립니다.
031)642-6011
011-729-6011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발명특허 출원내용 : 뒤 틀인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하는 운동기법 디스크, 협착증, 좌골신경통,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 증, 척추측만증, OX다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운동법
배울 분, 받을 분 한번 오시면 해결가능
혜경선사 011-829-7582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강사
010-2418-6222

화림 황토, 상황 氣 훈증 좌훈 침대
누워서 허리 뜸,
배에는 단전 뜸, 앉아서 좌훈 뜸
특허번호 제10-2011-011722호
상표번호 제40-2011-0070302호
디자인번호 제30-2011-0053572호
웰강 www.wellgang.co.kr
가맹점 개설문의
011-573-4438

염불 잘하는
스님이 의식 집전해
드립니다
천도재,49재,바라,
나비, 회심곡
010-6569-10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나이제한 없음)
055)835-8656

빙의,영가,영적장애
몸, 마음, 영혼 치유
해 드립니다
용음사 주지 합장
051)724-6869
010-5538-5570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40~60세 이하)
011-875-6317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심 와 기 도
• 神과 疏通하는 기도가 심와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북갤러리출판
값 13,000원 (전국서점판매)
전화 주문 031-842-8023. 011-772-4606
농협 552-01-047918(대한불교비룡정사)
내용 (1)마음의 치유 (2)빙의퇴마 (3)무당 (4)사주팔자

청정한 **남해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멸치**와 **멸치액젓(맑은 액젓)**을
자신있게 불자님과 모든 분들께 직거래로
소개하여 드립니다.
055)867-2259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영가찾는 법 교육생 모집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 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백암역리원 동작구청(우리은행)옆
02)597-1101 / 011-9150-2284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호주, 이스라엘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점성(占)비법 전수자 모집
1. 吉凶 영가찾기 2. 이름작명 (한자速成학습법) 3. 풍수
* 스님 특별강좌 * 타로교육
◆ 역 술 상 담 법 ◆
• 기 초 반 : 4주 완성 (선착순 8명) / 교재비 포함 5만원.
• 고 급 반 : 24주 완성
• 점성영업법 : 6주 완성 (선착순 3명)
• 특전 : 사단법인 한국역술협회,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상담자격증 취득됩니다.
전화 02)977-1389 (수시상담 가능)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인슐린 개발
10여년간 당뇨로 고생한 김성용 대표가 직접 체험해 보고 모모르디카(여주)환 개발. 직접체험 보다 더 정직한 건 없어 곧바로 이름 걸고 개발 성공, 당뇨부터 고혈압까지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제집중!
식물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문의 : 080-598-9832
희소식
기적의 나무 모링가 (MORINGA)
모링가는 적어도 49가지의 천연식물성 영양소 합성물 부작용이 없는 240가지의 노화방지체, 36가지의 항염증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자연 그대로의 것들이다.
모링가는 암 세포의 증식을 막는 분자 집합체인 피이토케미컬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출처 : Faizi et al 1992)
장(腸)은 인체의 거울이다.
쾌변(숙변)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쾌변(숙변)할 수 있지요!!!
맥스모링가로 대장(大腸),
소장(小腸), 쾌변(숙변)
체지방 감량(비움) 해독작용 영양 발란스!!!
변비와 설사의 교대증세 산성체질이나 질병 체질을 건강한 체질로 개선 시킬 수 있다.
www.maxbio.co.kr
사무실 02)875-8858 / 공장 031)534-9835
맥 스 생 명 공 학 (대리점 모집 중)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보성정사
• 주 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941번지
• 법 명 : 정 수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반야사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2128번지
• 법 명 : 법 정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대한불교 미타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광덕사
• 주 소 : 경남 거창군 주상면 빼재로 1112
• 법 명 : 청 우 (정득화)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60
- 대지 : 230평
- 산신각 기도처
- 가액 : 20억

- 위치 : 금산
- 법당 : 20평
- 요사 : 40층
- 총 : 560평
- 가액 : 1억8천
- 최고 보시면OK

- 위치 : 서울
- 인법당 : 25평
- 가액 : 1억 3천
- 전세. 월세 급구 연락 주세요.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기타건물 : 60평
- 부지 : 740평
- 가액 : 10억

- 위치 : 강원도
- 법당 : 15평
- 요사 : 35평
- 부지 : 64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경기도
- 법당 : 24(목)
- 요사 : 45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3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235평
- 법당(2층) 30평, 요사채(2층) 80평
-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 6억 3천만원

울산 근교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 2,400평(관리지역)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주차장 200평
- 총금액 : 6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갓바위 부근
- 대지 : 385평, 건평175평(2층건물 2동)
- 법당 52평, 종무소 52평, 요사채 71평
- 4차선 국도인접, 전망좋음
- 가액 : 6억 5천만원

016-874-8885/053)853-5539

종 교 관 련 시 설 터

- 요양시설, 수련원, 선방, 포교원 등
-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자락)
- 평수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 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곳
- 가액 : 15억
- 신축도 가능합니다

011-372-7744

도심포교토굴

-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내
- 평수 75평, 단독
- 전망 좋음
- 총가액 2500만원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협의가능)

광 양 토 굴

- 위치 : 전라남도 광양읍
- 평수 100평
- 법당, 요사채 4개
- 총가액: 2000만원
- 보증금 무/년 100만원
- 모두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시설완비

010-5439-300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 (황금동에서 차편 약 15분)
- 대지 : 도지료 연 35만원
- 건물 : 독채 32평, 개인 등기 필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좋은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시설.생활 편리함
- 가액 : 6천 8백만원

054)435-1259

밀양 암자 안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주위
- 자연경관 수려함 (폭포, 계곡 등산로)
- 면적: 8000평(종교용지 25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7억 (협의)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시 오라동 공항에서 10분거리 아름다운 사찰
- 평수 : 340평
- 집은 3동
- 가액: 7억

018-590-3583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6억 5천만원(전세가능)

010-2610-999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동래전철역 도보 5분거리 대로변 아파트 단지 및 금정시장
- 3층 건물 중 2층 40평
- 극락전, 지장전, 나한전, 시왕전, 산신용왕전. 시설완벽
- 큰절 소임관계로 (급)양도 또는 전월세 가능

010-2531-1961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 대지 175평(법당 20평, 요사채 22평)
- 아미타불 도량, 산신용왕
- 백년 된 대추나무, 은행나무 돌탑
- 비구니 스님, 안주하기 적합한 도량
- 가액: 1억 1천만원

010-8503-5769

도심과 산속의 만남 포교원

- 위치: 대구 (역 도보 5분거리, 시장 5분)
- 현재 법회중이며 3층 건물(50평) 옥상(50)
- 법당(20평) 방2, 친견실1, 주방(집기일체)
- 부처님(金)삼존불, 신중, 칠성각, 영가단, 각단후불도, 부처님 지신사리
- 모두(5천) 부족하더라도 오세요
- 불사관계로 양도함
- 토지 및 사찰 교환도 가능

010-6892-39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시내IC10분거리
- 대지 : 500평. 등기필
- 주변 산세좋음
- 대웅전, 요사채, 황토방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1억 8천만원

054)337-3687
017-517-368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신도시 내
- 6층 건물 중 3층
- 실평수 118평(분양 190평)
- 가액 : 4억(융자 1억 포함) 시설비 3천만원(조절가능)

010-6328-395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정읍 근교
- 대웅전 25평, 지장전 25평, 삼성각 4평
- 요사채 3동, 약 80평, 방11칸, 종각 4평
- 대지 500평, 전 1300평
- 조건. 관등록을 전재로 함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함
- 싯가 4억 상당의 사찰을 사정상 반값에 양도하려합니다

010-7149-636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불심이 깊은 대구(송현동) (남대구 IC에서 10분거리. 주차장완비)
- 2층 중 2층 70평, 옥상 70평 사용가
- 법당, 방 3개, 화장실 3칸, 공양간
- 보증금 1천만원 / 월 60만원 시설비 2800만원(절충가)
- 큰병원 및 시장, 서부정류장 (유동인구 많습니다)

010-3672-8424
010-9431-4959

사 찰 안 내

- 위치 : 합천 초계면 삼거리 잘하실분
- 3층 180평, 대지 350평
- 산아래 2차선 3거리 (권율장군 역사공원 예정지앞)
- 가액: 2억 8천만원
- 주인직접

010-2708-18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3층 약 50평
- 모든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51)506-40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서구 구봉산 등산로
- 대지 61평, 건평 78평
- 전망이 좋음
- 삼존불, 후불탱화
- 가액: 2억 6천 5백만원

010-6668-2249

도심 속 조용한 절

- 위치 : 동대구역 부근
- 반양옥 48평
- 1층 : 법당 , 방1개, 공양간1개, 화장실 3 • 2층 : 방2개
- 삼존불, 소불 108위, 집기 및 비품일체
- 보증금 3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200만원

010-4083-9912

급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종교용지 800평
- 양도가 8천만원
- 160평 건축 허가 가능

010-5488-3171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가는 곳
- 황토집
- 재가분 참선 염불선 기도하시는 거사님 보살님 환영
- 전세 2500만원

055)884-1491
010-2563-691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 금곡역에서 5분거리
- 3층 건물의 2층
- 평수 35평
- 법당 1, 방 2, 화장실1
- 보증금 3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4500만원

011-448-2159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초량동(도심)
- 대지 200평
- 건물 2층짜리 3동인데 한동은 1층은 종무소 2층은 기와법당 30평 그 외 건물은 2층짜리 현대식으로 요사채 2동임
- 불교대학이나 요양도 가능
- 몽땅 6억 5천만원(조정불가)

010-2864-195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 2층 35평 • 법당, 삼존불
- 방2, 주방기구일체
- 갓바위 108소불, 주차장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포함시설비일체
- 가액: 2천5백만원

011-520-8525

도심속의 사찰

- 위치 : 부산시 청학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비구니 스님 적격임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 2층 : 법당과 스님방
- 가액: 2억9천만원(수정부분)

010-3732-523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 부언동 문수사
- 건물평수 50평(방3칸)
- 시설: 소불 96불 부처님 3불 (냉장고, 에어컨 모두 포함)
- 몸만 들어오면 됩니다
- 시설비 2000만원 (시설비는 보고 가격절충)
- 사정상 급 양도

010-6349-593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동대구역 부근
- 반양옥 48평
- 1층 : 법당 , 방1개, 공양간1개, 화장실 3 • 2층 : 방2개
- 삼존불, 소불 108위, 집기 및 비품일체
- 보증금 3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200만원

010-4083-9912

급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종교용지 800평
- 양도가 8천만원
- 160평 건축 허가 가능

010-5488-3171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가는 곳
- 황토집
- 재가분 참선 염불선 기도하시는 거사님 보살님 환영
- 전세 2500만원

055)884-1491
010-2563-691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 금곡역에서 5분거리
- 3층 건물의 2층
- 평수 35평
- 법당 1, 방 2, 화장실1
- 보증금 3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4500만원

011-448-2159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초량동(도심)
- 대지 200평
- 건물 2층짜리 3동인데 한동은 1층은 종무소 2층은 기와법당 30평 그 외 건물은 2층짜리 현대식으로 요사채 2동임
- 불교대학이나 요양도 가능
- 몽땅 6억 5천만원(조정불가)

010-2864-195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 2층 35평 • 법당, 삼존불
- 방2, 주방기구일체
- 갓바위 108소불, 주차장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포함시설비일체
- 가액: 2천5백만원

011-520-8525

도심속의 사찰

- 위치 : 부산시 청학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비구니 스님 적격임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 2층 : 법당과 스님방
- 가액: 2억9천만원(수정부분)

010-3732-523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안산시 월피동
- 평수 : 26평
- 법당완벽한 시설로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010-3662-552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금곡동
- 대지 : 200평
- 법당 : 60평
- 요사 : 150평
- 양도 : 18억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220평
- 법당 : 90평
- 요사 : 60평
- 양도 : 6억5천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고불,석불, 불사 010-4586-4525 골동품,위탁 알선합니다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 평수 : 2층건물 38평
- 1층 : 공양간및 주방 방 3칸 2층 법당
- 그린상가지역, 도시가스 설치
- 지하철 1~2분 거리
- 가액 : 2억 2천만원(시설비 없음)

010-3578-4993

포교원(급)안내

- 대구시내 아담한 단독 주택
- 법당, 방3, 주방2, 다용도실
- 보증금 3백만원, 월 25만원
- 현재시설 그대로 양도함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운영
- 시설 양도금 1400만원

011-458-2955

포교원안내

- 위치 : 강북구 송천동 4거리 기업은행앞
- 2층 25평, 법당, 상담실, 방, 거실겸 주방, 욕실, 에어컨 2대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1200만원(조정가능)

010-9469-368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남항동 2가 213-5
- 남항시장옆 대평초교앞
- 3층건물 2층 38평
- 전세 500에 35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법당, 사무실, 주방, 욕실

010-8440-109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 상가건물 4층 전체 약 42평
- 법당1, 방2, 화장실, 엘리베이터
- 시설 살림살이 일체 3500만원
- 보증금 1500만원, 75만원
- 최고시설
- 답사후 절충가능(시설비)

010-6674-1356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200평
- 법당 : 60평
- 요사 : 150평
- 양도 : 18억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220평
- 법당 : 90평
- 요사 : 60평
- 양도 : 6억5천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고불,석불, 불사 010-4586-4525 골동품,위탁 알선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유지 포함 사용면적 약500평
- 총 2억 7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절충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0-8725-3196

가까운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사상역 시외터미널 건너편
- 건평 60평, 시설 멋짐
- 전세 1800만원, 월 45만원
- 비품대 1500만원 4층건물에 2층

010-3590-6329
010-8548-8608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금호읍
- 경주. 포항 20분대 대구 15분시내 IC 3분거리
- 평수: 203평. 인법당. 삼성각. 용왕당. 기도방
- 요사채 방 4, 욕실1, 수세식화장실2, 현대식주방
- 300년 고목 약나무 지하온천수매장. 개발가능
- 비구니스님 거쳐로 용이함
- 양도가액은 만나서 협의를 원함

010-7473-688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구포 2동
- 독채: 임법당(18평), 방 4개, 창고 1
- 80년 이상된 사찰 아미타불(동불석자)
- 후불탱화, 신중, 칠성, 영단탱화
- 인등 100등 이상, 1년등 150등 이상
- 산신각, 용왕당, 법당집기 일체 • CCTV 4대, 에어컨 3대 (지하철, 시내버스 1분거리) 현재 법회중(포교의 최적지)
- 시설비 2천 5백만원 (절충가능)
- 보증금 천오백만원 월 35만원, 불사 관계로 양도

010-3783-3606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5.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형식을 고집하는 사람은 잡다한 생각과 갖가지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변명이나 잡다한 생각 따위를 늘어놓지 않는다. 그는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도 그를 오염시킬 수 없다 – 숫타니파타 –

자기치유

조순희 (약사 · 철학박사)

〈4 · 끝〉 마음이 지닌 치유의 힘

청정한 믿음은 '수정주'… 질병 치유의 힘 지녀



치유과정에서 마음의 역할: 선심소(善心所)

약물은 인위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기에 따라 질병을 낫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마음이 지닌 치유의 힘을 자연치유력이라고 부른다.

마음의 작용에는 그 작용이 반대되는 선심소(善心所)와 번뇌심소(煩惱心所)가 있다. 이들 심소에 따라 병이 생기기도하고, 치유되기도 하므로 여기에 따라 인간의 고통과 즐거움이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병의 치유에 있어서는 선심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마음인 신심(信心)이 가장 중요하다.

〈성유식론술기(成唯識論述記)〉에서 신(信)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해 신을 수정주(水精珠)에 비유하기도 한다. 여기서 수정주란 아무리 혼탁한 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넣으면 맑아지게 되며 모든 것이 밝게 비칠 만큼 청정하게 하는 기능을 지닌다. 우리가 갖는 신심도 수정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신은 믿는 마음을 동반하는 마음 전체를 보다 청정하게 하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병을 치유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마음이다.

신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 좋은 결과가 생기며 자신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능(功能)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탐진치가 없는 마음인 무탐(無貪) · 무진(無瞋) · 무치(無痴)의 세 가지는 병을 객관적으로 보고 고통이 있어도 이를 참는 자비로운 마음이며 병의 현상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정신이다. 그리고 나머지 성실하게 노력하는 근(勤)의 심소, 병에 걸리게 된 자신의 나쁜 습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참(慙)의 심소, 병에 걸렸을 때 회복하기 위해 잘못된 습관을 뉘우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괴(愧)의 심소, 게으르지 않은 마음으로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근(勤)의 심소, 병에 걸리게 된 자신의 나쁜 습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참(慙)의 심소, 병에 걸렸을 때 회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습관을 뉘우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괴(愧)의 심소, 게으르지 않은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해 간다는 불방일(不放逸)의 심소도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생긴 병을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바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마음이 가볍고 안락한 상태인 경안(輕安)과 산만하게 치우치지 않는 마음인 행사(行捨)의 심소는 몸과 마음이 무거운 것을 떨치고 마음의 동요를 없애고 이완시켜 몸의 면역기능을 높임으로써 자연치유력을 증가시킨다. 이와 같이 선심소는 어느 하나의 심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을 바탕으로 해 11가지 심소 모두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병의 치유에 관여하고 있다. 탐(貪) 등의 근본번뇌와 분(忿) · 한(恨) · 뇌(惱) 등의 수번뇌를 시 등의 선심소로 대치(對治)함으로써 병을 치유할 수 있다.

명상치유의 실천: 사마타와 위빠사나

명상법에는 지(止)와 관(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을 통합해서 지관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명상과 관련해 보면 사마타(śamatha)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반복해서 지향하는 것으로 안정시켜서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며, 삼마디[三昧]라고도 한다.

위빠사나는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 두가지 가운데 서양의 의료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완반응법은 사마타가 주로 활용되고, 마음챙김 명상법은 위빠사나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념처 수행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사마타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 안정시키는 것이고, 위빠사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일어날 때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마음은 많은 대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을 진행해 가고 있지만 인식의 주체인 마음보다는 오히려 대상들에 의해 마음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몸도 반응하고 있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대상들에 의해 결국 몸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게 돼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대상들에 의해 심장박동수가 빠르게 되고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역으로 진행해 마음에서부터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벗게 되고 평등성을 유지하거나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몸의 변화에 속하는 심장박동수가 빠르게 되고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스스로 심장박동수를 바꿀 수 없으며, 혈압을 높이거나 낮출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초월명상 · 이완반응법 · 마음챙김 명상법 등을 수련함으로써 마음의 변화를 통해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서양의 의료현장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면, 대상에 대한 집착을 떠난 마음은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며, 마음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한 정신통일의 상태인 지(止)에 의해 심신의 편안함을 이루고, 몸과 마음의 현상으로부터 연기 · 무아 · 중도 · 진여의 이법(理法)을 통찰하는 관(觀)으로써 몸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해 병의 치유에 이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생명의 세계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지관수행의 목적은 심신의 경안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경안을 얻은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며 이를 유식학에서는 심식(心識)의 변화를 의미하는 전의(轉依)의 완성이라고 한다. 전의란 마음을 근본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몸과 마음에 구속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를 가져온다는 것이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구속하는 마음속의 집착을 제거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사마타는 만트라나 어떤 특정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명상이고, 위빠사나는 지금 이 순간 마주하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이때 일어나는 생각 등에 대해 어떤 판단이나 해석을 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강조하는 명상이다. 따라서 지관명상이란 일차적으로 마음을 어느 하나의 대상에 모으는 훈련을 통해 삶의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고요히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내적 평온함이 극대화돼 고통이 사라지고 치유효과를 최대화한다.

자기집착 버려야 질병 사라져

실제로 스트레스 관련 질병은 거의 대부분 자기집착심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그들의 생활습관 속에서 형성된 자기집착은 몸가짐에서 마음가짐에 이르기까지 고정돼 있으므로 몸의 자세 · 습관화된 호흡 · 마음가짐 등도 고착돼 심신의 긴장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병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자에게는 그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일이 필요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체의 마음을 쉬게 하고 긴장된 부위를 이완시키는 지속적인 몸의 훈련이 필요하다. 지(止)와 관(觀)을 통한 불교의 명상치유는 이러한 몸의 부조화와 잘못 만들어진 자기 집착에 의해 초래한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마음에는 선 · 번뇌심소 있어
병 생기거나 자연 치유 가능

일체의 마음 쉬는 훈련 필요
명상은 구체적인 방향제시

병이란 현상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병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는 현상으로서의 병에 머물지 않고 병의 실체에 집착함으로써 고통스러워 한다. 그러나 병도 현상적인 무상한 것임을 통찰한다면 병은 더 이상 정해진 실체가 아니므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며 이러한 병에 대한 집착을 떠난 온전한 마음의 상태는 몸의 새로운 반응을 시작하게 하며, 이것을 마음이 지닌 치유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낫기가 어렵다고 하는 병에 걸렸을 때에도 병이라는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 지관수행을 통해 근본적인 자기변화를 이루어, 자기라는 인식의 주체와 병의 본래 모습을 확인할 때 자신과 병의 근원적인 원리를 통찰하게 되며, 이러한 원리가 마음에서부터 깨어날 때 몸은 비로소 새로운 기운으로 충만하게 된다.

낫기가 어렵다고 하는 병을 만났을 때, 지(止)를 통해 무상한 병의 근본성에 집중함으로써 병에 집착하지 않는 평정을 유지하고 관(觀)을 통해 자신의 근원적인 의미를 통찰하면서 본래 병이 없는 진실한 자신의 모습과 하나가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상한 병의 근본성에 집중함으로써 병에 집착하지 않는 평정을 유지하고, 관(觀)을 통해 자신의 근원적인 의미를 통찰하면서 본래 병이 없는 진실한 자신의 모습과 하나가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상한 병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병의 실체를 알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신의 진실한 생명의 모습을 통찰할 때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완전한 몸 · 마음 · 생명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일이다. 매 순간 소멸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몸은 영양의 균형을 갖춘 조화로운 식생활과 섭취한 영양소를 세포 구석구석으로 보내주기 위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의해 유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통해 자기 몸에 병을 생기게도 하고 낫게도 하며 또다시 병을 만들기도 한다. 병이란 마음의 작용이 무언가 잘못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며 바로 그 마음이야말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힘이 존재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은 힘찬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이러한 생명력을 가진 순수의식은 평소에는 번뇌심소 등의 분별하는 마음에 가려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판단 · 분별하는 마음이 멈출 때 그 아래 있던 고요한 순수의식이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이 순수의식이 바로 자신의 몸을 살리는 자연치유력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 갖추어져 있는 본성을 깨닫게 되면 창조의 근원 · 자성의 근원 · 환희의 근원에 접하게 되며, 물질과 정신, 자연 및 일체의 생명과 서로 통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자연계의 모든 구조와 현상의 공통된 원천인 순수의식을 체험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르러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며 자기완성이 이루어진다. 삶의 완성은 완전한 생명의 경지에 들어 영원한 자유 안에서 인간실존의 가치를 살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완전한 생명은 삶의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가 하나로 합해지는 순수의식에 도달할 때 이루어지며, 이러한 의식은 우주의식으로 인간의 가장 고요한 의식 상태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의식이란 의식상태가 가라앉으면 한정된 것을 초월해 모든 가능성의 영역이 되며 그 영역은 모든 자연법칙들과 일치하는 질서가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다. 절대 속에 상대 세계가 있으면 거기에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으며, 삶이 완성된 이러한 경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건강한 상태다.

인간의 마음과 몸은 순수의식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다스려지는데 이때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것이고 자유자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이때의 마음상태는 일체의 그릇된 착각, 전도망상이 없어지고 또한 잠재력도 없어지므로 마음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탈이며,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이러한 모든 가능성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올해의 불서'에 선정된 〈자기치유〉(정우서적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현우경' 이야기 (52)

선사 태자와 악사 왕자 ⑤

악사는 여의주를 선사에게 주고…

선사는 공주와 함께 거리로 나왔다. 다시 거리에서 거문고를 연주했다. 선사의 연주는 또다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공주는 왕궁에서의 좋은 옷도 맛있는 음식도 없는 거리에서 선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호사스러운 생활을 버린 공주는 그래도 선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선사와 공주 앞에 남자 한 명이 다가왔다. 공주는 물었다.

"누구세요?"

"혹 옆에 계시는 분이 선사 태자가 아니신지요?"

"태자…라니요? 누가 태자란 말입니까?"

공주는 남자를 빤히 쳐다봤다. 선사의 거문고가 멈췄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남자는 태자의 손을 잡았다.

"태자님! 선사 태자님이시지요? 살아 계셨군요. 저희는 태자님이 돌아가시지는 않았을까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돌아오시지 않고 이렇게 살고 계시나요?"

"이 몸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이제 저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야지요. 다시 태자님의 자리를 찾으셔야지요"

공주는 놀라물었다.

"태자라니요. 왜 저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나요?"

태자는 그간의 일을 공주에게 말해주었다. 보시를 하기 위해 섬을 찾았고 거기서 여의주를 구하고 또 악사가 선사를 해친 일까지 공주에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악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자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공주는 그 눈물을 닦아 주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사신 또한 태자의 마음에 감복했다. 사신은 말했다.

"참으로 태자님의 마음이 갸륵하시군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숨긴다고 해서 있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셔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악사 왕자에게도 용서를 빌 기회를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아니다. 왕께서는 악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눈이 멀어버린 내가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삽화 · 강병호

"왕과 왕비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꼭 가셔야 합니다"

결국 사신의 설득 끝에 태자는 공주와 함께 잠부드비파 왕궁으로 돌아갔다. 사신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였다. 궁에 도착한 선사를 보고 왕과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니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파도에 휩쓸려 죽은 줄로만 알았다. 이렇게 살아 있었다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선사는 손을 더듬어 왕비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왕비는 이내 선사의 눈이 예전 같지 않음을 눈치챘다. "너의 눈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눈이 상해 버렸습니다"

한편, 악사는 잠을 잘 때마다 선사가 나타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선사가 나타나면 자신의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늘 도사리고 있었다. 그날도 잠깐 낮잠을 자며, 선사가 나타나 자신이 궁에서 쫓겨나는 꿈을 꾸었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났다. 그때 시녀 하나가 들어와 선사가 왔음을 알렸다. 선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형님이 왔다면 이미 모든 것을 말해 버렸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태자가 되지도 못하고 벌을 받고 이 왕궁에서 쫓겨날 것이다'

악사는 멀리서 선사의 모습을 보았다. 왕비는 선사를 안고 울고 있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만 같았다. 악사는 조용히 가슴에 품고 있던 독약을 꺼냈다. 그리고 한입에 털어넣었다.

선사는 악사를 만나러 가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선사는 시녀를 앞세워 악사의 처소로 가는 길에 죽어가는 악사를 발견하게 된다. 선사는 악사의 손을 잡는다. 악사의 입에서 피가 튀어 나왔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아바마마와 어마마마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너를 용서하고 싶었다. 제발 죽지 말아라. 여봐라. 어서 의원을 불러오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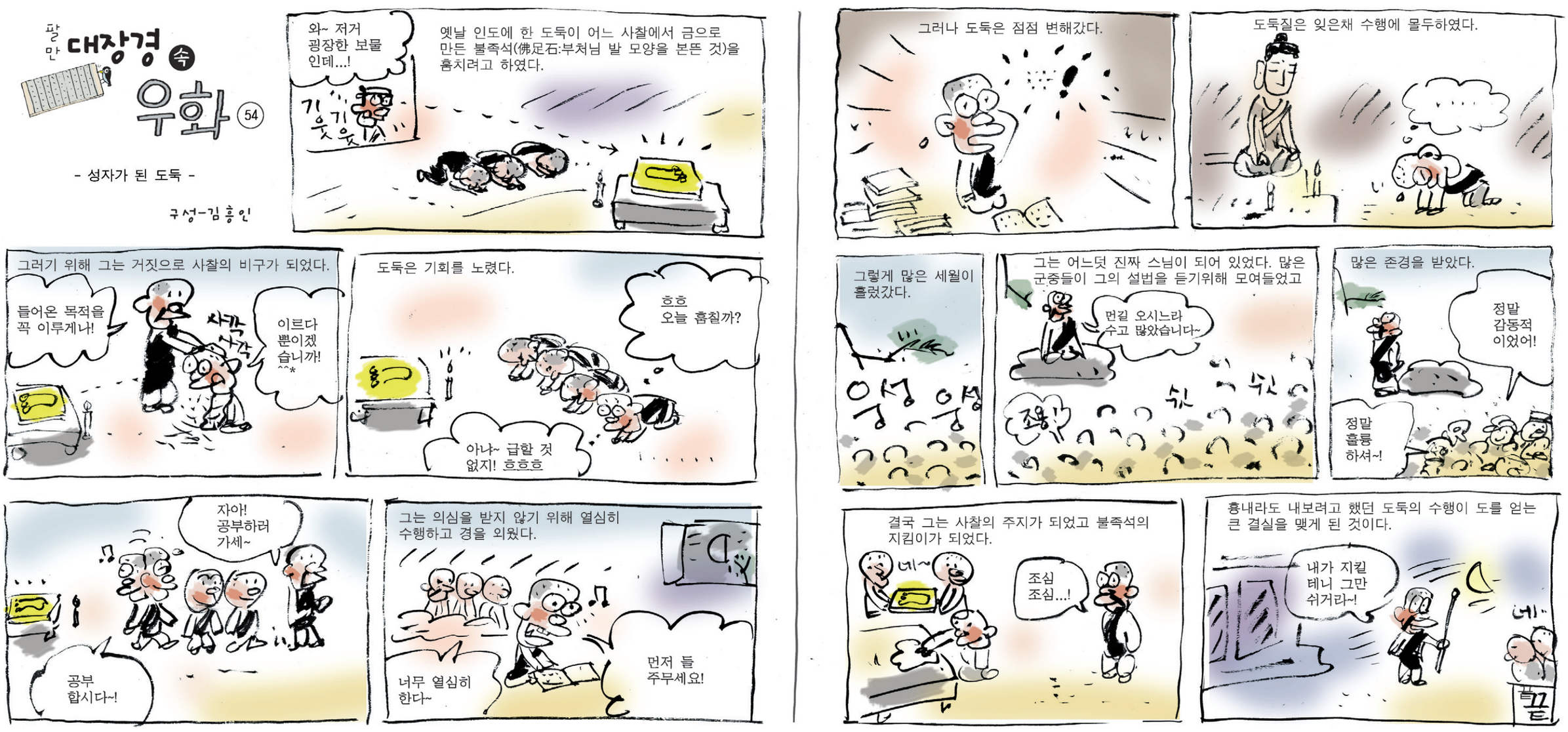
"형님.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 제 죄만큼의 벌을 받고 다음 생애에는 형님을 돕는 사람으로 태어나겠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죽지 말아라. 죽어서는 안된다. 악사야!!"

결국, 악사는 가슴속에 여의주를 꺼내 선사의 손에 쥐어 주고 눈을 감았다. 왕과 왕비는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왕은 악사의 행위가 괘씸하기도 했지만 그런 죽음을 택한 아들이 한없이 가여웠다. 그들은 큰 재를 지내 악사의 죽음을 위로해 주었다.

그렇게 3년 후 선사와 공주는 잠부드비파 왕국의 왕과 왕비가 되었다. 그리고 선사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아픈 백성에게 약을 나눠주는 성군이 되었다. 그리고 늘 여의주가 그런 선사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끝〉

구성=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꿈이 이루어 집니다! ★
보현사신협과 함께하면
– 사찰대출 전문 불교은행 –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스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목걸이


A+B (1set) ₩100,000
택배비무료
주문전화
구 미 미륵사 (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 (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도암 (진각) 010-6657-5522
대 구 포교사 (법일) 010-9591-8599
☆ 유* 무선 겸 용
입금계좌(예금주 : 미륵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죽는다 산다를 떠난다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지난 호에 이어서)

큰스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그 맛을 못 본다면 정말 억울한 것입니다.

질문자1(남): 근데 왜 맛이 그렇게 안 봐집니까?

큰스님: 그래서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모든 사람이 육신으로써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선방에 들어가서 육신이 견딜 수 없는데도 억지로 하다하다 나중에는 병들어서 약탕관이 떠날 사이가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도 어느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스님이란 큰스님을 다 찾아다니면서 화두를 받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안되고 그래서 선방으로 들어갔는데, 선방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져서 인제는 병이 들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와서 스님한테 듣고 가서 그렇게 노력을 해 봤다는 얘깁니다. '그저 무조건, 죽든지 살든지 먹는 거든지 일체가 다 네놈이 하는 거니까 너 알아서 해라!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 감사하구나!' 하고 놓고서 그냥 견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하, 이렇구나!' 하면서 아주 신기하게 그냥 확 트여지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나 좋아서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어깨가 쭉 펴졌답니다. 병들었던 그분이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러분이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이자 바로 중생이고 중생이자 부처님이에요. 한생각에 껍데기가 벗겨지느냐, 덮어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사는 고가 고가 아니라 전부 나를 가르치는 수행 과정이라고요. 참나가 현재의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이렇게…. 그것을 생각해 보면 고맙기 그지없는 겁니다. 아니, 작년 콩씨를 갖다 올봄에 심었더니 콩나무가 됐는데, 화해서 콩나무가 됐으면 콩씨는 없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콩나무에 콩이 붙었는데도 작년 콩씨 찾느라고 바깥에서 휘적휘적한단 말입니다. 그 콩씨가 바깥 어디에 있겠습니까?

질문자1(남): 과거에 비해 어리석어진 걸까요, 사람이?

큰스님: 우리가 바깥으로만, 물질 본위로만 나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듣고 보고 행하고 이러는 게 전부 물질 중심이고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좋고 나쁘고, 내 탓 네 탓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나는 사실 조금도 거짓 안 합니다. 내 양심이 부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 양심에서, 즉 우주간 법계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간 법계에 가설이 다 돼 있습니다. 천이통, 무전천체통신기로 전체를 듣고, 또 천안통, 천체망원경으로 영사기가 돌아가듯 여러분이 움죽거리고 있는 모두를 보고, 또 타심통, 탐지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또 숙명통, 컴퓨터가 여러분이 지내 온 걸 다 알고, 또 누진통, 책정기가 이 다섯 가지를 다 알아서 책정을 하는 겁니다. 책정기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다 포함해서 지금 현실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믿지 않는 겁니다. 빛보다도 더 빠른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채로 여러분의 집에 한번 좀 갔다 와 보세요. 일 초도 안 걸립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 보세요, 지구가 얼마만하게 보이나. 한번 나가 보세요, 어떠신가. 밖으로 나가시는 데 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 갔다 오시는 데 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자1(남): 없어요.

큰스님: 없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고 나서 이렇게 했더랍니다. 아니, 죽었다고 하지 말고 꿈이라고 합시다. 꿈을 꾸는데 말입니다, 육체는 재워 놓고 꿈을 꾸는데 뺑 돌아서 큰불이 났더랍니다. 그래 길을 걷다가 불에 포위가 됐더랍니다. 포위가 됐으니 어떻게 나갑니까? 빠져나가려면 꼭 불에 타 죽겠더랍니다. 그래서 그 불에서 못 나가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불 가운데서 쓱 나오시더니 "야! 내 지팡이를 잡아라. 네가 지팡이가 없다면 내 지팡이를 주지 못할 것이고, 네 지팡이가 있다면 내 지팡이를 너에게 줄 것이니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살려 주십시오." 하고 절을 하니까 "오! 그 살려 달라는 지팡이가 있구나."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살려 달라는 지팡이를 주지." 그러고선 지팡이를 턱 내미는데 그 지팡이에 자기가 턱 서니까 불이 전부 없어지더랍니다.

또 한 군데를 가니까 물이 아주 천야만야하더랍니다. 거길 건너가야 자기 집에 갈 수 있는데 물에 뺑 둘려 또 포위가 됐더랍니다. 그래서 배를 찾으니 배가 있나요? 그래서 그 강을 못 건너가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데 또 그분이 나타나셨더랍니다. 그래서 꿈에서도 '야! 참 이상도 하다. 나를 스님이 되라고 이러시나? 꿈에 스님이 나서서 이렇게 살려 주시니 이 고마운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음, 네 정성이 지극하니 내 지팡이를 주마." 하고선 지팡이를 탁 내놓는 그 바람에 물이 그냥 싹 없어지더랍니다. 그래, 길이 났으니까 그냥 갔죠?

그랬는데 또, 산에 온통 구렁이니 뭐, 짐승들이 잔뜩 있어서 응응거리고 발 하나 떼 놓을 자리가 없더랍니다. 그렇게 자리가 없어서 거기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뭐 여자 귀신 남자 귀신 애 귀신 늙은이 귀신 할 것 없이 귀신들이 그냥 몰려서 전부 자기를 좀 살려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 그렇게 할 힘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엎드려서 빌었답니다. "스님, 스님! 좀 살려 주십시오. 아까도 살려 주셨는데 지금 또 한 번 못 살려 주시겠습니까!" 하고 빌면서 그냥 마음으로 마구 울었답니다, 꿈에.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면서 막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석 달이 걸렸다는 겁니다. 석 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냥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뼈다귀만 남아 가지고 어떻게나 그 스님을 찾고 울었는지 모르는데 스님께서 요만한 부채 하나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부채를 탁 내던지니까 그 영계들이 다 없어지더랍니다. 또 그 짐승들은 양산을 하나 훅 펴니까 그 속에 그 짐승들이 다 들어가도 그 자리가 모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겁니다. 양산을 턱 펴니까 양산에 전부 짐승들이 들어가 앉는데 하여튼 나중에는 요만한 알갱이가 돼서 다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고만 거기에서 그걸 보고선 탁 깼더랍니다. 깨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질문자1(남): 깨고 나니까 꿈이었습니까?

큰스님: 그렇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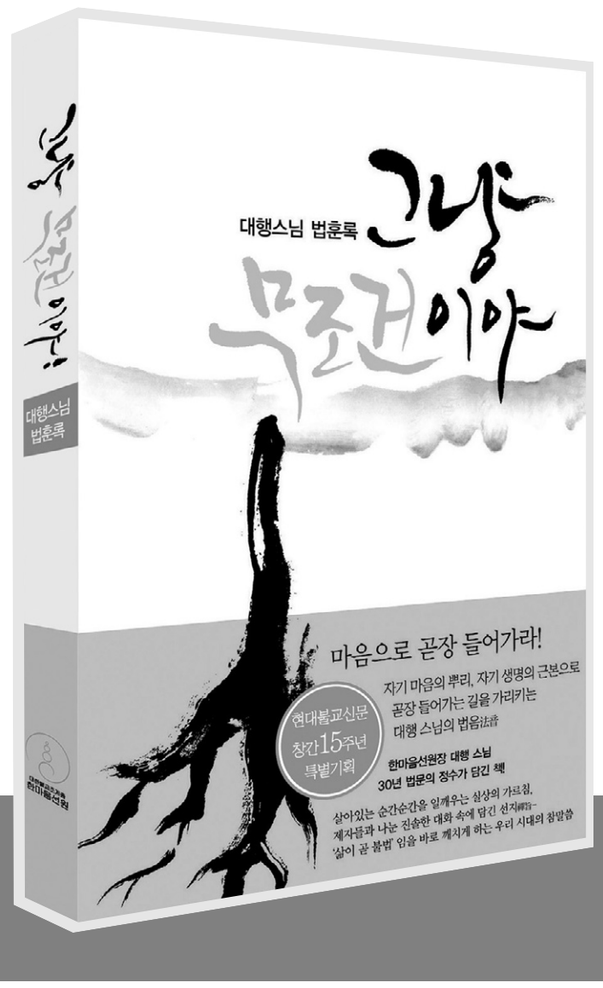
질문자1(남): 꿈이었네요.

큰스님: 허허허…, 지금은요? 그런데 말입니

☞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자기를 끌고 가는 장본인인 참자기를 왜 못 믿습니까

☞ 29면에서 계속

다, 묘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 있을 때 물질 본위로 살기 때문에, 이 마음은 체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탈 것도 없고 빠질 것도 없고, 당할 것도 없고 잡아먹힐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가는 그 의식 때문에, 물질 본위로 살던 그 습이 있기 때문에 탈까 봐 못 들어가고 빠질까 봐 못 들어가고 먹힐까 봐 못 가고 영계에 끄달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몸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놔라 이겁니다.

질문자1(남): 그게 그냥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놔지는 겁니까?

큰스님: 그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라고 안 그러고 자기가 살 양으로 안 그런다면, 죽는다 산다를 떠난다면, 내가 없는데 나를 버렸는데 거기에 나 이외에 뭐 붙을 게 있습니까? 나는요, 죽어야 나를 본다고 그래서 내 한 몸뚱이 죽는다 산다 이런 걸 그냥 버렸더니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믐밤에 아무리 깜깜해도, 아무리 무서워도 두렵지가 않고요. 그 뭐가 두렵습니까? 죽은 영계들이 있다 하더라도 외려 친근하고 외려 친절한 거 있죠? 둘이 아닌데요. 얼마나 좋아요.

충북에 있는 광명사에 갔는데요. 여기같이 이런 고상한 탱화가 아니고 울긋불긋한 그림 열두 가지를 쭈욱 걸어 놓고, 또 한 아홉 갠가 해서 쭉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름 대기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전부 부숴 버렸어요. 내 자랑이 아니라 그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수화풍으로 뭉쳐졌던 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다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물질 본위로만 돌아가는 이 습을 놓는다면 그것은 바로 남이 아니라 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할 시에는 마음들이, 그 믿고 모시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흡수 못하게 된다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신장도 될 수 있고 칠성도 되고 독성도 되고 지신도 되고 목신도 되고…, 여러분이 찰나찰나 바뀌지는 겁니다. (등 뒤의 탱화를 가리키시며) 그래 손이 저렇게 많지 않습니까? 찰나찰나! 그러면 여러분이 살림살이하는 데 고정된 관념이 있고 고정되게 행하는 게 있으십니까? 고정되게 만남이 있으십니까? 고정되게 듣는 것이 있으십니까? 고정되게 가고 오는 게 있으십니까? 전부 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한 겁니다. '주인'이자 '공'이다. 그러니 이름 그대로 내가 공했으니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가 맡겨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그런지 남들은 믿으면서도 자기는 못 믿어요.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장본인인 참자기를 못 믿어요. 자식이라면 아버지를 진짜 믿어야지 왜 못 믿습니까? 현재 자기는 자기 나기 이전의 자기 조상을 믿어야지 왜 못 믿느냐 이거예요. 자기 조상은 죽지도 않아요. 또 변하지도 않아요. 그런 건데 왜 못 믿습니까, 글쎄. 그 못 믿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법당에 들어오면 나 따로 있고 부처님 따로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습니까? 예전에, 자손들이나 남편이나 부모가 어디 길을 떠나면 그 사람의 밥그릇을 비우지 않기 위해서 부뚜막에, 조왕에다 밥을 떠 놓고선 마음으로 항상 신경을 쓰고 있었던 아낙네들이 많았죠. 그리고 예전에는 종도 있고 양반도 있기 때문에 양반을 모시는 마음을 하시라도 게을리 하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도 그랬구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남자 조왕신이 끌어 들여오면, 여자 조왕신은 그 물건으로 해서 먹이고 먹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부부가 다 조왕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면 이렇고 저렇게 치면 저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안 가는 데 있습니까? 그러니 지신도 되죠. 나무 있는 데는 안 가십니까? 그러니 목신도 되죠.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도리를 자세히 아셔야 합니다. 먼저 나부터 알기 위해서는 '일체 만법은 한 구멍에서 나오는구나! 그 나오는 데다가 되맡겨 놔야 되겠구나! 이건 고가 아니라 바로 나를 성숙시키는 과정이구나! 아이구, 감사해라.' 하고선 자기 자신을, 주인공을 그렇게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 밖에는 해결 못해!' 하고 믿고 놓게 됩니다. '해 주시오'가 아닙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너밖에는 해결 못해!' 하는 겁니다.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 입으로만 이렇게 부르고 다니면서 "주인공! 해 주시오, 해 주시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해 달라는 겁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미거하다거나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물의 짐승도 나 아님이 없거늘 내 뱃속에 그 미생물을 그냥 끼고 있으면서도, 똥집을 내 뱃속에 끼고 있으면서도, 더러운 가래침이나 핏물 고름물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찮은 사람을 보면 하찮다 그러거든요. "에이, 건방져!" 이러거든요. 그리고 비구가 비구니 알기를 우습게 알거나 또 비구니가 비구를 볼 때 우습게 봐서도 아니 되고요. 어머니는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니 어머니요, 아버지는 공기와 태양빛을 모두 줘서 기르니 아버지요, 이것이 둘이 아니에요. 모두가 삼위일체로 다 회전이 되면서 맞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몸에 사생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바로 삼합이 맞아야 하니까 그걸 삼신이라고 일컬어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간으로 살다가도 나쁘게 살았으면 자기 한 것대로 딴 데 가서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가 한 것대로예요. 가게에 물건 사러 갔을 때에 이천 원짜리를 천 원만 가지고 가서 달라고 해 보세요, 주나? 안 줍니다. 내가 일을 해야만 일한 대가를 주지 그냥 가서 달라면 안 줍니다. 그러니 어찌 우연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대로 법이에요. 부처님 법! 그러니 내가 노력하지 않고서 누구더러 깨닫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네? 누구더러 그 맛을 보여 달라고 하겠습니까? 누구더러 내 배를 부르게 해 달라고, 춥고 배고픈 거를 다 면하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똑바로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내 몸뚱이 생긴 게 바로 화두예요. 이게 화두고 내가 움죽거리는 게 그냥 행선이고 그냥 참선이죠. 와선이니 좌선이니 입선이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이름이 참선은 아니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자체, 앉고 서고 하는 게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내서 조용하게 앉아 있는 것도 그것을 좌선이란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가 참선을 하는 거고, 일어서서 먼 산을 바라보는 것도, 허공을 바라보는 것도 참선입니다. 물을 내려다보는 것도 참선이에요. 어느 거 하나 참선 아닌 게 있어야죠.

여러분은 일을 해 가면서도 한생각을 잘하면서 하시구요,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은 급하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저 10분이든 5분이든 나를 성숙시킬 수 있게끔 참나에 관(觀)하고 나가세요. 또 집안일 하는 분들은 자녀와 남편을 내보내는 데 말 한마디라도 곱게 해 주고, 말 한마디라도 잘해 주어야 능률이 나거든요. 일하는 게 능률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주문을 외운다, 절을 한다, 뭐를 한다 뭐를 한다 하지 말고 한생각을 그냥, 절 한 번을 하더라도 한생각으로써 삼만 번을 그냥 한 번에 해 버린다든지, 오만 번을 한 번에 해 버린다든지, 아예 그냥…. 어차피 욕심을 부리려면 그냥 몽땅 다 해 버리지 그게 뭐라고 그렇게 두고두고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하느냔 말입니까? 난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 진 몰라도 그냥 죄 신청부같아요. 그러면서도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청부같으면서도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습니다." 이럴 땐 기특하고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부모를 생각하는 저 소중한 마음!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또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아리따운 마음, 그게 관세음의 마음이지 따로 있소?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그걸 용서하시는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지 어디 따로 있소? 내 자식한테만이 아니라 남들한테도 그런 마음만 가져라 이겁니다. 모두가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으니까요.

한번 사생의, 사륜의 굴레 바퀴가 돌아가는 걸 몽땅 본다면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모두가, 벌레 하나도 나 아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공생(共生) 공용(共用) 공체(共體) 공식(共食) 하고 있습니다. 내 배 속에서 지금 움죽거리는 걸 볼 수 없다면, 사생이 움죽거리는 걸 볼 수 없다면 바깥 세상을 보세요. 바깥에 한 몸 한 몸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또 사생이 외부에 있으면서도 그 한 몸 안에 또 있으니 말입니다. 그 한 몸 안에 또 사생만 있나요? 그 사생 속에 또 사생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보이지 않는 모습 없는 모습들이 한생각에 천 명도 나고 만 명도 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영계라는 거는, 물질적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물질이 아닌 바로 영체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시면 나라도 다스리고 건질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장을 놓았는데, 창문을 막아서 바람이 안 들어오고 환기가 안되면 장을 이쪽으로도 옮겨 놓을 수 있고 저쪽으로도 옮겨 놓을 수 있고 그래요. 이 세상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니 이 지구도 바로 내 몸뚱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제가 체계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살림살이나 하찮거나 좋은 말, 이런 것이 전부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49년 설하신 그 뜻을, 법의 그 뒷면을 보세요. 학식만 배우지 말고 마음이 쓰여 있는, 글자가 쓰여 있는 그 백지도 보셔야죠. 그 백지가 아니었더라면 글씨가 어디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써 점안식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한마음선원 합창단 보살님들의 선법가 공양이 있겠습니다.

큰스님: '일체제불의 마음' 그 노래를 가만히 새겨서 들어 보세요.

※위 법문은 1987년 12월 13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연이란 것은 없어요.
자기가 한 것대로예요.
가게에 물건 사러 가서
이천 원짜리를 천 원만 가지고 달라고 해보세요,
줍니까? 안 줍니다.
내가 일을 해야만 일한 대가를 주지
그냥 달라면 안 줍니다.
그러니 어찌 우연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대로 법이에요, 부처님 법.
내가 노력하지 않고서 누구한테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2013년 마음다이어리



마음의 흐름을 담는 빈 그릇

2013년도 '마음 다이어리'는 대행 선사를 추모하며
스님의 유품과 말씀을 엮은 특별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생활의 지침이 될 법어와 임효 화백의 그림이 어우러져
다이어리의 가치와 품격을 더하였습니다.
마음의 흐름을 담는 빈 그릇, 마음 다이어리와 함께
2013년 한해 마음의 길 환히 밝혀가길 바랍니다.





● 구입처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 470-3118
• 현불샵 : (02)2004-8213 • 조계종 불교전문서점 (02)2031-2073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지하 1층)
• 한마음저널 공식블로그 '한 그루의 숲'에서도 판매합니다! http://blog.daum.net/hanjournal (숲속가게 클릭!)
● 문의 : 한마음저널편집실 (031)470-3180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달라이 라마와 스테판 에셀 '세기의 대화'

연기법 실천이 '큰 우리'를 만듭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 문화는 분명히 위기다. 경쟁으로 점철된 삶 속에 우리는 자신이 가야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의 지식인 스테판 에셀과 티베트 불교의 정점 달라이 라마의 대담을 담은 **〈정신의 진보를 위하여〉(임희근 옮김, 돌베개)**가 던지는 시사점은 크다. 지식인과 수행자가 나눈 세기의 대화를 일부 발췌했다. **정리= 신중일 기자**



스테판 에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관점은 자연의 대상들에 이름을 붙이고 '이것은 숲이다. 저것은 나무다…' 라고 말하는 사명을 신이 인간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접근법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고 그저 수많은 구성 요소의 하나일 뿐입니다.

달라이 라마 불교, 자이나교 모두 그러하지만 절대적인 창조주는 없습니다. 그 자체로서 온전히 독립적인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낳은 결과입니다. 만물은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유일한 법칙은 연기(緣起)의 법칙입니다.

스테판 에셀 신이 있다고 보건 없다고 보건, 우리는 인간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호의존' 이란 종교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두와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 새로운 형제애를 자연에 대해 발휘해야 합니다.

달라이 라마 그것은 그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행위들이 만드는 눈앞의 효과에만 관심을 가질 뿐 장기적인 결과는 도외시 합니다. 이는 그들이 상호 의존을 토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현재에 달려 있고, 어떤 계획이든 그것을 추진할 때는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숱한 파업, 그리스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소요사태를 보십시오. 만약 엄격한 조치를 난폭하게 강요하지 않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취했다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를 '전일적 관점의 결핍' 이라고 부릅니다. 정신의 지도가 없는 셈이지요.

스테판 에셀
"생각만으로 안돼
연민으로 행동해야"

달라이 라마
"'마음 지도' 찾으면
연민은 저절로 구현"

스테판 에셀 사람이 아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는 것이 행동이 되려면 이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무언가' 는 성하께서 '연민' 이라고 적절하게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만 해서는 안되고, 동시에 연민심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달라이 라마 연민, 그것은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내게는 내 집을 보살필 책임이 있고, 앞으로 태어날 내 자손 세대의 운명에 대한 책임도 있다.' 이렇게 자신이 의식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식이 따라오고 행동이 따릅니다.

우리는 정신의 지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 지도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감정에서 저 감정으로 이행하는 법을 알 수 있고, 이곳에서 시작된 감정이 어떻게 다른 감정을 자아내며 그 감정은 또 어떻게 다른 감정을 만들어 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도가 있다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활동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에 관심을 갖고, 뇌에 속한 우리의 정신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교육체계 속에서는 이런 주제에 관해 우리가 전혀 배운 바가 없지요.

스테판 에셀 학교 교육에서는 우리 정신의 복잡성에 대해 그다지 배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하께서는 붓다의 가르침을 길잡이 삼아 이 정신의 지도를 잘 발전시키고 그 감정과 정서를 비폭력적으로 지켜내는 방법들을 지도상에 입력하시는 듯 합니다. 어쩌면 현대적 사유- 여성들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시대-의 메시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 맞습니다. 인간적 감수성, 연민, 비폭력 같은 것들이 발전해나가는 데에 여성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에셀 님이 방금 강조하신 것처럼 21세기 사회에서 이런 것의 계발은 아직 미진합니다. 21세기 현대사회는 연민, 관용 같은 인간적 심성의 계발보다는 지적이고 학문적인 탁월성만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스테판 에셀 서양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구축됐습니다. 하지만 성하께서는 탄탄한 바탕 위에 서 계시며, 아주 오래된 토대를 갖고 계시다고 느껴집니다.

달라이 라마 붓다 자신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에는 오직 스스로 깊이 탐구한 후에 옳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요. 이렇게 실천하다보면 우리에게 좀더 큰 책임이 생깁니다. 유대-그리스도교의 신은 모든 책임을 도맡지만, 붓다는 따르는 이들에게 책임을 지게 합니다.

스테판 에셀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달라이 라마 우리는 이러한 연기법 실천을 널리 펴서 지구 전체를 포괄하는 크나큰 '우리' 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 '우리' 와 '그들' 이 구분되는 체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생기고 전쟁이 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편적인 박애 정신을 지닌다면 그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활짝 열릴 것입니다.

스테판 에셀 성하는 신경과학자들과도 긴밀하게 접촉하셨고, 그들이 발견한 내용이 성하 자신이 체험한 바와 흡사하다고 보셨지요.

달라이 라마 수백년 전부터, 우리 불교도들은 마음이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는 쪽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쓰는 탐구, 내면 들여다보기, 명상 등의 방법은 수백년 동안 정립돼 온 실제 수행법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명상입니다. 명상은 종교적인 어떤 의례가 아니라 마음을 관찰하고 계발하는 치밀한 연습인 것입니다.

스테판 에셀 사람에게 주된 두 가지 힘이 사랑과 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움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달라이 라마 저와 가까운 과학자들과 뛰어난 인물들이 지식을 나눠준 덕분에 저는 그들과 공부하며 마음의 지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일단 마음의 풍경이 명료하게 밝혀지고 통제되면 우리는 연민, 용서 같은 긍정적 감정들을 키울 수 있고 분노, 멸시, 증오 같은 파괴적 감정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는 종교교육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과학' 입니다.

社說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축제는 끝났다. 박빙일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51.6%의 득표율로 18대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은 '첫 부녀 대통령' 이라는 기록을 새로 세웠다. 또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영예을 안았다.

사실 불교계는 박 당선인의 부모인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독실한 불자였던 것을 상기하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박 당선인 역시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골자로 한 9개의 불교 정책 공약을 내놨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사찰 중첩 규제 법령 해소 등 불교계의 해묵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농지보전 부담금에 대해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를,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농지법 제6조의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전통사찰의 중첩 규제 완화를 위해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감면도 약속했다.

문화재 보호기금을 5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전제 지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상응하게 정부의 문화재 유지·보수 예산을 증액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공약은 나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공약의 이행이다. 인수위 과정에서 덜어낼 것들은 덜어지겠지만, 박 당선인이 공약의 골자로 삼은 전통문화 보존은 꼭 안고 가야할 과제다. '한류 열풍' 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 문화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이다.

축제가 끝난 지금, 불자들 역시 마음을 추스르고 당선인이 얼마나 자신의 공약을 지켜나는지 살펴야 한다. 그래야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이 발전할 수 있는 통합의 길을 만들 수 있다.

佛母의 아름다운 회향의 의미

중요무형문화재 118호 불화장(佛畵匠) 기능보유자 석정 스님이 12월20일 오후 11시 52분 경 부산대 양산병원에서 입적했다. 세수 84세, 법납 72세다.

1928년생인 석정 스님은 1940년 순천 송광사에서 석두(石頭)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같은 해 불모 일섭 스님에게 불화를 사사받고 그 다음해 인가받았다. 1969년 부산에서 선서화전을 시작으로 각종 불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시회를 열었으며 대한민국불교미술전람회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평생을 불모(佛母)로 산 스님의 일생은 수행자의 삶 그 자체였다.

그 면모는 지난해 주석처 선주산방에서 체결한 장기기증 서약식에서 드러난다. 스님은 당시 "부모에게 받은 유일한 재산인 몸 한 조각이라도 세상에 도움이 돼 베풀 수 있다면 최고의 공양이다. 늙어 쓸모없는 몸이라도 의대생들의 실습 교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증할 수 있으니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소감을 전했다.

스님의 문도들은 이 같은 생전 의지를 그대로 따랐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가 주관한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한 스님의 운구는 동국대 경주 병원에 기증됐다. 유훈에 따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빈소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영결식도 없었다. 다만 49재만 봉행될 예정이다.

불교에서는 '아상(我相)' 을 버릴 것을 강조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침이지만 이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오온(五蘊)에 사로잡힌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어려워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적에 든 스님의 회향은 기본을 지키는 수행자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필요한 곳을 보시한다면 크게 공덕이 된다"는 故 석정 스님. 스님의 아름다운 회향은 계율 부재로 시름하는 승가와 탐욕에 몸부림치는 세간에 내리는 장군죽비이자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 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10-9822-8345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22-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귀의 삼보하옵고
찬덕불교의 연등이 새로워집니다.
찬덕불교는 우리 전통을 이어 온 아름다운 등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연등 변화의 새로운 바람을 선도하겠습니다.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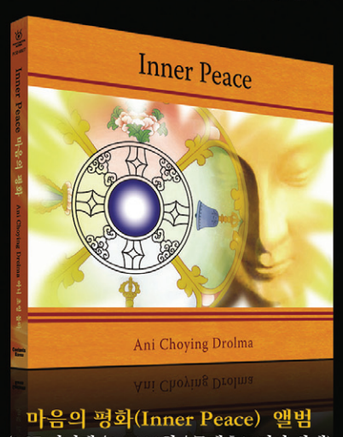
찬덕불교 대표 김기찬 합장

불교음반총판 운주사에서 추천하는 이달의 음반

네팔 출신 비구니 / 세계적인 뮤지션 / 네팔 최고 국민가수, **아니 초잉 돌마!**
네팔 국민가요 "꽃의 눈으로 보면"과 100만 이상 판매한 밀리언 셀러 앨범 〈Inner Peace〉의 주인공!
'관세음 보살이 현신한 듯 자비심 가득한 천상의 목소리'라는 극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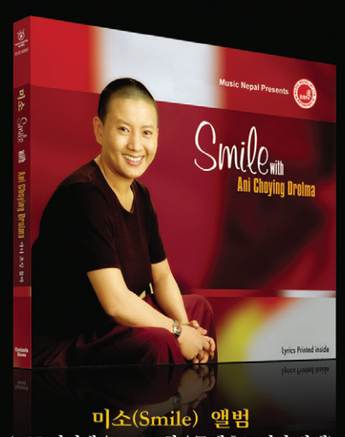


네팔의 국민가요 "꽃의 눈으로 보면"을 부른 비구니이자 국민가수 아니 초잉 돌마! 물 흐르듯이 읊조리며 부르는 사랑과 자비심 가득한 목소리는 명상적이면서도 감미롭지만, 우리들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강력한 치유의 힘이 담겨져 있다. 생활 속의 불교 대중화'를 지향하며, 자신이 설립한 '네팔 비구니 복지재단(NWF)'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인 사회봉사가 이기도 하다.



마음의 평화(Inner Peace) 앨범
(1CD디지팩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전세계 100만장 이상 판매를 기록한 최고의 베스트 셀리작!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무한한 환희심을 느끼게 하는 마음공부 음악! 불교의 만트라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비주>, <육자대명주>, <아미타불심주>등을 반주리, 타블라, 기타반주에 맞춰 티베트어로 부른 역작



미소(Smile) 앨범
(1CD디지팩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스스로 마음을 일깨우면 미소가 지어지듯, 종교를 초월하는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위무를 주는 미소 같은 음악! 네팔의 국민가요 "뿔꼬 아카마" 에 비견되는 타이틀곡 "바푸와(나그네)" 포함 10곡 수록



지복의 순간
(Moments of Bliss) 앨범
1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각종 시상식에서 <최우수 여성보컬>, <올해의 노래와 레코드>상 등을 휩쓴 명반! 자신의 몸을 사르는 촛불같이 희생의 음성으로 지혜와 자비의 불을 밝히는 음악! 네팔 최고의 인기곡이자 국민가요 "뿔꼬 아카마(꽃의 눈으로 보면)" 포함 9곡 수록



시간의 강
(Time) 앨범
1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Image Channel Awards>상 수상앨범! 무한한 자비심과 종교를 초월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치유, 위안을 주는 음악! 타이틀곡 "혼자 말라이 비한(나의 새벽)" 포함 11곡 수록



구입처 : 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 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